

2018

문화원과 함께하는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II

결과보고서

의왕 · 하남

뒷짐지고 스스름하게

마을읽기

뒷집지고 슴슴하게
마을읽기

2018

문화원과 함께하는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II

-

의왕 · 하남



문화원은 ‘현재’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생활문화동아리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가 2년 동안의 기간을 마쳤습니다. 그 활동의 기록과 이야기들이 모여 <뒷집지고 슴슴하게_마을읽기>이라는 제목의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의왕문화원과 하남문화원이 협력하여 약 40명의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 창의적으로 지역을 새롭게 읽고, 발견하는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의왕문화원은 ‘매핑으로 마을 읽기’라는 주제로 지역 지도를 새로 그리는 작업을 추진했고, 하남문화원은 ‘일상생활로 마을 읽기’라는 주제로 지역에서 살아 온 나의 이야기가 지역에 어떤 의미였는가를 밝혀내는 과정을 통해 지역을 새로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중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역할이 전통과 전례의 답습 차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에 ‘의한’ 활동은 없었습니다.

지역(지방)문화원은 항상 ‘과거’를 다뤄왔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다루는 역사적 ‘시점’을 우리는 어떻게 잡고 있고, 잡아야 하는가가 본 사업의 문제의식입니다.

문화원의 활동 영역이 전통과 역사의 영역을 넘어 ‘지금’을 고민하는 태도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단히 유동적이고, 고정되지 않은 시제입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의 삶의 모양새에 따라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지역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인 것입니다.

강의와 토론, 현장 답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함께 한 주민들은 길을 보면서 삶을 보았고 내 삶이 투영된 마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마을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그 마을의 삶의 질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성찰이 가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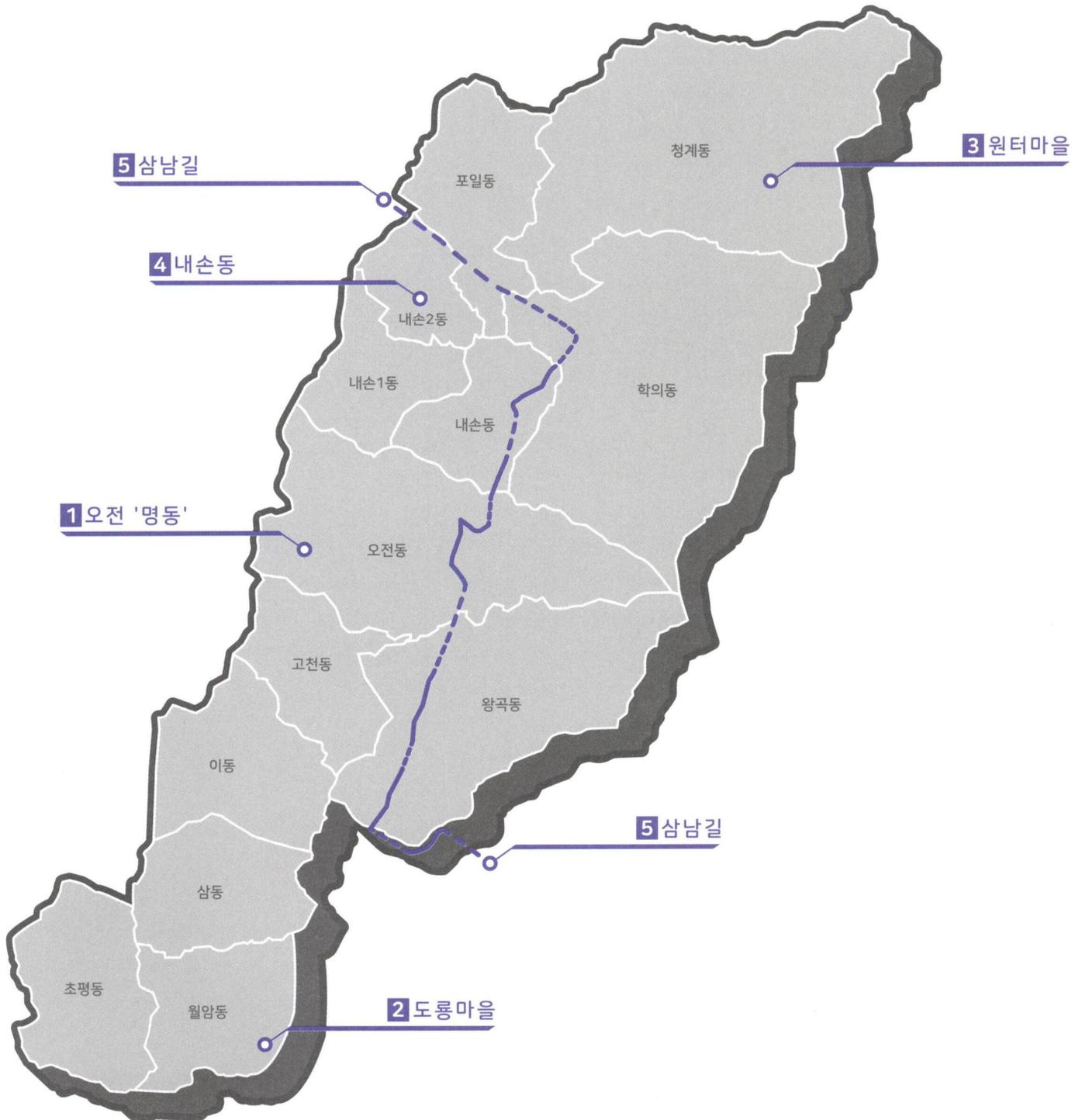
마을을 읽는 것은 삶을 읽어내는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이 협력하여 보다 많은 지역에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함께 수고해주신 한봉우 의왕문화원장님, 유병기 하남문화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함께 해주신 의왕과 하남 주민들의 땀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 백

목차

여는 글	03
문화원은 '현재'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_염상덕	
.....	
PART I.	06
의왕, 맵핑으로 마을 읽기	
학생들의 삶이 보이는 오전명동길	08
집성촌의 변화를 읽어보는 도롱마을 성씨와 길의 변화	16
길과 건물 맵핑으로 읽어낸 원터마을의 다이나믹한 변화	28
재건축지역과 아닌 지역의 차이가 느껴지는 내손2동 골목	36
걷기 좋은 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보이는 삼남길 제2,3구간	46
.....	
PART II.	56
하남, 일상생활로 마을 읽기	
흙새기 마을 이야기	58
아주 특별한 미사리 카페	80
5일장 사람들	91
특별한 사람을 위한 자연스런 식당	94
덕풍천, 사용설명서	100
아주 어른스러운 산책	106
내미길 마을갤러리	114
.....	
PARTIII.	128
마을큐레이터가 되기까지	
진행과정	130
특강	152
모니터링	158
.....	
닫는 글	166
나와 마을을 연결하라_민병은	



PART I

의왕, 매핑으로 마을 읽기

- 학생들의 삶이 보이는
오전명동길 ❶
- 집성촌의 변화를 읽어보는
도룡마을 성씨와 길의 변화 ❷
- 길과 건물 매핑으로 읽어낸
원터마을의ダイナミック한 변화 ❸
- 재건축지역과 아닌 지역의 차이가 느껴지는
내손2동 골목길 ❹
- 걷기 좋은 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보이는
삼남길 제2,3구간 ❺

평강공주 팀

(박찬덕, 전영순, 정연남)

오전동을 매핑하다



학생들의 삶이 보이는

오전명동길

학생들은 오전동을 명동이라고 부른다. 어른들은 모르는 용어다. 대략 1km 남짓한 이 거리에는 주택가와 좁은 상가들이 밀집해 있다. 특히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몰려있고 건물 하나 걸러 모두 독서실이 있다.

실제로 돌아다녀보니 계원대 주변은 비싸고, 오전동은 물건 값도 싸고 학생들이 즐길 것들이 많았다.



배움터

- ① ETC학원
- ② 생영어교습소
- ③ 눈높이센터
- ④ 잉클루영어수학학원
- ⑤ 선한지혜학원
- ⑥ ICS영수학원
- ⑦ 지혜의숲수학학원
- ⑧ 창우수학학원
- ⑨ 예일영수학원
- ⑩ 비상학원
- ⑪ 우주수학학원

- ① 아이아트미술학원
- ② 이대음악학원
- ③ 예담음악
- ④ 꿈그린미술
- ⑤ 용인대태권도
- ⑥ 검도학원
- ⑦ 신줄리어드음악학원
- ① 의왕독서실
- ② 온더데스크독서실
- ③ 스테디뱅크독서실
- ④ 한우물독서실

먹거리

- ① 이디야커피숍
- ② 베스킨라빈스아이스크림
- ③ 명랑핫도그
- ④ 스콜피자
- ⑤ 아말(감탄떡볶이)
- ⑥ 죠스떡볶이
- ⑦ 김밥나라
- ⑧ 동대문엽기떡볶이
- ⑨ 널리파스타
- ⑩ 코바코돈가스
- ⑪ 커반

놀이터

- ① 시즌아이PC방
- ② 풀존PC방
- ③ 편존PC방
- ④ 상패PC방
- ⑤ 유니커스피서방
- ① 테마노래방
- ② 모락산노래방
- ③ 코인노래방
- ④ 월드컵노래방
- ① GS24
- ② 경진마트
- ③ 메가24마트

«오전명동 어슬렁거리다»

문득 ‘오전동에 학원이 몇 개가 있을까.’ 궁금해 매핑을 해보았다. 한 상가에 학원 10개가 있는 곳도 있다. 4층짜리 건물에 초등학생 대상의 학원은 8개가 있다. 독서실도 많았다. 독서실 밑에는 학생들이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매운 떡볶이나 피자, 스파게티, 아이스크림 집이 있다. 특징적인 건 초등학생 대상 학원이 많다. 초등학교 때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로 학원을 다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학원 갔다가 간식 먹고, 학원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 하다 집에 들어가는 패턴이 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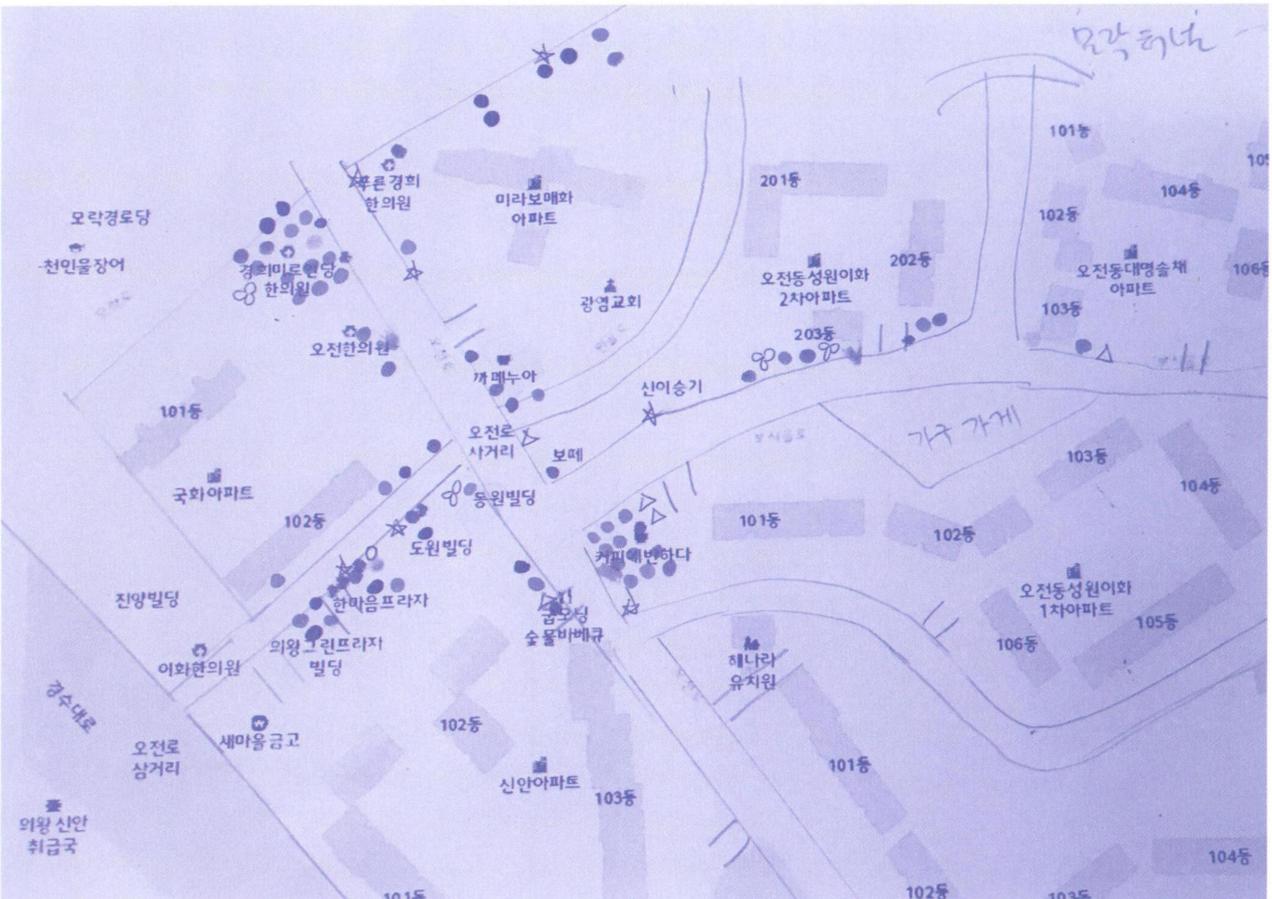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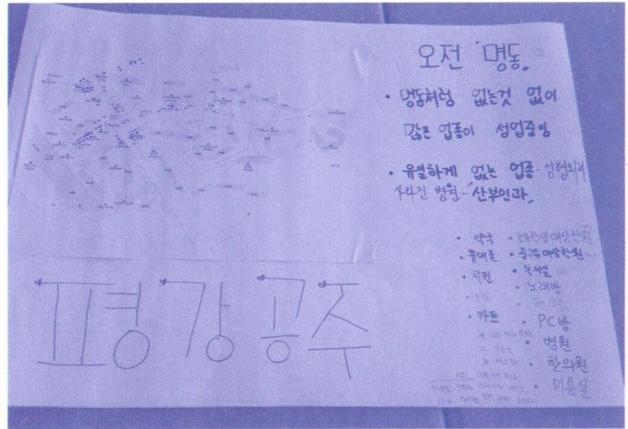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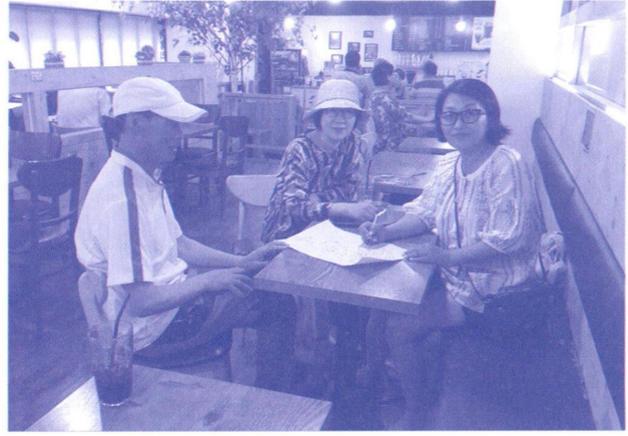
매핑하는 데 우여곡절이 많았다. 처음에는 마을 학교와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을 찾아보고 싶었다. 그런데 현장워크숍을 통해 마을을 선생님들과 어슬렁거리면서 전면 수정을 해야 했다. 나는 오전동에서 18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꼼꼼하고, 살살이 본 건 처음이다. 매핑하면서 거의 상가들만 보면서 다녔다. 건너편에서 날 알아보고 인사하는데도 모를 정도로 심취해 돌아다녔다.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오전동을 ‘오전 명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의왕시에서 가장 상권이 발달해 있어서라고 한다. 어른들이 볼 때는 계원대학교 주변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학생들은 그렇지 않단다.

오전동은 물건 값도 싸고 학생들이 즐길 것들이 많았다.

색깔 별로 업종을 표시했는데 명동처럼 없는 것 없이 많은 업종이 있다. 전부 주택가에 아파트 단지라 학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들이 많았다. 우선은 아파트 단지가 많고, 초등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많이 걸어가지도 않고, 길을 건너지 않는 곳에 생긴 것 같다. 그리고 한 도로는 큰 건물이 4개밖에 없는데 건물 마다 하나씩 독서실이 있다. 독서실이 있는 곳에는 떡볶이, 핫도그, 피자 등 저렴한 간식거리들이 건물 사이사이에 밀집되어 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여기 살면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한 바퀴만 돌아도 본인이 필요한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명동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다.





함께 공유하기 & 중간 피드백

중요한 것은 어떤 지역에서 살든 내가 사는 동네를 새롭게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냐가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특히 그런 것 같다. 18년 동안 살았지만 동네에 대해 처음 알았다는 고백은 대단한 발견이다. 동네에 오래 살았다고 과연 다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다는 게 뭔가. 고민이 필요하다. 익숙한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적 없이 어슬렁거릴 때 나를 새로운 속에 놓을 수 있다. 익숙한 곳을 다니는 가운데 나를 낯선 곳에 두고,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는 것이다. 그것이 오전동 지도 안에 나타나 있어 흥미로웠다.

왜 아이들이 오전 명동이라고 할까, 그 이유가 궁금하다. 아파트 중심, 상가 중심 지역들이 많아도 명동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는다. 그런데 그 표현을 누군가가 쓰기 시작한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인터뷰를 해봐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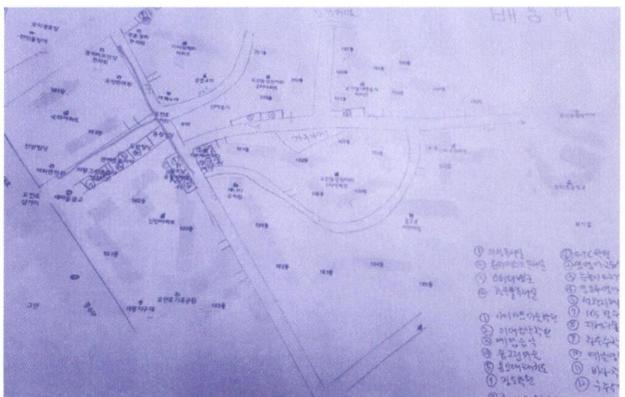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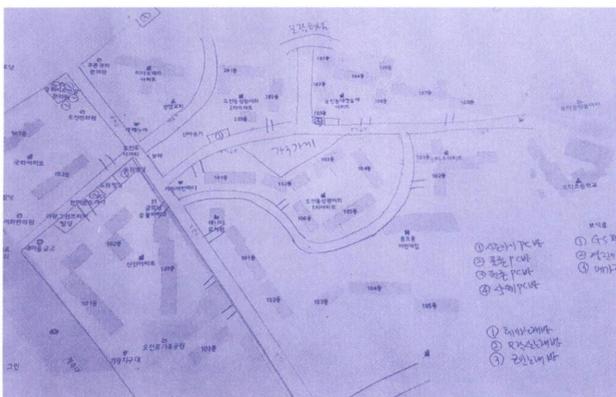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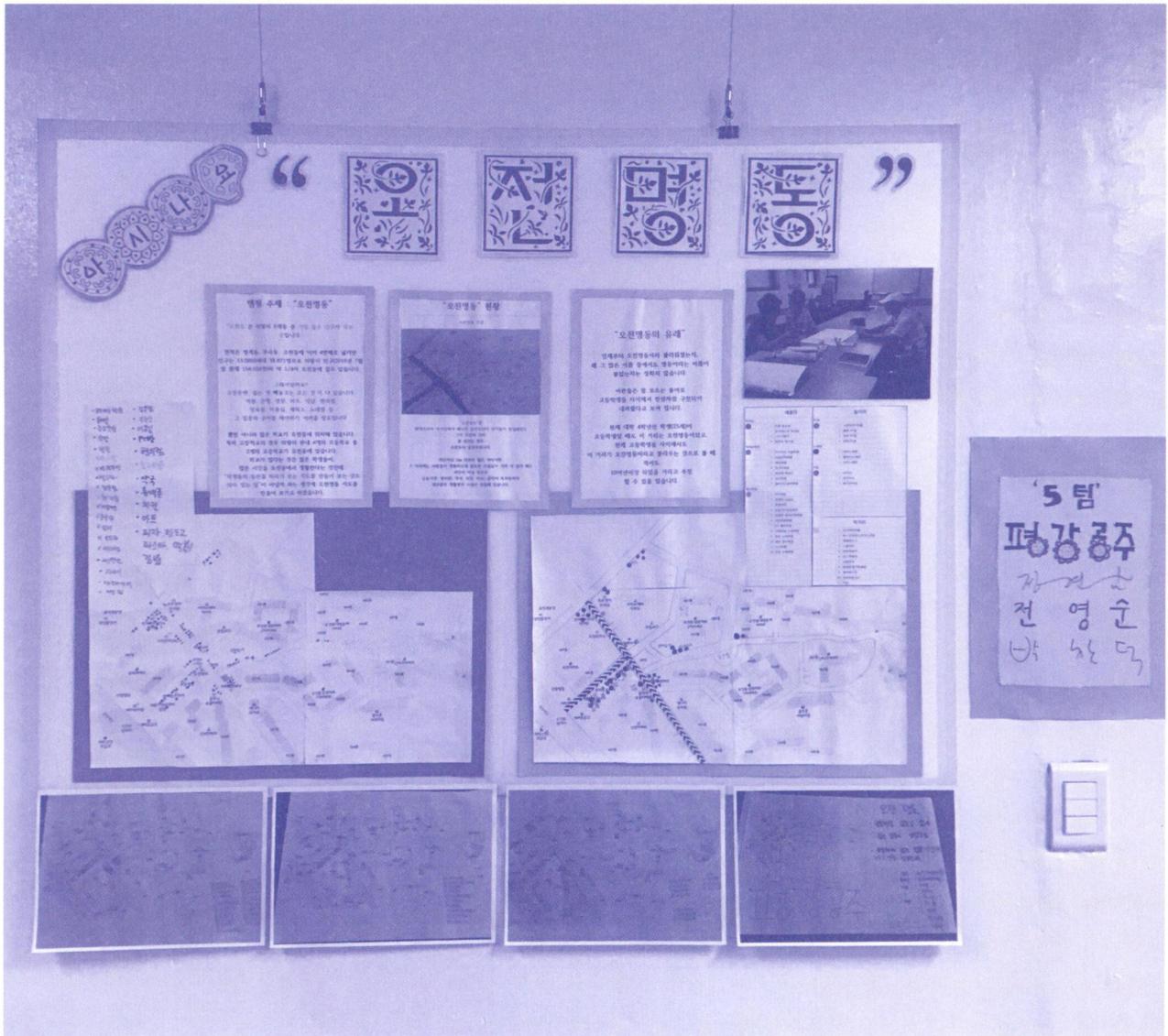
지도를 보면서 등하교, 학원, 보통 일과, 아이들의 삶이 연상된다. 아이들의 삶을 반추해볼 수 있는 매핑이 가능하겠다. 학원이나 독서실을 가야되고 그 주변에서 먹거리를 간단히 해결해야 되고 그 먹거리라 하는 것이 예를 들면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이나 떡볶이나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반추해볼 수 있는 매핑이면 어떨까. 아이들의 삶이 드러나는 매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표 하나하나가 가진 의미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색깔을 달리 한 것. 알록달록 구슬 사탕처럼 표현한 것 자체가 오전동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만약 조금 더 주제가 드러나는 지도가 가능하다면,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대별로 아이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표현해봐도 좋겠다. 그러면 이 지도를 보고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먹거리, 일과, 삶의 질을 연상하게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시간대별로 이용하는 장소를 지도상에 여러 가지 색깔로도 할 수 있고 범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동선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데니스 우드라는 지리학자가 그린 지도에는 신문 돌리는 소년의 경로를 표시한 지도가 있다. A라는 소년이 가는 길. B라는 소년이 가는 길. 그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시간을 색깔 범주로 표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 하교 후 학원 머무는 시간, 그사이 짬짬이 어딘가 있겠지만, 여러 업종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넘어가지 않을 거다. 만약 머무는 곳이 동네로 한정되어 있다면 건전하고 착한 거다. 어디 멀리가지 않거나 못하거나. 동네가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나? 지나치게 소비적이고 지나치게 상업적이지는 않은가? 반추해볼 수 있는 지도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다.

«오전명동 매핑 전시 & 평강공주 팀 개별 보고서»



다양한 것들이 우리 마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참 새로운 경험이었다

박찬덕

사실 난 우리 마을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 이 동네에 이사와 근 20년을 한곳에서 살았으니 반토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막상 매핑을 위해 마을을 어슬렁거리다 보니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았다.

은행, 식당, 미용실, 부동산, 학원, 반찬가게.... 일일이 그 이름을 다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다양한 것들이 우리 마을에 있다는 것은 참 새로운 경험이었다.

없게 없이 다 있어서 학생들이 오전명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닌지.

오전명동에 딱 하나 없는 것, 성형외과

전영순

사거리를 사이에 두고 사방으로 넓지 않은 공간에 가게들의 밀집도가 이정도인지 12년 가까이 살면서 그동안 못 느꼈다. 버스 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너무 익숙해 풍경에 길가에 죽 늘어져 있는 건물 위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올려다볼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것 같다.

오전 명동이라 불리는 오전동은 편중된 것이 없는,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가게들이 골고루 분포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별히 이 동네를 벗어나 멀리 발품 팔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병원, 약국, 한의원, 학생들의 필요에 의한 다양한 학원들, 요즘 필수품인 핸드폰가게, 마트, 잡화가게, 여러 종류의 먹거리와 외식할 수 있는 곳, 안경점, 보석 시계점, 커피전문점, 문구점, 독서실, 노래방, 세탁소, 부동산 중개소 pc방, 구두수선집과 구두판매점, 꽃집, 화장품가게, 마사지 숭, 현금만 사용하는 야채가게, 옷집도 여러 군데이고 넓지 않은 공간에 오밀 조밀 여러 가게들이 성업 중이다.

병원 중에도 성업 중인 것과 사라진 것이 눈에 들어 왔다. 치과가 많아지고 산부인과는 사라진지 몇 년 된 것 같다. 그리고 사라진 또 하나 초등학교 주변의 문방구점이다. 다 있을 것 같은 오전명동에 딱 하나 없는 것, 성형외과는 안 보였다.

천동소리 가게터에 복선전철역사가 들어선다는데 언제 첫 삽을 뜨고 완공될지 모르지만 역사가 생기면 역사 주변으로 또 다른 어떤 가게들이 생기고 소멸되면서 오전 명동 지역이 넓어지지 않을까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사람 냄새가 나는 곳

정연남

아직은 의왕의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나에게 ‘오전 명동’이란 단어는 생소하다 못해 어리둥절하기까지 했지만 오전동 머리맡 위로 길게 늘어져 있는 모락산이란 스카이라인, 그리고 발아래에는 전국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1번국도인 경수산업도로가 넓고 길게 있어 그 사이에 몸뚱이를 부대끼며 비벼대고 있는 고층 아파트들. 모락산과 1번국도 사이 샌드위치가 된 비좁은 공간 속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며 제각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냄새가 나는 곳. 지나가는 가게마다 물건을 찾지 않아도 이웃처럼 다정하게 인사 나누는 곳. 돈을 깜박 잊고 왔어도 그냥 원하는 물건을 쉽게 줄 것만 같은 곳. 그런 넉넉함과 깔깔대는 웃음소리, 따스한 숨소리가 느껴지는 ‘오전 명동’이었다.

전시를 마치고 모두 모여 나눈 이야기

이 팀의 매핑 과정을 생각하면 뜻밖에도 오전동을 많이 알게 되고, 생각하게 하고, 호감을 불러일으켰던 매핑이었다. 이번 과정은 지도를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니라 리터러시, 읽기가 중요하였다. 과정의 결과물을 발표, 공유하는 시간마다 구성원들은 자신이 무엇을 느꼈고, 이전과 다른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등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해주었다. 매핑이 깔끔하게 됐다 안 됐다라는 것보다 오전동이 이런 곳이었구나, 오전동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보내는구나, 오전동에 사는 박찬덕님은 이런 것을 고민 했구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불러 일으켰던 매핑이다. 이 결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이번 과정에 처음 참여하셨던 분들이 더 많아 매핑이 쉽지 않았던 지난 시간을 함께 떠올려보면 좋겠다. (사실 처음에는 포기할 것 같았다.) 구성원들의 어색한 조합에서 오는 불편함과 낯설음을 견뎌낸 시간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 말이다. 의도한 낯설음은 이번 매핑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들이고 우리가 지식으로는 이해했지만 실제로 내가 그 낯설음을 무릅쓰는 게 뭔지 사실은 잘 알기 어렵다. 이 팀이 그걸 어느 정도 돌파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향토리 팀

~~~~~  
(고동윤, 김미라, 이정진, 전태훈, 정분아)

도롱마을을 매핑하다



집성촌의 변화를 읽어보는

## 도롱마을 성씨와 길의 변화

그 동안 궁금해 했던 “마을이 변했는데,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풀리게 된다. 길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사람이 사는 낮은 집들이 2층 공장으로 바뀌면서 마을이 변했다고 느껴지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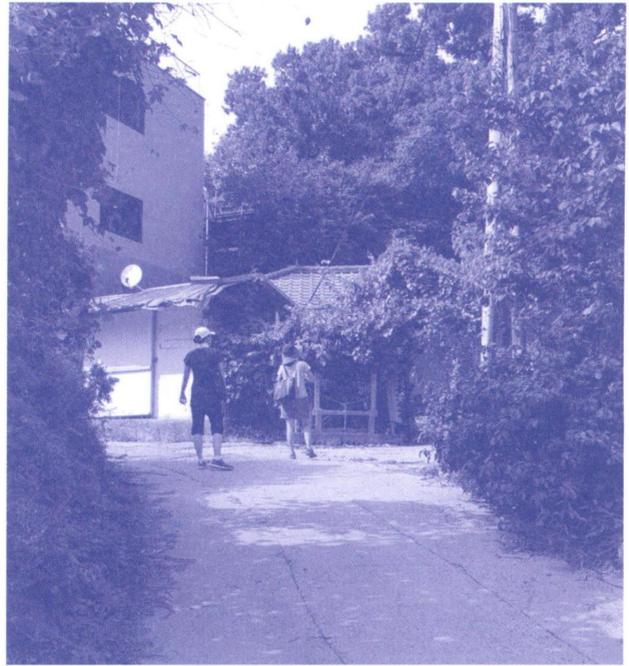


«도롱마을 어슬렁거리다»

도롱마을 매핑계획

도롱마을은 아직 확정된 아니지만 공공주택 예정지로 선정되어 아마 내년이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어릴 적부터 다녔던 길 이라서 그런지 뭔지 모를 아쉬움에 조사를 시작했다. 내 소유의 땅은 아니지만 내가 다녔던 길과 추억이 없어지는 것은 상처가 된다.

사오백 년 된 오래된 자연 마을이라 성씨와 연령 매핑을 기본으로 했다. 과거 항공지도 및 구술을 참고하여 길의 변화를 그려 보고 이를 통해서 직업, 산책길 등 삶의 변화 또는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왼쪽은 덕영대로에서 오른쪽은 회화나무까지 위쪽은 월암교회에서 아래쪽은 한익모묘까지로 지리적 범위를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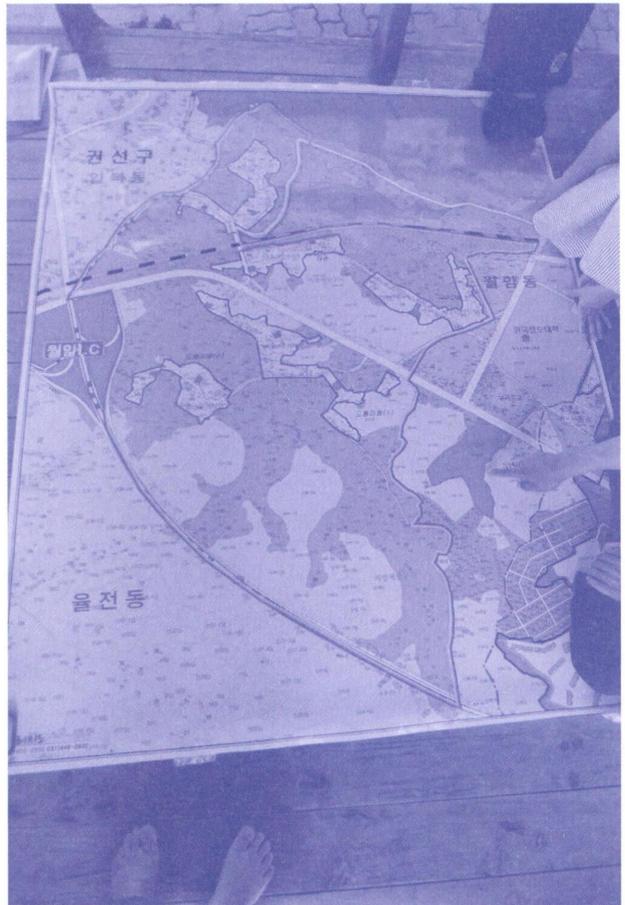
18. 김동우 리 (팀) 필름사, 이정길, 권태훈, 김지라, 이두원  
 도롱마을 매핑하기 (성씨, 연령, 길의 변화)

| 구분   | 매핑자료     |                      |                      | 조사특성(범위/계수/구체적으로, 적도 등 그림으로 표시) |
|------|----------|----------------------|----------------------|---------------------------------|
|      | 정안 것     | 새로 추가된 것             | 희망언어                 |                                 |
| 필름명1 | 성씨       | 노년층                  | 성씨 (나이, 성씨)          |                                 |
| 필름명2 | 산책길      |                      | 길의 변화를 통한 산책길의 변화    |                                 |
| 필름명3 | 길의 변화    | 비밀서랍장 건물, 다세대주택, 파출소 | 길의 변화, 세라믹화물기동차, 파출소 |                                 |
| 필름명4 | 연립       |                      | 길의 변화를 통한 집합의 변화     |                                 |
| 필름명5 | 한익묘 (연립) |                      | 한익묘 시설의 변화 (연립)      |                                 |



마을을 모두 돌아보려면 두 시간 정도 걸리는데, 매주 금요일 1시에 모이는 걸로 팀원들과 약속을 잡았다. 마을회관을 야지트 삼아 매주 모였고, 네이버 지도에 보이는 집이 실제 있는지 현장 답사부터 시작했다.

도룡마을 현장 워크숍 때는 여러 번 걸어온 길이라 너무 익숙해져 낯선이의 시각으로 바라보기에 한계가 있는 우리와 달리 이 곳이 낯선 임재춘 선생님, 문화원 식구들과 무더위에 마을을 둘러보았다.



## 길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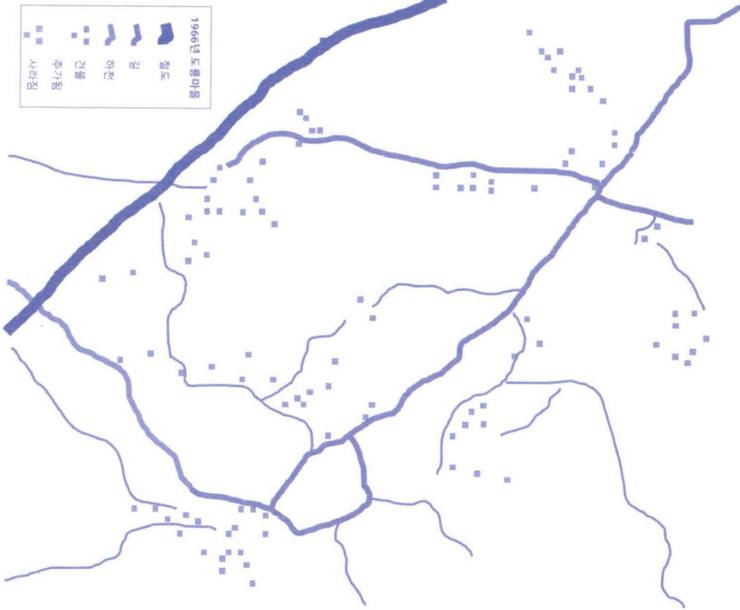
도롱마을은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 마을에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다. 마을이 정말 변화하고 있는지 수치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어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 하는 항공지도에 길과 집을 매핑해보았다. 1905년 경부철도 개통 이후 1996년까지의 항공지도는 제공하지 않아 볼 수가 없었지만 1966년 지도를 찾아 OHD필름을 놓고 길을 그렸더니 경부1호선은 그대로 지도에 나타나 있었다(검은선). 빨간색은 집을 표시했다. 그리고 1980년대, 1990년대 후반까지의 지도를 찾아 비교해보았는데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02년 덕영대로가 개통되고 마을의 산줄기가 분리되면서 성씨끼리 모여살던 마을이 분리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 2016년 지도를 찾아 점을 찍어보니 역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 마을은 좋은 얘기일 수도,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변화가 없는 마을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마을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새로운 건물들이 마을 입구를 중심으로 생겨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16년 까지 사라지거나 새로 생긴 것들을 표시해 보았다. 항공지도를 통해 현재 공원이 생겼고, 작은 마을이 있었다가 사라진 걸 확인했다. 항공지도만으로는 새로 생긴 집인지 알 수 없어서 길의 변화에 대해서만 매핑했다.

1966년~2002년 도롱마을 길과 집의 변화 매핑



2002년~2016년 도롱마을 길과 집의 변화 매핑



**성씨매핑**

네이버와 구글지도를 활용하여 도롱마을의 집과 회사 목록을 주소별로 만들었다. 각각 건물 사진을 찍어 배치하고 월암천을 기준으로 안쪽, 바깥쪽 구분을 표시 했다. 지번과 사진이 포함된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마을 사정을 잘 아시는 최종무님께 상세한 내용을 여쭙 보고 내용을 채웠다. 어르신들은 지번 주소로 마을을 기억한다. 매핑을 위한 주요 항목으로는 대표 성씨, 거주자 분 세대수, 회사인 경우 이전에 집이었는지 나대지였는지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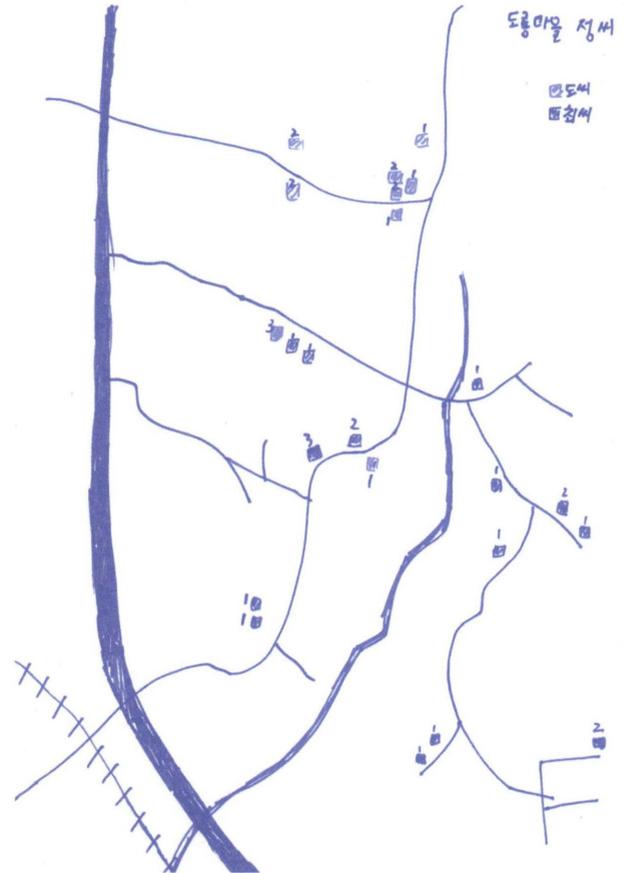
구글 지도 매핑 방법을 활용하여 집(최씨), 집(도씨), 집(조씨), 집(기타, 이사움), 회사(이전집터), 회사(이전나대지) 로 분류를 하고, 도롱마을 노인회 총무님과 정리한 결과를 매핑 해봤다.

매핑지도를 한 개로 만들려고 했으나, 길의 변화와 성씨 지도를 하나로 합치는데 어려움이 있어 길의 변화와 성씨 2개의 지도로 발표했다. 전체 조사한 내용을 매핑하지 않고, 일부 성씨인 최씨, 도씨만 매핑을 했는데, 마을의 변화가 읽히지 않았다. 회사를 추가로 매핑해야 겠다는 판단이 생겼다.

| No. | 도로명주소  | 지번주소   | 이전구분      | 구분 | 대표자<br>(이름/연령) | 거주자<br>(1대~3대) | 거주자구성원<br>(아들1,딸1,부<br>인,손주3) | 비고             |  | 월암천기준 |
|-----|--------|--------|-----------|----|----------------|----------------|-------------------------------|----------------|---------------------------------------------------------------------------------------|-------|
| 1   | 진터골길 2 | 월암동 89 | 집<br>(안씨) | 회사 |                |                |                               | 식물업<br>안씨 20년전 |  | 월암천안쪽 |
| 2   | 진터골길 5 | 월암동 90 |           | 집  | 이**/77         | 3대             |                               | 노인회장/농사        |  | 월암천안쪽 |
| 3   | 진터골길 6 | 월암동 88 | 나대지       | 회사 |                |                |                               |                |  | 월암천안쪽 |
| 4   | 진터골길 7 | 월암동 91 | 나대지       | 회사 |                |                |                               |                |  | 월암천안쪽 |



도롱마을 길의 변화 매핑 (중간발표)



도롱마을 성씨 매핑 (중간발표)

## 함께 공유하기 & 중간 피드백

---

도롱마을 같은 경우는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택지개발로 인해 마을이 사라질 거다’ ‘내가 누렸던 길이나 장소가 없어지는 거다’는 것이 문제의식으로 보인다.

구성원들이 이 마을을 기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매핑에서 드러나야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마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성씨 매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직 잘 와 닿지 않는다. 도롱마을에 가보니 무엇을 기록해야 될지가 애매한 동네인 것은 맞다. 팀원들과 얘기를 해보면 느낌은 있는데 구체적인 요소를 무엇으로 잡아야 될 지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항공지도도 살펴보고 인터뷰도 했던 작업들은 매핑을 위한 지역연구 지역조사 의 가장 충실한 단계를 밟게 되었다. 국토지리원을 통해서 과거에 이 마을이 어땠는지 살펴봤고, 심지어 OHP필름을 통해서 집들을 찍어봤다. 가설로 알고 있던 것들을 실제로 해보고 있다.

다만 이번 마을큐레이터 되기 과정에서 아주 매력적이고, 색시한 지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부차적인 목표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고, 발견하고, 뭔가 해볼 만한 동기가 생겼는지가 핵심이다. 도롱마을 팀은 뭔가 발견한 건 있다. 그것들을 지도에 채워내겠다는 욕심은 조금 버리고 지금의 수준에서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과 여전히 발견하지 못했지만 갈증 나는 것이 뭐였는지는 앞으로 구술 작업을 통해서 더 의미적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지도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과 의미적으로 채워지는 건 다른 문제라고 본다. 도롱마을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지표 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채워지는 것 보다는 의미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게 많다는 것을 발견한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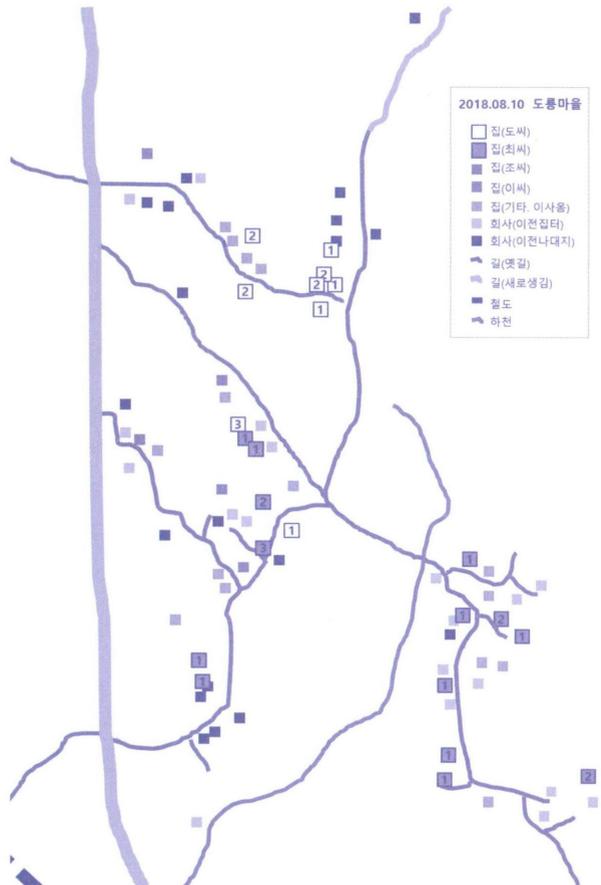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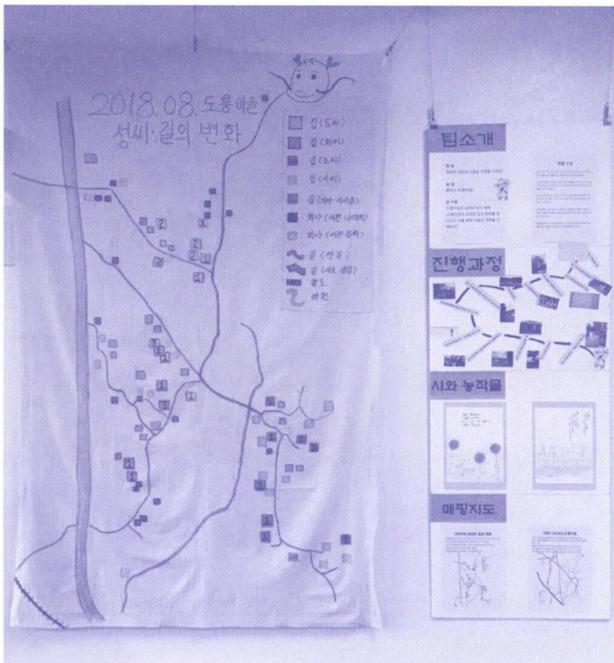
---

«도롱마을 매핑 전시 & 향토리 팀 개별 보고서»

성씨를 집을 기준으로 도씨, 최씨, 이씨, 조씨, 이사 온 집 5개로 나눴다. 주요 성씨 도씨, 최씨의 경우 몇 세대가 사는지 표시 했다. 회사는 이전에 집터가 있는 자리였는지를 분리해서 표시 했다. 길은 새로 생긴 길과 예전 길을 구분 했다. 마을을 특징하는 경부철도와 하천을 추가했다.

성씨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같은 성씨 끼리 모여 있는 모습이다. 도씨 최씨 의 경우 도씨는 위쪽, 최씨는 아래쪽으로 지리적으로 나눠서 거주하고 있다. 새로 이사온 집들은 대부분 빌라 또는 복층으로 집을 짓는다. 대부분 1세대가 거주하는 고령화 마을이다. 마을 구석구석을 확인 해 보니 옛 모습 그대로 집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도씨, 이씨, 최씨, 조씨 각각 골고루 분포 했다. 추후 마을 구술 대상으로 만날 수 있는 분들이다.

현재 공장 또는 회사인 경우 이전에 집터인 곳이 있는데, 전체 공장 중 반 정도가 집터였다. 이 부분에서 그 동안 궁금해 했던 “마을이 변했는데,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풀리게 된다. 길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사람이 사는 낮은 집들이 2층 공장으로 바뀌면서 마을이 변했다고 느껴지게 된 것이다.



## 어슬렁거림이 부족했다

### 고동윤

누가 시켜서 한 것은 아니지만 곧 사라질 마을이라고 하니 좀 더 정확한 자료로 남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마을 어르신분들을 만나면서 도시개발을 막아달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안타까웠다. 결과 매핑 지도의 정확도가 100%가 아니다. 이번 여름은 덤기도 했고, 농사를 주업으로 하시는 어르신께 80개 마을 지번의 상세한 내용을 듣고 받아 적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헛갈리는 부분은 여러 번 찾아가 재확인하고 고쳐야 했는데 이 작업에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다. 날이 더워, 걸어갈 수도 있는 산책길인데 차로 움직여야 했다. 어슬렁거림이 부족했다.

## 새로이 보는 시각이 부족했다

### 김미라

사라질 마을의 기억을 더 담기 위한 숙제 같은 과제를 정하고 몇 번 어슬렁거리기만 했음에도 보고 발견하고 들은 만큼의 애정이 생긴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생각보다 짧은 매핑 제작 기간이었다. 그리고 너무 더워서 힘든 산책이기도 했다. 몇 분의 인터뷰로 깊이 있는 결과가 나왔지만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한 느낌이 있는 지도가 아니어서 조금은 아쉽다.

적지 않은 어슬렁거림이었는데 한 달간 머뭇거린 산책이 아쉽기도 했다. 여름의 날씨에 새로이 보는 시각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여기에서 태어났던 대표적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아 내면 좋을 것 같다.

## 도롱마을, 상실감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 선택한 주제

### 이정진

작년과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과거와 오늘의 무수한 이야기들이 점처럼 연결되어 마을의 미래를 보여주듯이 우리 마을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이곳에 살고 있는 동안은 무수히 많은 인생 스토리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이번 마을큐레이터를 통해 개인적으로 얻게 된 성과라 생각한다.

도롱마을은 나에게 고향마을은 아니지만 종종 가족과 함께 산책삼아 둘러보던 정겨운 이웃마을이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상실감과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 받고 싶은 마음이 도롱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주제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다.

## 마을과 이별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다

### 전태훈

내 고향은 군산시 수송동. 택지개발지구로 마을이 사라지고 개발되었다. 내 어머니는 결혼 후 줄 곳 살던 집에서 퇴거 후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집이 철거되는 날 방문하여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다. 장비가 험껏 내려치기도 전에 무너지더라면서 우셨던 엄마가 생각났다. 나도 곧 겪을 경험이고, 도롱마을 어르신들이 겪을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비록 훌륭한 결과는 나오지 못했지만 팀원들과의 활동이 좋았고, 마을과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 과정이 끝나도 마을을 돌아보고 싶다

### 정분아

분명히 마을이 변했는데 표현하기가 애매한 어떤 것! 길의 변화는 많지 않은데 왜 변화가 많다고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동윤씨가 매핑한 성씨와 길의 변화를 겹쳐보면서 알게 되었다. 집이었던 곳이 공장이 들어서면서 기본 길이 조금 더 넓어지고, 사람이 살던 집이 비게 되고, 왕래가 드물게 되었던 약간의 변화. 이것이 잘 변하지 않는 마을을 둘러보면서 계속 가뭏하게 만든 원인이 아니었을까?

정확하게 갈 길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되었던 마을탐방이지만 관찰자의 중요도가 우선이라는 것과 내 마음이 그 안에 투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어떤 것이든 의미 있다는 것,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이 매핑을 왜 하려는지를 염두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 과정이 끝나도 마을을 돌아보는 일은 계속 해 보려고 한다.

### 전시를 마치고 모두 모여 나눈 이야기

도롱마을 팀은 오히려 회사가 눈에 들어왔다. 자꾸 잊혀지는 것, 사라지는 것에 주목하다보니 마을을 읽어내는 것의 대상도 사라질 것, 잊혀질 것에 대해서만 너무 주목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오히려 매핑 결과를 보며 들었다. 지도를 보면 집이었다가 회사가 된 곳, 나대지였다가 회사가 된 곳이 집의 수 이상으로 많아보였다.

매핑의 핵심은 팩트이다. 현상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의미하지는 해석하고, 찾아보는 것, 거기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모든 것이 바뀐다. 회사들도 없어진다. 그럼 회사가 없어지는 변화에 대해서는 무감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 지난번 도롱마을을 갔을 때만 해도 메시지가 뭘까? 지표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지 포착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매핑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 마을이 변화를 어떻게 겪었는지 눈에 들어왔다. 또 한 가지는 길의 나이이다. 길이 바뀌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럼 이 길은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 길의 나이를 측정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는 계속 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는데 변화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변화하지 않는지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도롱마을 팀에서 보여주는 메시지일 듯하다.

하이드와 수호천사들 팀

(김영선, 김영화, 원은경, 황혜정)

원터마을을 매핑하다



길과 건물 매핑으로 읽어낸

## 원터마을의 다이나믹한 변화

원터마을은 갈 때 마다 새롭고 풍경과 환경이 바뀌는 곳이다.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길들도 돌아다니며 매핑했다. 성당, 나무, 꽃, 계속해서 변화하는 길, 농장, 비닐하우스, 새로 생기는 집. 원터마을의 다채로움이 느껴진다



- 아스팔트 길
- - - 시멘트 길
- · - · - 흙 길
- 2000년전부터 있던 건물
- 2000년이후부터 있던 건물
- 짓고 있는 건물
- ▨ 농작물
- ▨ 비닐하우스
- 📍 식당

### «원터마을 어슬렁거리다»

#### 팀 구성, 뜻밖의 조합

원터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 마을의 역사며, 사람들이며 거의 모든 것을 꿰뚫는 토박이 주민과 의왕에 살지만 원터마을에 대해 처음 들어본 주민 세명이 함께 팀을 이뤘다.

원터마을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옛날에는 동양원이라는 역이 있었던 곳이다. 지금은 비석 하나만 남아있다. 1884년 하우현 성당이 생기면서 ‘성당마을’로도 불렸다. 하우현 성당 사제관이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작은 마을이다. 예전엔 마을 주민 전체가 천주교 신자이기도 했다.

비닐하우스며 농장과 작물을 키우는 곳이 많다. 거의 자연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빠르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터마을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토박이의 마을에 대한 사랑이 흠뻑 느껴진다. 원터마을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나머지 팀원들도 원지 모를 끌림에 원터마을을 조사하기로 했다.

#### 원터마을 느끼기

팀원 중 원터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팀원이 있었다. 그 팀원의 안내로 마을을 둘러봤다. 원터마을에는 의왕8경 중 하나인 하우현성당이 있다.

1시간가량 마을을 둘러보았는데 마을 입구 주택에 대문이 없는 게 특이했다.



하우원성당



하우원성당 내부



하우원성당 사제관

**마을에 있는 사람에게 말 걸기**

9시경 원터마을에 도착했다. 혼자서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둘러 보았다. 마을 주민은 보이지 않고 하우현성당에 온 신자로 보이는 사람들만 보인다. 신자 한 분과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판교에서 오셨다고 한다. 미사 보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원터 마을 주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라는 걸 알았다. 성당 마당 정자에서 팀원들과 만나 마을을 둘러 본 이야기를 나누었다.



**관심 주제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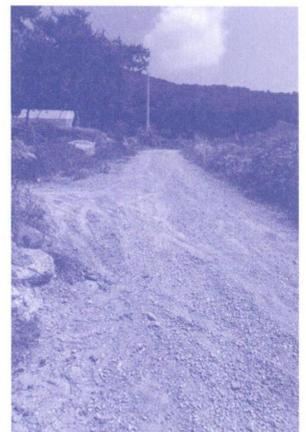
팀원들과 원터 마을에서 만나기로 했다. 지난번 방문에도 느꼈지만 너무 작은 마을이다.

원터마을 앞에는 안양-판교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곳까지 마을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작은 마을에 길이 아스팔트길, 시멘트 포장길, 흙과 자갈로 된 길이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길도 있었다.

팀원 각자 관심있고, 조사하고 싶은 주제를 나누었다. 한 팀원은 원터마을에서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을 제안하였고, 한 팀원은 식물과 꽃, 나무, 서식지를 알아보자고 했다. 새로 생긴 길과 오래된 길을 알아보자는 제안도 있었고, 동양원터 역사와 하우현성당에 대해 조사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었다.



왼쪽부터 아스팔트길, 시멘트길, 흙길



**마을주민에게 물어보기**

3시경 원터 마을에 갔다. 어슬렁거리다 용기 내어 마을 회관 문을 두드려 보았다. 남자 어르신 4분과 여자 1분이 계셨다. 그 중 70대중반으로 보이는 김 ○○어르신과 마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며 궁금한 걸 질문 드렸다. 원터 마을 주민은 주민등록상에는 100여명인데 실제로는 30명 정도인 느낌이다. 어째서 그렇게 느끼셨냐고 하니 작년 통장을 하셨단다. 옛날엔 마을 사람들 전부 하우현 성당 신자였으나 지금은 10명도 안된다고 한다.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마을 앞에 있는 안양-판교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해 질문 하니 원터 마을 사람들이 농사 짓던 땅이 수용 되어 길이 확장 되고 새로 생긴 거란다. 대부분 밭농사였다고 한다. 몇 가구는 음식점을 하다 잘 안됐는지 지금은 다시 가정집으로 됐다고 한다.

김 ○○어르신 밭도 수용 되거나 농사 짓기 힘들어 팔고 지금은 500평정도 밭농사만 하신다고 한다.

작은 가게나 편의점 하나 없어 마을 사람들은 생필품은 어떻게 사느냐고 하니 차를 타고 나가서 사오거나 배달과 택배를 이용하신단다. 저녁 6시가 넘어서 다음에 또 오겠다는 인사를 드리고 나왔다.



**지도에 나타내기**

원터마을은 갈 때 마다 새롭고 풍경과 환경이 바뀌는 곳이다. 원터마을 지도를 네이버와 구글, 모든 지도를 다 찾아보았지만 길이 제대로 표시된 지도가 하나도 없었다. 알아봤더니 개인 소유의 길은 네이버에서 표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길들도 돌아다니며 매핑했다. 검은색은 아스팔트 길이다. 회색 길은 시멘트 길이고, 빨간색은 흙 길이다.

2000년을 기준으로 새로 생긴 건물을 표시했다. 빨간색 네모는 2000년전부터 있던 건물이다. 검은색은 2000년 이후에 지은 집이다. 검은색과 빨간색이 같이 있는 집은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다. 이것으로 점점 새로운 주택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파란색은 성당, 교회 등 공적인 건물이다. 식당은 주황색으로 표시했다. 그리고 농장과 농작물이 있는 지역을 초록색으로 표시했다. 산과 나무 등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라 농작물이 얼마나 분포가 되어있을지 찾아보았다. 지도만 봐도 농작물이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원터마을 이야기



함께 공유하기 & 중간 피드백

원터마을을 가보니 원터마을 팀에서 애정을 가질만하다. 그럴 가치가 있고 원은경 선생님이 아니면 누가 이 마을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까? 생각되었다. 마을에서 오래 산 사람과 마을을 관광객처럼, 방문객처럼 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터마을의 매핑이 흥미롭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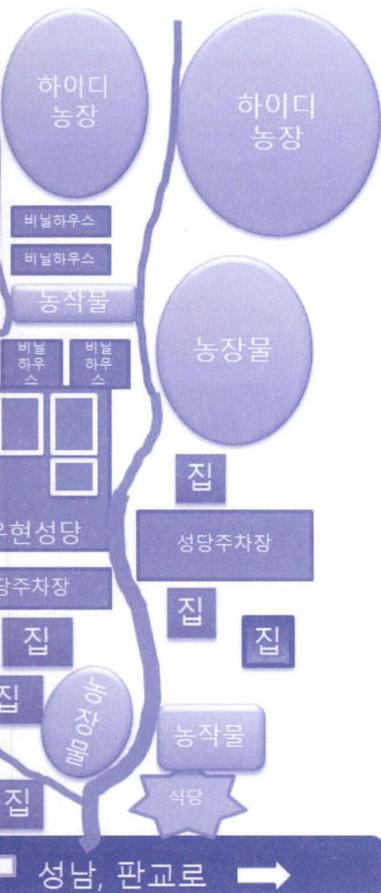
매핑된 지도를 보면 길의 색깔을 달리했다. 길에 관심 있던 분도 있고, 농작물에 관심 있었던 분, 꽃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단순히 색깔을 달리하는 것만으로 다이내믹하게 변화하는 원터마을을 보여줬다.

사실 원터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이다. 이게 마을일까 싶을 정도로 작은 동네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저런 매핑을 통해서 자기가 관심 있게 느꼈던 부분들을 찍어내고 표시하다 보니까 넓고 좁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터마을의 다채로움이 느껴지는 지도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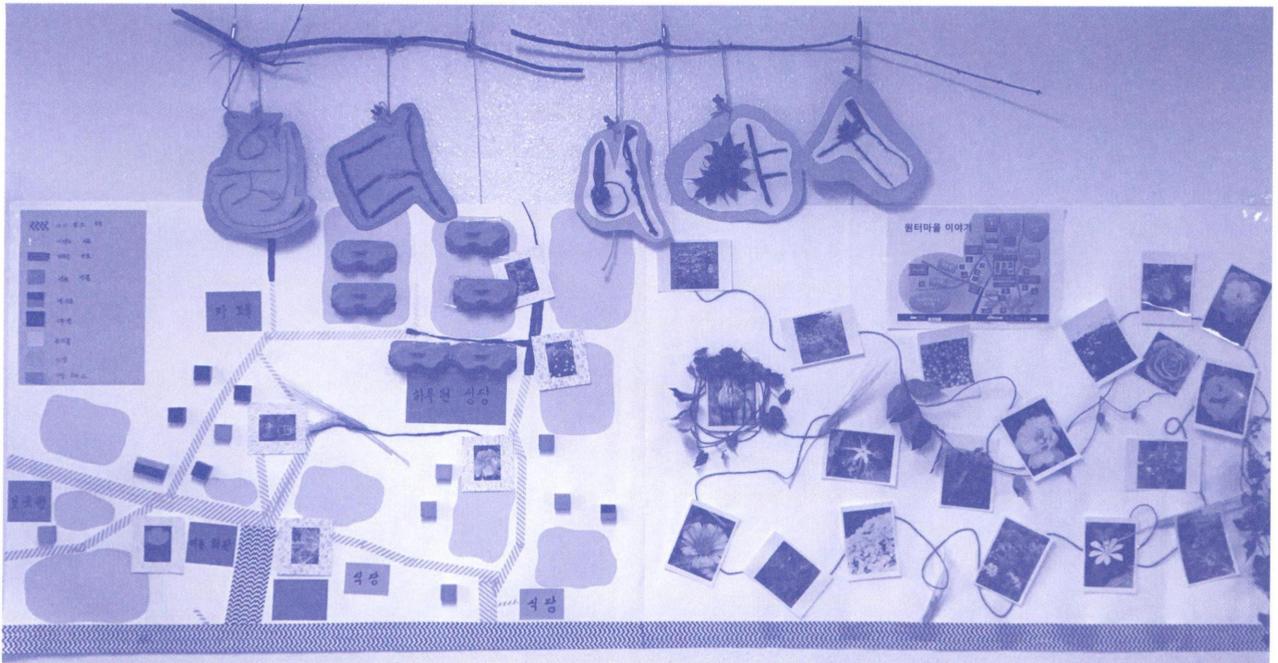
어느 지도도 저렇게 길을 구분해놓은 지도는 없다. 나중에 전시를 하게 되면 저 지도를 해석하고 읽을 수 있는 범례를 잘 설명해주면 이 지도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지도가 될 것이다.

덜어내지 않으면 보여주고자 하는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버리는 작업을 과감하게 하신 것을 칭찬해드리고 싶다. 근사한 지도다.

원터마을의 변화의 바람이 너무 빠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터마을에 대한 기록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는 게 필요한 시기일지도 모른다 생각이 든다. 보통 도시가 빠르게 변화한다고 하지만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지는 않다. 그런데 원터마을은 좁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체감되는 것 같다. 이 지도에는 작성한 날짜를 반드시 적어야 할 것 같다.



«원터마을 매핑 전시 & 개별 보고서»



**자연 상태인 곳과 주택가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것이 느껴진다**

**황혜정**

첫 답사 때에는 꽃들이 만발할 때였다. 아파트에 둘러싸인 곳에 있다가 이곳에 오니 하늘도 더 잘 보이고 시원한 물이 곳곳에 흘러내리고 있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꽃이 눈에 띄었다.

시골에 자주 가보았는데 좁은 지역에 꽃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데 여기는 유독 꽃 종류가 많아 신기했다. 원터마을은 보육원을 중심으로 나뉜진 느낌이였다. 한쪽은 시골 있는 그대로의 자연, 한쪽은 큰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인데 관리된 넓은 조경, 그림 같은 주택들이 있었다. 확연히 달라 조사에서는 뻗었지만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었다.

**몸으로 익힌 경험,**

**이 기억이 내 삶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다**

**김영선**

의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원터마을이라는 곳을 처음 들었고 처음 가보았다. 40대 초반인데 의왕에 내가 모르는 곳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이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난 아마도 계속 원터마을이라는 곳을 몰랐을 것이다.

현장답사를 왜 여러번 해봐야 하는지 알겠다. 처음 갈 때 다르고 두 번갈 때 다르고, 세 번갈 때 또 다르다. 한 마을을 이렇게 집중해서 어슬렁 돌아보는 게 흔치 않은데 수업을 통해 다른 시각들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여유를 가지면서 볼 수 있는 것도 좋았다.

머리로 익힌 것보다 몸으로 익힌 것이 더 오래간다고 들었는데 직접 발로 걷고 보고 또 걷고 또 보고, 서로 나누고, 만들고, 붙이고. 이 기억이 내 삶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다. 이젠 원터마을이 내게 소중한 곳이 되었다.

**원터마을의 변화하는 길에 마음이 사로잡히다**

**김영화**

원터마을을 거의 8차례 가까이 어슬렁거렸다. 매번 갈 때마다 길이 변화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흙길이었던 곳이 그 다음주에는 시멘트길이 되기도 했다. 여러번 원터마을을 어슬렁거리면서 마을의 변화하는 길이 흥미롭게 느껴졌다. 한편으로 마을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과연 마을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도 들었다. 사람도 많이 없는 지역이 계속 공사 중인 것인데 불필요한 개발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원터마을, 보통사람들의 역사이자 이야기가 있는 곳**

**원은경**

백운호수, 도롱마을, 한직골. 문득 친근했던 마을들이 개발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원터마을도 개발의 바람이 불어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내가 원터마을의 자연과 역사, 주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은 이유였다.

주민들의 이야기, 원터마을의 자연과 역사를 기록하고 싶다.

대부분 의왕의 역사 향토유적 기록들은 왕이 중심인 임영대군묘와 철도박물관의 고종황제 그리고 정조대왕 향토유적 관련 역사가 주를 이루지만 나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야기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듣고, 발견하고 싶다.

**전시를 마치고 모두 모여 나눈 이야기**

같은 장소에 대해 각자가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특징 있게 드러나 다양한 내용이 담긴 매핑이 되었다. 이 팀이 전시 때 디자인한 지도를 보면 원터마을 자연에 대한 애정을 시각화해 표현하기도 했다. 자연물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원터마을의 어떤 모습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그 안에서도 차이를 시도하였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건 나무 조각을 썼지만 다른 표시는 검정색으로 색을 칠하는 등 시각적인 변화를 주었다. 다만 지나치게 여러 가지 색깔과 모양이 이 팀이 표현하고자 했던 전반적인 지도의 목적이 전달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의미 있는 지도는 많은 정보를 담아내는 것이 아닌 덜어냄으로써 중요한 것이 강조될 수 있어야 한다. 지도가 가진 정보 자체도, 이를 시각화 하는 정도도.

어울렁더울렁 팀

(김신혜, 김정희, 조은희, 송은아)

내손2동을 매핑하다



재건축지역과 아닌 지역의 차이가 느껴지는

## 내손2동 골목길

재건축지역과 아닌 지역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다. 재건축지역은 건물이 수리되지 않았고 빈곳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반면 재건축이 아닌 지역은 기존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등 바쁘게 바뀌고 있었다. 걷고 싶은 마음이 없던 골목길이 걷고 싶은 골목길로 변하고 있었다



-  맛 집\_입이 즐거운 곳
-  작업실\_눈이 즐거운 곳
-  공 방\_손이 즐거운 곳
-  공유공간\_모두 모여!

 내손다구역(재개발 예정)  
(본 지구는 예정/공사중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① 11:60
- ② 금잔디&루체(플라워&천연비누)
- ③ 커피우
- ④ 빨간장화(북&아트클래스)
- ⑤ 이하루의 손글씨학교
- ⑥ 퀴트슈슈르
- ⑦ 모해라
- ⑧ 노리타아미
- ⑨ 도자기공방우리나니
- ⑩ 고양이가물고잔피자
- ⑪ 포일커피
- ⑫ 내손의 예술
- ⑬ 퀴트공방이야기
- ⑭ 빈다이크(커피&바리스타)
- ⑮ 수제케이크비올렛

## «내손2동 어슬렁거리다»

내손2동. 낙후된 동네에 언제부터인지 아기자기하고 숨씨 좋은 공방들이 생겼다. 칙칙하던 동네에 하나 둘씩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관심이 없던 동네에 관심을 갖게 되고, 걷고 싶은 마음이 없던 골목길이 걷고 싶은 골목길로 변하고 있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을까? 내손동의 어떤 분들이 재미없는 골목길에 재미와 매력을 만들어가고 있을까?

### 카페, 공방, 눈에 띄는 공간 인터뷰

함께 어슬렁거리면서 무엇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재건축지역과 아닌 지역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다. 재건축 지역은 건물을 수리도 하지 않았고, 빈곳이 있으며 또 방치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반면 재건축이 아닌 지역은 기존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등 바쁘게 바뀌고 있었다. 간판이나 인테리어 등 눈이 가는 곳도 보고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 무작정 들어가 양해도 구하면서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는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꿈과 철학이 있는지 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직접 원두를 로스팅하는 카페, 운영자의 미적 감각으로 깔끔한 인테리어와 분위기를 만든 카페, 수작업으로 정성스레 만든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전시해 놓은 공방들, 다양한 수업으로 사람들과 즐거운 만남을 이어가는 공방 등 우리가 방문한 곳들은 그 곳에 사는 사람들로 인해, 그 사람들의 열정과 애정으로 인해 활기찬 생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들 공방과 카페가 들어서면서 마을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내에서 만남의 시간이 늘어났고, 이들 가게들은 서로 연합해서 홍보를 하고 지역공동체 활동을 했다. 우리나니, 손글씨학교, 빨간장화, 커피 우 금잔디 & 루체는 연합하여 내손스토리라는 아트마켓을 월 1회 오픈했다. 이들 활동은 재개발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생활예술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나갔다.

이 가게들의 특징은 자신이 갖고 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지역 내 이웃과 소통하고 재밌는 문화를 뿌리내리고 주민과 함께 행복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뜨내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공동체 공간을 만들어 가며 이웃들과 만나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스터디, 파티, 댄스연습 등 함께 하고 싶은 주민은 누구에게나 개방하고 공

유한다.

혼자 공방이나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공방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쓰기도 하고, 주변 카페와 연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즐거운 행사도 기획한다. 직접 원두를 로스팅하는 카페는 수제케이크 매장에 원두를 납품하고, 수제케이크 매장에서 만든 쿠키는 로스팅 카페로 납품하면서 서로 자신들의 재능을 나누며 상생하고 있었다. 우리 가게만 잘 홍보해서 나만 잘 되려는 욕심이 아니라 내손2동이라는 이 작고 낙후된 동네에서는 서로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며 함께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_우리가 돌아다니며 인터뷰하고,  
찾아낸 공간들을 지도에 표시해 보기**



만 괜히 그룹화하는 것은 아닌지, 알려지기 싫어서 참여안한 사람들은 더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조사를 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다.

저 분들 자체적으로 커피 하시는 분이 수제 케익만드는 분과 네트워크도 하고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예술가와 공간을 알려서 집값만 오르게 하는게 아닌가 딜레마가 있었다. 실제로 가게가 집주인일 경우나 홍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알려달라고 했고, 이미 충분히 홍보가 되어있거나 조금 집값이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_고민의 시작, 과연 공방길이 알려지는게 좋을까?**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는 막연하게 이들은 많이 알려지길 원할 것이고 흥대 카페거리나 경리단길처럼 알려지면 장사도 잘되서 좋아할 줄 알았다. 경제적 측면만 본 선입견이었다.

내손동 재개발지역에서 이들이 활동하게 된 주 요인은 저렴한 임대료 덕분이다. 이들은 장사가 잘되고 유명해져서 외부인이 많이 모여드는 상업화되는 것을 염려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걱정해서 일 것이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에 대해 걱정하시는 마음이 느껴졌고, 어떤 지역을 활성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리가 예술가들을 찾고 싶다는 필요에 의해서 매핑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이곳에서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서 다방면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했다. 예술문화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 예술문화라는 범위도 애매하다. 커피 내리는 사람, 킷트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가 조사한 구역에 있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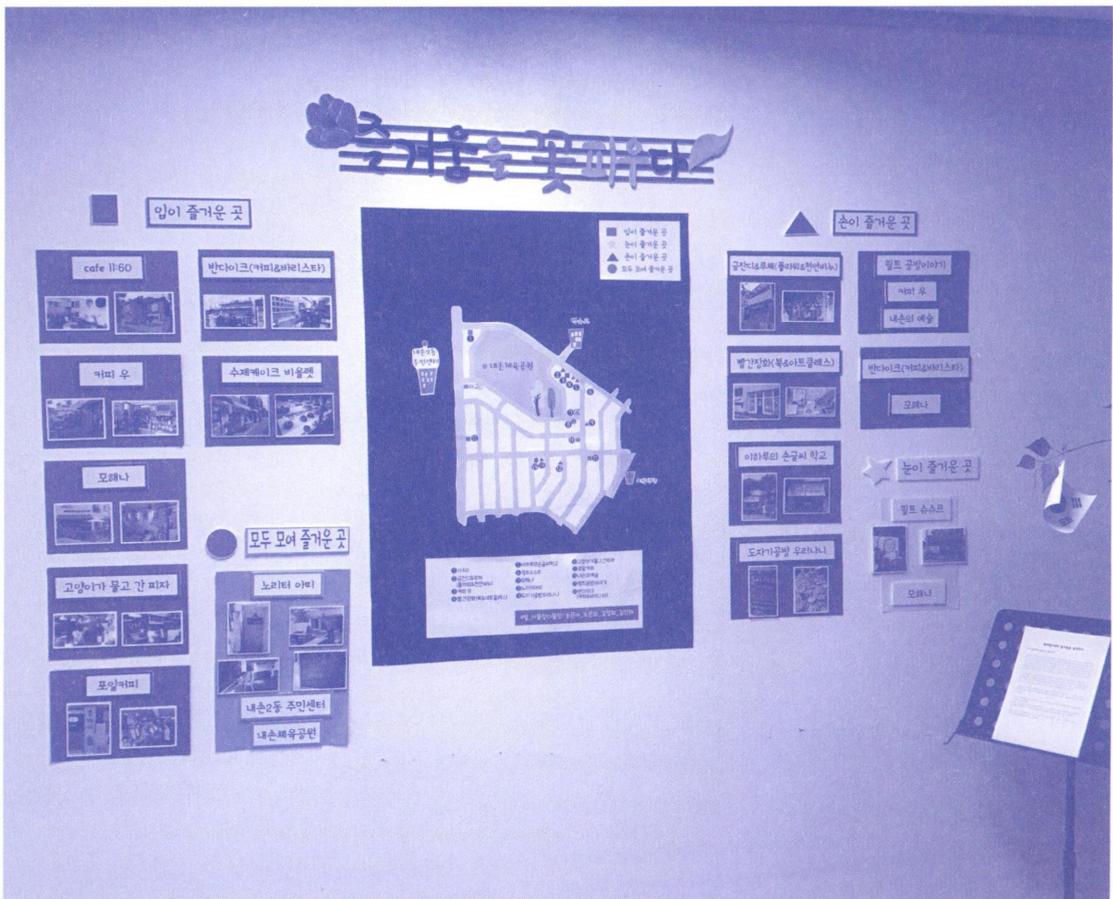
### 함께 공유하기 & 중간 피드백

관에서 만드는 지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활동이나 고민을 투사시킨 지도는 불가능할까? 라는 점에서 고민하면 ‘거리’라는 말은 빠져야 할 거 같다. 내손동이라는 말 역시 어떤 동네를 대표하는 예술 문화라고 할 때 저렇게 제목이 붙는데 내손동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공방이 아니다. 어쩌다 보니 공방들이 모인 것인데 내손동이라는 말을 빼고 번지수나 실제로 표시한 지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이름을 붙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시민과 주민은 다르다. 시민의 경우는 시민의 성질을 획득해야한다. 단지 거주한다고 해서 시민이 되진 않는다. 언어에는 그만큼 의미가 담겨있다. 까탈스럽게 볼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만약 지역의 예술가들을 찾게 목적이었다면 내손동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예술문화나 공방 자체가 아니라 공방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는 방식이 더 좋지 않았을까.

공방을 소비하고, 만들어서 가져가는 차원의 문제로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런 예술가들이 사는 구나’ 라는 식으로 인식의 전환이 생기는 지도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다. 손글씨 작가와 함께 이런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다든지, 작가가 운영하는 작업실에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든지 또는 작품 관람이나 전시가 가능한지 아니면 요청하면 다른데 강의도 해줄 수 있다든지 이런 정보들이 부가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예술가들이 이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매핑을 통해 드러낸다면 지도의 메시지나 의미의 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 «내손2동 매핑 전시 & 개별 보고서»



# 즐거움은 꽃피우다

- 입이 즐거운 곳
- 눈이 즐거운 곳
- ▲ 손이 즐거운 곳
- 모두 모여!



- 1 11:60
- 2 금잔디&루체 (플라워&천연비누)
- 3 커피 우
- 4 빨간장화(복&아트클래스)
- 5 이하루의손글씨학교
- 6 퀴트슈슈르
- 7 모해나
- 8 노리터아피
- 9 도자기공방우리나니
- 10 고양이가물고간피자
- 11 포일커피
- 12 내손의예술
- 13 퀴트공방이야기
- 14 반다이크 (커피&바리스타)
- 15 수제케이크비올렛

4팀\_어울렁더울렁/ 송은아\_조은희\_김정희\_김신혜

## 즐거움을 꽃 피우다

- 입이 즐거운 곳
- ★ 눈이 즐거운 곳
- ▲ 손이 즐거운 곳
- 모두 모여

### 일레븐 식스티 11 ↔ 60

1

#### ■ 입이 즐거운 곳

- 내손순환로 159
- 기존 다가구 주택에 앞에만 리모델링해서 새로지은 듯 감쪽같이 변화를 주었다
- 깨끗하고 세련된 분위기였다. 주요 손님은 공부하는 학생, 혼자오는 분들이 많아서 조용한 분위기를 위해 커피 수업이나 장소대여는 하지 않는다.

### 금잔디 & 루체

2

#### ▲ 손이 즐거운 곳

- 내손순환로 133
- 생화, 프리저보드 플라워, 비누공예를 직접 제작하고 판매했다.
- 2인 작업실로 생화, 프리저보드 플라워는 주로 강좌를 하며, '사랑비누'라는 쇼핑몰을 운영중이다.

### 커피우

3

#### ■ ▲ 입과 손이 즐거운 곳

- 내손순환로 131 1층
- 커피의 본고장 아프리카풍의 이국적인 분위기가 인테리어가 돋보였다.
- 에티오피아 커피 생산지 지도, 얼룩말, 피치스톤
- 커피 로스팅기기를 갖추고 있어 핸드드립 체험, 수망로스팅 체험도 할 수 있다.

### 빨간장화(북&아트클래스)

4

#### ▲ 손이 즐거운 곳

- 내손순환로 129 상가1호
- 2인 작업실로 독서모임, 천연염색, 컬러테라피 수강이 가능하다
- 북클럽 라 로바는 책을 읽고 함께 성장하길 원하는 여자독서모임이다.
- 월 2회 수요일에 독서모임을 하고 있으며, 장소대여도 가능하다.
- 컬러테라피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진단하고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을 코칭해준다.
- 관내 독서모임과 교육공동체와 네트워크 형성하여 활발한 교류를 통해 북콘서트, 책축제를 함께 협력하기를 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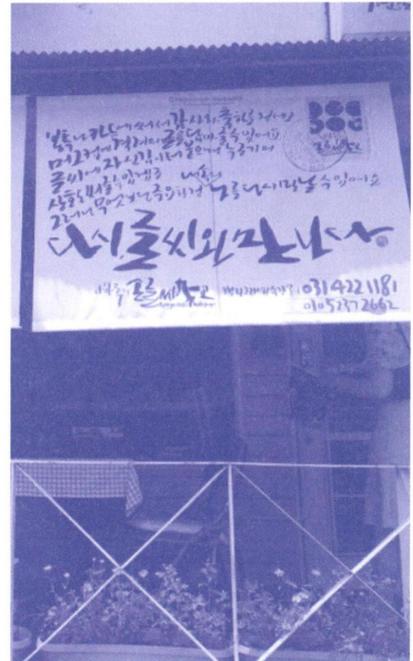


### 이하루의 손글씨학교

5

#### ▲ 손이 즐거운 곳

- 내손순환로 129 상가1호
- 모바일앱 바이블25 이하루의 손편지 연재중이며 직접 강의하는 캘리그래피 수강이 가능하다.



### 퀵트 슈슈루

6

#### ★ 눈이 즐거운 곳

- 정우길 53, 1층
- 프랑스어로 슈슈는 바느질하다는 뜻. 사장님 개이름이 슈슈, 바깥벽 강아지 그림의 주인공이다.
- 성당에서 만난 지인들끼리 모여서 퀵트 작업실을 마련했다.
- 수업보다는 작품 활동에 집중하고 있고 미적 감각이 뛰어나 화분을 소품으로 이용하고 있는 커피숍 같은 분위기가 있다.

모해나

7

- 입이 즐거운 곳 ▲ 손이 즐거운 곳
- ★ 눈이 즐거운 곳
- 위치 : 내손동 674-12 1층
- 카페 입구에 조각상과 창문너머로 보이는 작품들이 미술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 “모해나?” 소녀의 이름인가? 뭐하니?를 예쁜 어감으로 바꾼건가? 이름의 뜻이 궁금해서 계속 주문처럼 읊게 되는 모해나. 모퉁이에 해가 나는 곳이란 문장의 줄임말이다.
- 모해나는 지역 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작업 공간, 공방수업, 미술품 전시, 핸드메이드 국내 외 작가의 작품도 판매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도자기 공방 우리나라

9

- ▲ 손이 즐거운 곳
- 내손순환로 118
- 도자기 체험, 조물조물 흙놀이 체험, 핸드페인팅, 물레, 그림그리기 등 다양한 예술체험을 할 수 있다.
- 도자기 작업을 위한 화덕을 갖추고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출강하고 있으며, 작가 2명이 공간 쉐어 하고 있었다.

고양이가 물고간 피자

10

- 입이 즐거운 곳
- 내손순환로 113
- 피자파스타 전문점
- 부부가 직접 요리도 하며 음식점을 운영하고, 가구를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셨다.
- 화장실문을 게시판처럼 직접 만들어져 있어서 비위생적으로 느껴지는 화장실을 재밌는 공간으로 바꿨다. 가구와 인테리어가 실용적이면서 아이디어가 좋았다.

내손의 예술

12

- ▲ 손이 즐거운 곳
- 내손중앙로 74 내손한빛교회 지하
- 따복공동체, 도시재생공모사업으로 사진, 미술, 악기등 생활 예술 수업을 무료로 진행했다.

노리터 아띠

8

- 모두 모여
- 내손동 675-6(모락산아이들) 지하
- 아띠는 ‘좋은친구’라는 순우리말이다.
-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로 함께 관리하고 여러 예술가들 또는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제공. 한분이 임대를 해서 공동체에서 같이 쓸수 있도록 해주어서 마을분들이 같이 꾸미고 이용하는 공간. 아띠 이용규정이 있고 자율 운영식으로 함께 사용한다.



포일커피

11

- 입이 즐거운 곳
- 내손순환로 110-1 가장 먼저 자리잡은 커피숍(2008년)
- 직접 커피콩을 로스팅하고 청도 만들어 판매도 하고 있다.
- 수제 케익 전문점 「비올렛」 과 협력하여 쿠키와 커피를 서로 교환하여 판매하고 있다.
- 재개발로 있을 수 있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지키겠다는 깊은 애정과 의지가 보였다.

반다이크(VAN DYKE)

14

- 입이 즐거운 곳 ▲ 손이 즐거운 곳
- 내손중앙로 68
- 젊고 의욕적인 남자 사장님은 카페 운영과 함께 핸드드립 수업도 하고있었다.



수제 케익전문점 비올렛

15

- 입이 즐거운 곳
- 복지로 100
- 웨프 혼자서 케익을 만들다보니 월 - 수요일 날은 주문을 받고 물건을 만든다.
- 영업일은 목요일 - 일요일날만 운영한다.
- 유기농 재료만 고집하며, 카페 포일커피와 쿠키와 커피를 연계하여 판매한다.

## 살기 좋은 동네는 겉모습이 깨끗하고, 편리한 동네가 아니라 소통하고 마음 나누며 상생하는 동네

### 김신혜

나는 재건축 된 곳, 새로 개발된 넓은 도로가 있고, 큰 건물들이 즐비한 동네를 살기 좋은 동네, 편리한 동네라고 생각했다. 주차도 편하고, 편의시설이 즐비하고, 깨끗하게 정비된 도시는 잘 사는 동네이고, 반면에 오래되고 낙후된 동네, 좁은 골목길들로 복잡한 동네는 못사는 동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재건축이 되는 걸 옳은 일이라 생각했고, 낙후된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새 아파트, 잘 정비된 도시에서 살게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번 마을큐레이터 활동을 통해 나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는 겉모습이 좋고 깨끗하고 편리한 동네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며 상생할 수 있는 동네가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임을 깨달았다.

세상은 남들 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우월해지고 뛰어나야 행복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손2동의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세상은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고 말한다. 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즐거움을 오래오래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도시 계획이나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이곳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어떻게 하면 서로 상생하며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포일커피 사장님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떠오른다.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 살 텐데, 왜 자주 재개발이 다 뭐다 해서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어!”

## 문제를 무리하게 바꾸려고 하는게 아니라 문제를 드러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 김정희

마을을 함께 어슬렁거리며 낯선 시각으로 보고, 듣고, 기록하고 그것을 선별하고 배열해서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어떤 마을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담아낼지도 궁금해졌다.

그들은 저렴한 임대료여서 오기도 하고 그 근처에 살아서 오기도 했으며 누군가의 소개로 오기도 했다. 예쁘고 멋진 사람들과 공간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연대하면서 나름대로 행사와 활동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거리도 달라졌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 문제를 무리하게 바꾸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또 그것이 마을 큐레이터의 역할이라는 것도.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공간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 각자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 조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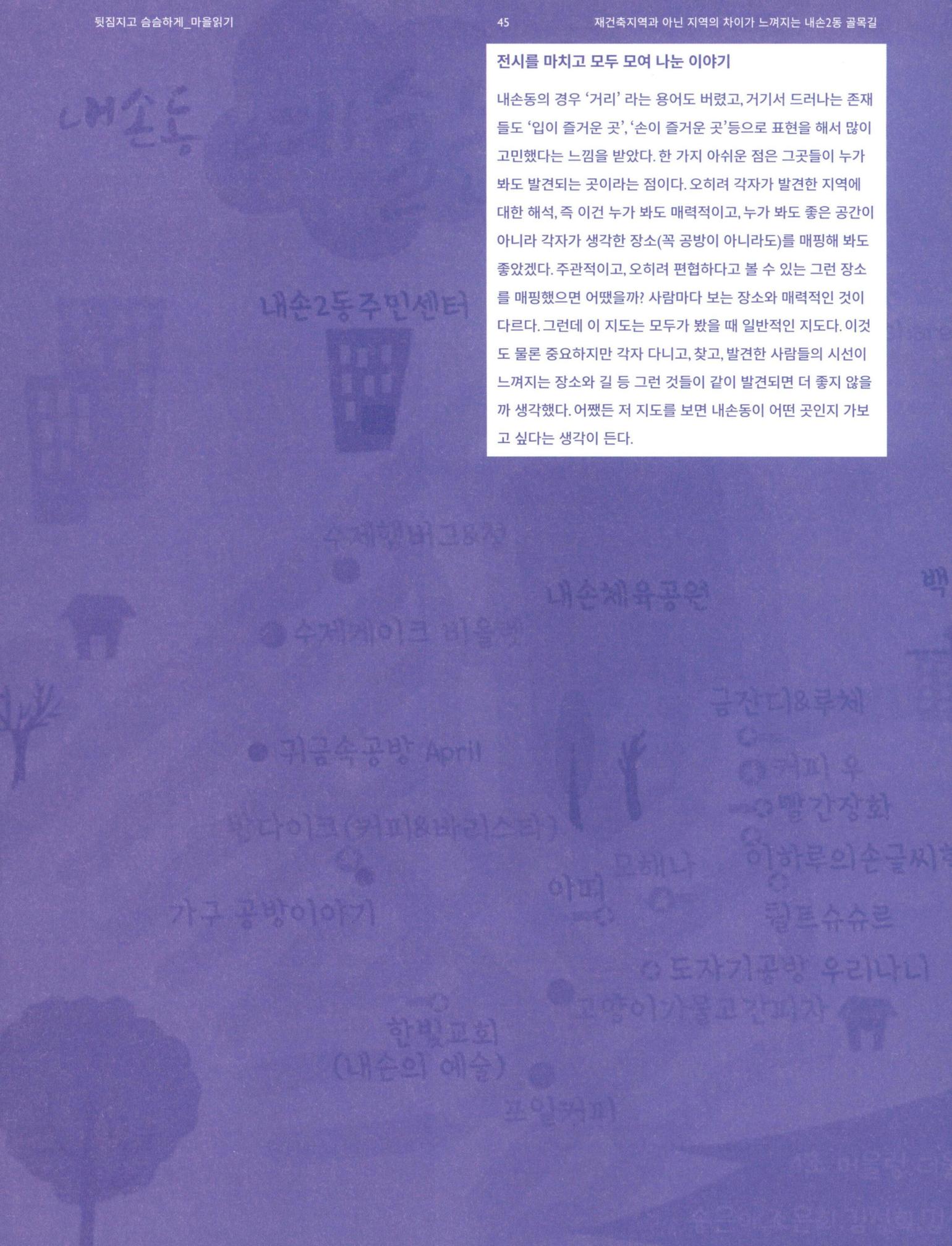
도로 하나를 차이로 건물과 분위기가 다름을 느끼게 되었다. 재건축을 기준으로 재건축 대상인 건물은 더 이상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다보니 폐건물처럼 여겨지는 건물이 제법 많이 보였고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잠식되어 활기가 없는 방치된 거리의 느낌을 주었고 재건축에서 벗어난 곳의 건물은 새로 증축이나 인테리어를 하며 예쁘게 꾸며진 사람의 생기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누구를 위한 공동체이고 발전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다.

누구나 각자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연계하며 먼 지역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 소규모라도 서로 뜻을 맞춰가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

전시를 마치고 모두 모여 나눈 이야기

내손동의 경우 ‘거리’ 라는 용어도 버렸고, 거기서 드러나는 존재들도 ‘입이 즐거운 곳’, ‘손이 즐거운 곳’ 등으로 표현을 해서 많이 고민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곳들이 누가 봐도 발견되는 곳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각자가 발견한 지역에 대한 해석, 즉 이건 누가 봐도 매력적이고, 누가 봐도 좋은 공간이 아니라 각자가 생각한 장소(꼭 공방이 아니라도)를 매핑해 봐도 좋았겠다. 주관적이고, 오히려 편협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매핑했으면 어땠을까? 사람마다 보는 장소와 매력적인 것이 다르다. 그런데 이 지도는 모두가 봤을 때 일반적인 지도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자 다니고, 찾고, 발견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장소와 길 등 그런 것들이 같이 발견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어쨌든 저 지도를 보면 내손동이 어떤 곳인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삼남3남3남 팀

(강혜숙, 박단경, 이용기)

삼남길2,3구간을 매핑하다



걷기 좋은 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보이는

삼남길 제2,3구간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도보여행이 될 수 있도록 삼남길 의왕구간의 이정표와 볼거리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삼남길 제3구간 (백운호수 ~ 지지대비)



| 역사가치가 있는 곳 |

- ① 지지대비
- ② 오봉주조
- ③ 사근행궁터
- ④ 현총탑
- ⑤ 임영대군묘

| 주변에서 볼 것들 |

- 자비정사
- ② 대안사
- ③ 백운사
- ④ 인덕원옛길
- ⑤ 인덕원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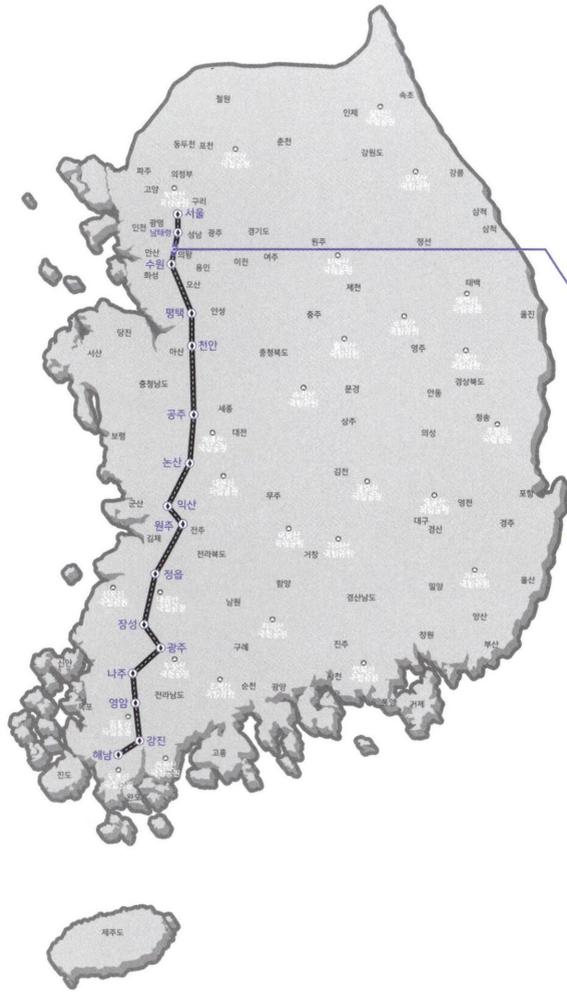
| 자연/경관 있는 곳 |

- ① 골사그네빨래터
- ② 통미마을빨래터
- ③ 오봉산
- ④ 왕곡동보호수
- ⑤ 하트나무
- ⑥ 모락산
- ⑦ 백운호수

| 위험/불안 지역 |

- ① 지지대산길
- ② 골사그네갈림길
- ③ 통미마을갈림길
- ④ 고고리 가는 길
- ⑤ 왕곡동갈림길
- ⑥ 오매기쉼터갈림길
- ⑦ 모락산길
- ⑧ 농안마을길
- ⑨ 농안마을 가는 길

- 쉼터
- 보수가 필요한 쉼터
- 삼남길



### «삼남길 어슬렁거리다»

#### \_의왕의 삼남길

의왕의 삼남길은 한양 송례문 과천 의왕 수원 화성 평택 천안 공주 정읍 장성 광주 나주 해남(약 392km)까지 10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의왕은 그 중에서 2구간과 3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삼남길의 경기구간은 90.1 Km에 달하는 과천 안양 의왕 수원 화성 오산 평택까지이며, 의왕의 삼남길은 인덕원역~백운호수까지 3.5 km, 백운호수 임영대군묘역 및 사당 능안마을 오매기고개 오매기마을~왕림마을 사근행궁터 의왕시청 고고리마을 골사그네~지지대비에 이르는 12.6 Km구간이다. 조선시대 6대 옛길은 삼남길, 영남길, 평해길, 경흥길, 의주길, 강화길로 그 중에서 삼남길은 우리조상들의 한양과 삼남지방(충청,전라, 경상도)을 이어 걸어다녔던 1000리에 달하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옛길이다.

현대에 와서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은 빠른 길을 원하게 되었고 길이 있던 곳에 아파트, 도로 등이 들어섬에 따라 산과 들, 오솔길과 고갯길들은 하나 둘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한양과 삼남지방의 물산을 옮기던 보부상들의 숨은 이야기, 과거보러 가던 선비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 이순신장군의 애국심이 가득한 이야기, 춘향을 만나기 위해 내려가던 이몽룡의 바쁜 발걸음에 얽힌 이야기는 어느 길에 숨어있을까?

다행스럽게도 옛길을 찾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즈음에 우리 의왕을 지나는 삼남길을 걷는 여행객들이 옛 선비들처럼 여유 있게 즐기며 걷는 안전하고 편안한 도보여행이 되도록 하기위해 의왕구간의 이정표와 볼거리를 중심으로 조사하게 되었다.

#### \_필요한 것들 발견

삼남길의 표시판이 다 지워져 있었다. 햇빛에 바래고 너무 낮아서 쓰레기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 좀 더 높게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전체 지도에서 현 위치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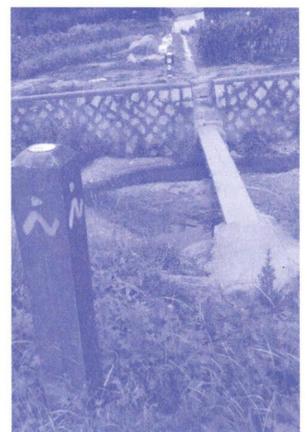
인덕원역터라는 곳이 있는데 정조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거쳐 간 곳인데 표시판에만 기록되어있을 뿐 별다른 안내표시가 없다.

백운호수를 따라 올라가는 구간 길이 개발로 인해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되어있다. 안내판이 제대로 붙여졌으면 좋겠다.

의왕에는 문화재 유적이 없다고 하는데 스토리를 엮어내면 가능할 거 같다. 오봉주조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봉산에 관한 전설도 개발했으면 좋겠다. 자료가 많이 누락되어있다. 은행나무 하나를 가지고 풍년, 흉년을 점치고, 산신제를 지냈었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가 없다.

빨래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옛스런 모습으로 복원했으면 싶다. 가다보면 웅벽, 터널 빈공간이 나오더라. 이순신도 지나가고 이몽룡도 지나갔고 정도전, 정약용이 유배가며 지나간 길인데 벽화로 그려 넣으면 어떨까 상상도 해보았다. 하천을 징검다리라던지 자연형 다리로 만들면 어떨까.

큰 문제는 화장실이 별로 없다. 자연형 화장실이 필요하다. 사유지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쉽터도 마땅치 않다. 오매기마을 쪽에는 쇼파 하나만 버려져있다. 여기에 정자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정표가 대체적으로 잘 되어있지만 꾸준한 정비가 필요하다. 옛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그 마을의 자원을 조사해야하는데 자원의 개념을 미리 숙지 못했다. 자연경관, 인적자원 같은 것들도 이 주변에서 발굴 되었으면 좋겠다.



### 함께 공유하기 & 중간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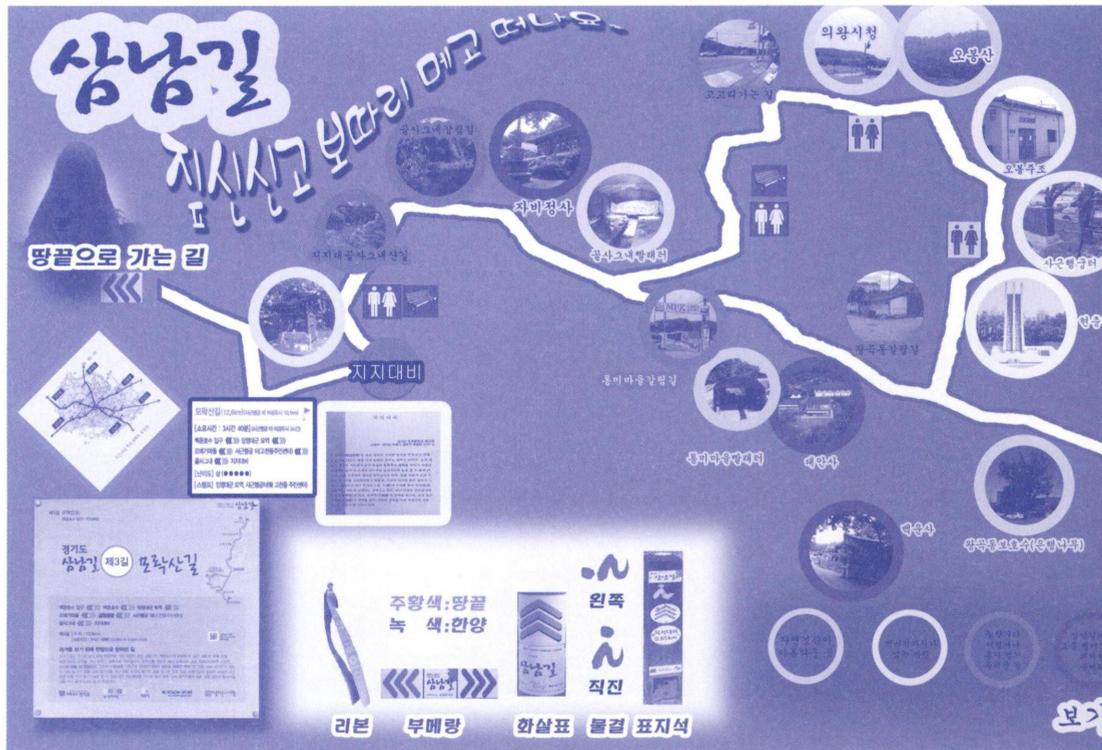
지도는 사진이 핵심이 아니라 위치가 핵심이다. 선생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삼남길이 사람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즐겨 찾게 되기 위해서는 이정표가 잘 드러나야 할 것 같다. 기존에 있었던 것이 훼손되거나 퇴색되어서 없다면 그것이 없음을 지도에서 나타나야 한다. 이정표에 점을 찍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매핑이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삼남길에서 보완되지 않는 것, 비어있는 것이 드러나기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정표는 짙혀야 할 것 같다.

지금 당장 새롭게 찍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존에 찍은 것이라도 보완되면 좋겠다.

첫 번째는 이정표를 찍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은 이정표가 있는 곳, 훼손된 곳, 있어야 하는데 없는 곳 이런 식으로 범례를 나누어 표시가 필요하겠다.

화장실과 쉼터도 마찬가지로이다.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문제의식으로 설정했으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찍어야 어디에는 있고, 없다가 드러난다. 그래야 선생님들이 목격했던 것들이 지도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표시하기 보다는 선별해서 표시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리는게 필요하다. 삼남길에 대해 문제점도 아시고, 해결책도 가지고 계신다. 그럼 지도가 아니라 글과 사진으로 그런 아쉬운 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새롭게 매핑을 하시기보다 오히려 덜어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삼남길 이정표

가. 이정표의 종류와 읽는 법

| 이정표 형태                                                                                                                             | 이정표의 의미                                                                                           |
|------------------------------------------------------------------------------------------------------------------------------------|---------------------------------------------------------------------------------------------------|
|  <p>주황색:땅끝<br/>녹색:한양</p> <p>리본 부메랑 화살표 불결 표지석</p> | <p>1. 공통점: 주황색은 해남 땅끝을 나타냄, 녹색은 한양방향을 나타냄</p> <p>2. 삼남길의 ‘ㅅ’과 trail의 ‘i’를 합한표시로 ‘.’이 방향을 나타낸다</p> |
|                                                  | <p>현재위치의 번호</p>                                                                                   |
|                                                 | <p>현재의 길이 삼남길임을 나타냄</p>                                                                           |
|                                                 | <p>갈 방향을 나타냄<br/>(3개의 화살표는 충청, 경상, 전라도를 뜻함)</p>                                                   |
|                                                 | <p>다음 행선지의 명칭과 거리를 나타냄</p>                                                                        |
|                                                 | <p>해당지역 지자체의 로고표시</p>                                                                             |

**나. 이정표의 설치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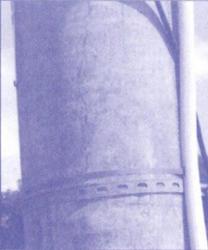
삼남길 이정표의 위치는 대체적으로 잘 설치되어 있었다.

다음 행선지와 방향이 알고 싶어지는 곳, 갈림길, 볼거리가 있는 곳 등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미흡한 곳도 많았다.

삼남길의 이정표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다

1. 리본형: 굵은 나무, 가느다란 나뭇가지, 울타리 펜스, 전신주
2. 화살표: 가드레일, 벽, 전신주, 기타기둥(반사경기둥, 표지판기둥)
3. 물결형: 전신주, 벽, 표지석(말뚝), 가드레일, 경계석
4. 표지석(말뚝): 갈림길, 개울의 양쪽, 고갯길

**다. 이정표의 상태현황**

| 순 | 이정표형태   | 상태                                                                                  |                                                                                     |                                                                                      |                                                                                       |
|---|---------|-------------------------------------------------------------------------------------|-------------------------------------------------------------------------------------|--------------------------------------------------------------------------------------|---------------------------------------------------------------------------------------|
|   |         | 퇴색                                                                                  | 가려져안보임                                                                              | 훼손위기                                                                                 | 철거위기                                                                                  |
| 1 | 리본형     |    |    |    |    |
| 2 | 화살표     |  |  |  |  |
| 3 | 물결형     |  |  |  |  |
| 4 | 표지석(말뚝) |  |  |  |  |

**삼남길의 화장실과 쉼터**

삼남길의 2구간 인덕원길과 3구간 모락산길에는 3개의 쉼터와 5 군데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가. 쉼터**

학의천 쉼터는 새로 만들어져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오매기마을에서 사나골밥상 아래에 있는 쉼터는 쉼터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어있었다. 그늘도 없는 곳에 쓰레기더미 속에 헌의자 2개가 흉물스럽게 놓여있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 화장실**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인덕원역, 학의천공중화장실, 백운호수, 사근행궁터, 의왕시청(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다. 이 외에도 임영대군묘역, 모락산길, 고고리길, 골사그내에서 지지대비 가는 산길 등에 화장실이 없어 생리적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다.

**매핑을 마치며**

우리 의왕은 인구 15만 정도의 조그만 소도시이지만 풍부한 녹지공간과 호수 등 좋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고, 한강의 지류인 안양천의 발원지가 있으며, 더구나 우리 조상들의 애환과 애뜻함과 간절함과 기쁨과 슬픔이 녹아있는 삼남길이 있다. 삼남길 중에서 모락산길은 도보여행가들에게도 아름다운 길로 알려진 유명한 길이다.

이처럼 훌륭한 자원인 삼남길을 잘 가꾸어 홍보하고 유지해 나간다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재생시켜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1. 이정표의 종류가 설치단체별로 다르게 하다보니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어 경기도와 지자체가 예산을 같이 투자하여 정감있고 옛스러우면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이정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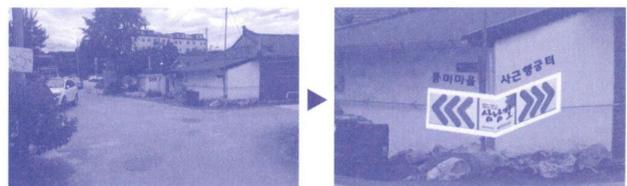
2. 이정표의 위치에 관한 일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새로 세워진 전신주, 시설물등과 사유지를 지나는 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3. 화장실의 경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아 소변전용으로라도 친환경화장실을 더 설치하였으면 좋겠다.

4. 곳곳의 굴다리나 웅벽등의 벽화 가능한 곳에 과거보러가는 선비, 보부상들의 모습, 이순신장군의 행차, 춘향이와 이도령의 사랑이야기 등의 내용을 그림이나 글로 나타내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옛 조상들이 이 길을 지났음을 느끼도록 했으면 좋겠다.

5. 사유지를 지나는 여행가들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입는 토지주들이나 여행가들 모두 윈윈하는 정책으로 쉼터를 정자형으로 만들어 토지주인들이나 여행가들이 모두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6. 유일하게 의왕 구간만 두 갈래의 갈림길이 있어 그 갈림길에 자세한 안내문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길을 찾기 어려운 왕곡동 갈림길의 벽이나 길에 크게 안내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은 길이 되기 위한 바람**

**이웅기, 강혜숙**

지도를 현수막으로 뽑은 이유가 있다. 보존하는 재질이 아니면 버려지게 되기 때문이다. 삼남길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에 이 지도를 붙여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여기가 삼남길인지도 알고, 잘 찾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서이다.

**오감으로 느낀 삼남길**

**박단경**

뽀뽀한 상가와 주거지역이 밀집된 골목길에서 삼남길 표식을 찾는 일은 마치 보물찾기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과 기대감이 동시에 일었다.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 리본은 철사로 묶여 있거나 거의 대부분이 잘려 있거나 색이 바래 있었다. 붉은 혹은 파란 철의 표식도 잘 보이지 않았고 노란 페인트로 칠한 표식도 지워져 있거나 쓰레기더미, 생활용품, 업무용 물건이나 자동차에 가려져 있어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오감을 더욱 발현시켰다.

골목길 오거리에서 서서 ‘저렇게 큰 대로가 있는데 삼남길은 왜 골목길을 통해 걷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과 ‘과거에는 인적이 드물고 한가한 길이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동시에 일어났다.

길은 도랑을 건너기도 하고 다리 아래 으슥한 곳을 지나기도 했다. 복개천 옆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복개길 아래로 이어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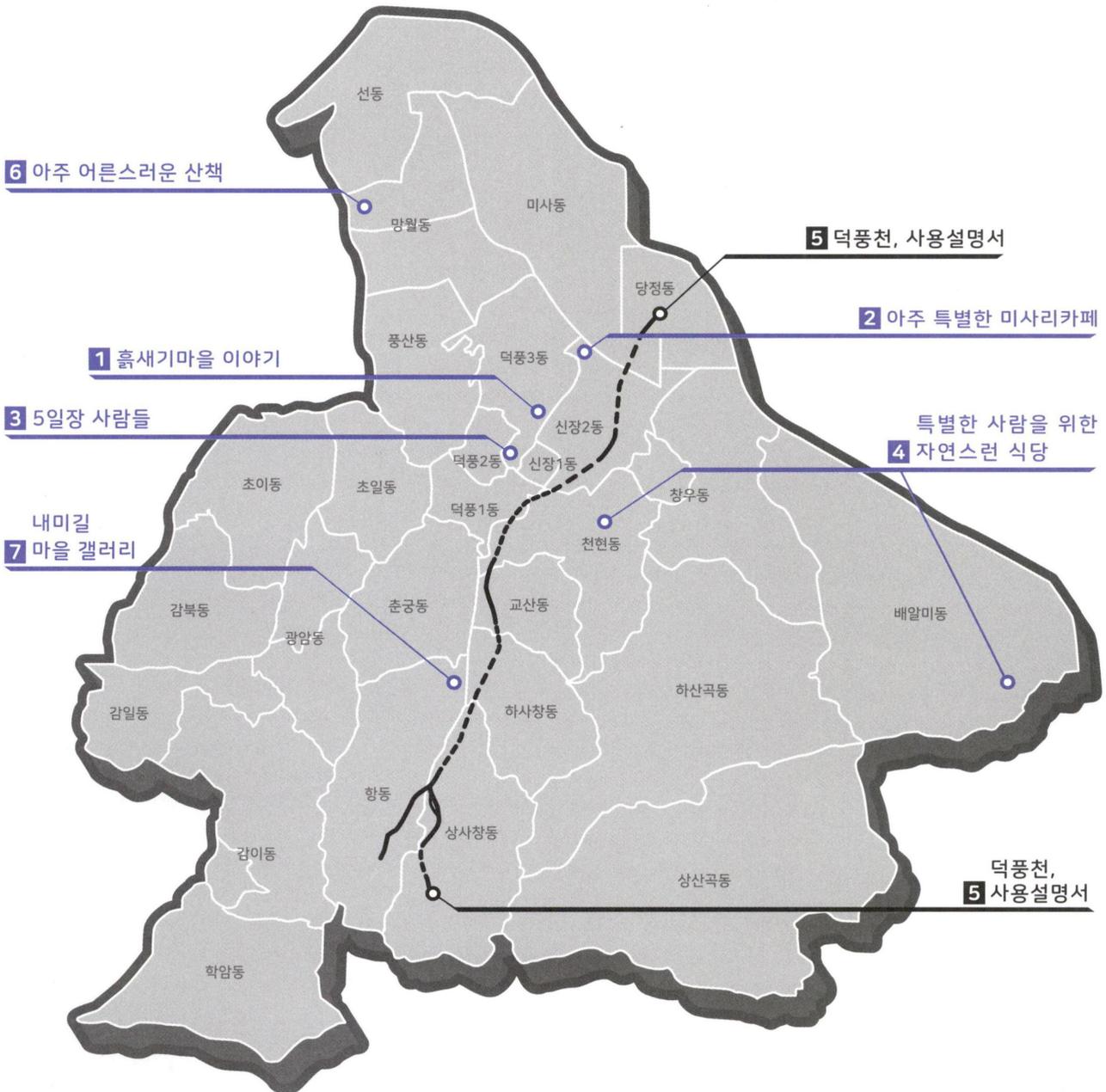
복개 다리 아래를 지나갈 때는 으스스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꺾어져 돌다리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는 길이 금방 나타났다.

사진을 찍으며 표식이 지워진 곳, 표식을 찾기 어려운 곳의 지번을 기록했다.

**전시를 마치고 모두 모여 나는 이야기**

이야기, 지도로써의 완성도, 앞으로 활동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팀이다. 매핑 할 땐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주장대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팀이기도 하다. 삼남길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섬세하게 그 길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살피게 했다. 낯설게 보기에 어떤 이슈에 관한 관찰자의 바람과 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보여주었다. 이후에 지도 현수막을 집 근처에 붙여 놓는 것뿐만 아니라 활동으로 이어가도 좋겠다.

길은 인문학적 사유의 대상이기도 하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길이 늘 중요하다고 여겨왔는데 지금도 마을이나 공동체, 기억이라고 하는 것 어떤 가치라는 측면이 얘기될 때 공통적으로 ‘길’을 이야기 하곤 한다. 전체적으로 길의 포장된 상태, 길의 변화, 역사성, 살고 있는 존재들 등 길이 가진 인문적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스터디 해보는 시간을 이어간다면 삼남길 지도가 더 깊어지고 가치지향적인 지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 PART2

---

### 하남, 일상생활로 마을 읽기

- 흙새기 마을 이야기 **1**
- 아주 특별한 미사리 카페 **2**
- 5일장 사람들 **3**
- 특별한 사람을 위한 자연스런 식당 **4**
- 덕풍천, 사용설명서 **5**
- 아주 어른스러운 산책 **6**
- 내미길 마을 갤러리 **7**

# 휴새기

# 속

# 마을

# 이야기

# 마을

# 사랑방



● 휴새기 마을의 한 길목 모습



● 휴새기 마을의 한 길목 모습



● 휴새기 마을의 사랑방 모습



● 휴새기 마을의 사랑방 모습



- 1길
- 2길
- 3길
- 강경속 사랑방
- 전소민 놀이
- 장순란 꽃목
- 퇴직인 노동자들의 삶



● 휴새기 마을의 사랑방 모습



● 휴새기 마을의 사랑방 모습



● 휴새기 마을의 사랑방 모습

● 휴새기 마을의 사랑방 모습

# 놀이

**휴새기 마을 이야기**  
 장순란, 강경숙, 오현주, 전소민



● 휴새기 마을의 사랑방 모습

# 마을공동체



● 휴새기 마을의 사랑방 모습

흙새기마을이야기는 4명의 참여자가 팀을 이뤄 각자의 관심과 시선으로 마을을 읽어낸 기록이다.

장순란 참여자는 오래동안 하남의 이곳저곳을 사진으로 기록해왔고 올해 흙새기 마을에 집중했다. 발전이란 명목으로 사라져가는 마을의 지금 모습을 담담하게 기록한, 흙새기 마을 4인4색 기록의 개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강경숙 참여자와 오현주 참여자는 흙새기 마을사람들의 삶에 집중했다.

은행마트 인근에 사는 노인들이 모여앉아 담소를 나누면서 사랑방 노릇을 하게 된 마트 앞 평상을 아지트삼아 이야기를 기록해갔다. 재개발에서 다른 재개발로 이어지는 경로를 따라 삶의 터전을 옮겨 다닌 이들의 이야기, 흙새기 마을살이를 접고 이주해야하는 사랑방 노인들의 삶의 기록이다.

짧은 기간 싼 가격에 임대할 수 있는 이점은 철거가 예정된 재개발 단지가 갖는 최대의 장점이다.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삶은 주변 상권의 변화와 식당의 메뉴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슬렁거리다 눈에 들어온 이곳의 삶을 기록했다.

전소민 참여자는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참여자 중 가장 젊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찾고 싶어 흙새기마을 골목을 어슬렁거렸다. 그러다 팀원인 장순란 참여자로부터 ‘돌’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이 레시피를 전.수.받는 기회를 얻었다.

흙새기마을에 대한 관심은 네 사람의 색깔로 기록되었다.

- 흙새기 마을 골목 이야기 -





## 4인4색 흙새기 마을 읽기

장순란

여름 장마철에 수리골에서 흘러 내려오는 토사가 농로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의 ‘초원연립’아래에 흙을 쌓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 ‘흙새기’ 마을 이름의 유래다. 지금의 모습은 40여년 전 형성 되었고, 또 다시 도시 재개발로 다른 모습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흙새기 마을의 모습을 가감 없이,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자 했다.

무작정 바라보고자 뛰어든 흙새기 마을의 지금은 도시재개발 과정 중 그 막바지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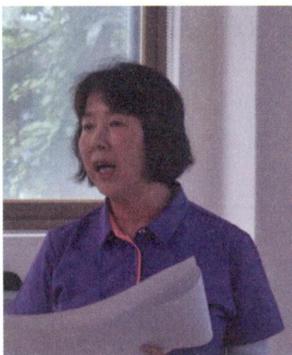
하나 둘 빈 집이 늘어났고, 그 빈 집은 가격도 싼고 단기간 살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지금 이곳은 외국인 노동자와 곧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노인들이 산다.

이러한 흙새기 마을 구성원은 주변 상권을 변화시켰다. 몇 년 전만해도 있었던 예쁜 카페나 문방구, 옷가게 등은 사라졌고,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마트나 싼 가격에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집밥 식당이 주를 이뤘다. 이런 변화가 명확하게 눈에 들어왔고, 처음엔 낯설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곳곳에서 수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 재개발 과정이 대부분 이 곳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 싶었다.

흙새기 마을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든 생각은 국토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며 하루하루 공동화 되는 마을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마음에서 영 못마땅했다. 먹고 사는 것만 겨우 남아버리는 마을, **내 생각은 마을에 단 한 사람이 살고 있더라도 그곳의 삶의 질을 포기 하지 않는 누군가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재개발이 옳고, 그름을 떠나 있는 그대로 지금의 흙새기 마을을 보기로 했다.



흙새기 마을  
골목 톺아보기  
장순란

.....

흙새기 마을 메인 골목 중심으로 잔가지처럼 뻗어 있는 작은 골목을 뒷집 지고 숨숨하게 바라봤다. 그럼에도 무거운 마음이 제절로 드는 것에는 그대로 무겁게 바라봤다. 오늘, 지금의 흙새기 마을을 바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한다.



흙새기 마을  
외국인 노동자들  
삶 엿보기  
오현주

.....

도시 재개발로 서서히 공동화 되어 가는 마을을 어슬렁 어슬렁 걷다 보니 잊고 살았던 유년의 기억 속 내가 살던 집과 어머니와 함께했던 추억이 떠올라 흙새기 마을이 다르게 다가왔다. 골목에서는 여전히 푸르른 생명들이 별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들려오는 낯선 언어들, 짧은 시간이지만 그곳에 머물다 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삶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이 주로 찾는 집밥 식당과 그곳에서 만난 다문화센터에서 외국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이신 ‘상담선생님’과의 인터뷰 등, 영락없이 영화 ‘국제시장’이 생각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이 희망으로 가득하길 바란다.



사라지는  
마을의 사랑방  
강경숙

.....

흙새기 마을 어귀에 있는 ‘하남 은행마트’에는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있다. 인상 좋으신 마트 내외분께서는 재개발 지역의 딱딱한 인심과 다르게 우리를 푸근하게 맞이해 주셨으며 인터뷰에 응해 주셨다. ‘은행마트’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 주시는 오늘의 주인공들이신 ‘변호사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 그리고 청일점이신 할아버지를 비롯한 5~6명 되시는 어르신들, 이 분들은 이곳 ‘은행마트’에 모여 동네의 모든 일에 관여 하신다. 흙새기 마을이 앞으로 없어지긴 하겠지만 이곳 마트 앞에 사랑방을 차리신 어르신들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인 양 동네일에 적극적이다. 그 분들이 모인시간에 그곳에 앉아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함께 웃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흙새기 마을  
골목 놀이  
전소민

.....

지금 마을의 상태에서 즐거움을 야기하는 놀이를 찾거나 묻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좁은 틈, 미로 같은 자리, 나를 식별하기 힘든 숨을 곳들이 많은 이색 숨바꼭질 장소, 마당에서는 역할놀이 등이 지금의 아파트나 놀이터 공원에서는 조밀조밀 흐르듯 놀 수 없는 것들이 이곳에서는 속속 있었다. 요즘과 같은 폭염에서 그늘막이 아닌 담장너머 나무그늘이 돛자리를 깔고 접이식 테이블을 피고 도시락을 꺼냄이 아닌 대문 계단에 앉아 앞집 마당에 핀 풀잎과 꽃을 돌로 뺨으며 집에서 막 껌질 벗겨 먹던 한 손에 든 복숭아를 먹는 아이들. 흙새기 마을은 옛 시절이 생각나는 정이 있는 동네였다.

# 흙새기 마을 골목 훑아보기

## 장순란

**지금 흙새기 마을의 모습은 198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형성되었다**  
 그 이전에는 수리골이 있는 산을 뒤에 두고 산을 에돌아 몇몇 가호만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다. 마을 앞에는 개천이 흐르고 그 너머에는 너른 벌판이 검단산 자락까지 이어졌다. 또 한편으론 당정 섬이 보이는 한강변까지 닿았다. 이렇게 자연 조건이 순박한 흙새기 마을도 여름 장마철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 이유는 마을 뒷산인 수리골산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와 마을 앞 개천인 수로에 쌓여 망월천으로 이어지는 농로를 막아 버리는 일이 번번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토사가 수로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의 ‘초원연립’ 아래쪽에 모래 방죽을 쌓아야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흙새기 마을 이름은 장마철 흙을 쌓는다는 말에서 시작 되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상상이 가지 않는 옛날이야기겠으나 지금 이곳 흙새기 마을이 또 다른 모습으로의 변화를 품고 있고, 진행 중이다**  
 도시가 재건축되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일이야 다반사이니 그것에 대하여는 별 이유가 없다. 또한 재탄생한 도시 모습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도 않다. 다만 그 마을에 있었던 건물과, 사람, 꽃과 나무, 정서와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골목길이 갖고 있는 사람 사는 세상의 냄새가 없어지는 것에 대하여는 스스로 갖고 있는 유년의 기억 때문인지 불편한 마음이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나는 흙새기 마을의 골목을 내 맘대로의 감정을 지긋이 누르고 되도록 습습한 마음으로 돌아보고자 한다.



2012년 흙새기 마을 골목

2018년 흙새기 마을 골목



마을의 중심에서 바라본 흙새기 마을 중심 권역

언덕반이에 있는 더샷 아파트에서 흙새기 마을의 메인 골목을 내려다 보면 길 끝에 있는 신장초등학교가 보이고 멀리는 검단산의 봉우리가 보인다. 그러니 마을 한 바퀴를 큰골목과 더불어 작은 골목까지 다 돌아도 한시간 남짓 걸리는 작은 동네라고 할 수 있다. 도심의 중심은 아니지만 점점 커지는 하남시에서 그래도 중심에 속하는 마을인데 40여년 전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누구든 이곳을 새로운 시간으로 바꾸고자 하는 생각이 들것 같기는 했다. 흙새기 메인 골목을 중심으로 옆으로 가지치기 하듯이 퍼져있는 골목 곳곳을 훑아보고 또한 이러한 골목들이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천천히 걸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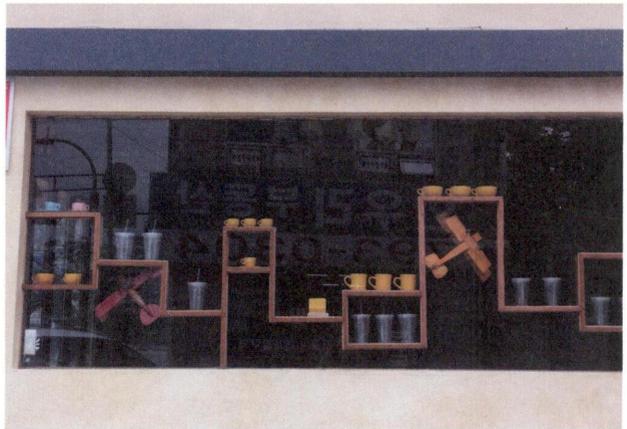
흙새기 마을 중심 골목길에 서서 몸을 사방으로 돌려보면 동쪽 골목 끝에는 하남문화회관과 하남문화원이 한눈에 들어오고 서쪽 골목 끝에는 옛날 수리골에 지어진 더샷 아파트가 보인다. 또한 동남쪽 골목길 끝에는 신장초등학교가 있고 서남쪽 골목으로 나가보면 덕풍시장이 있다. 이렇게 보니 마을의 규모는 좀 작지만 흙새기 마을의 위치는 학교와 시장이 가까이 있고, 문화 또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향유할 수 있는 더 할 수 없이 좋은 명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요즘 흙새기 마을의 시간은 이러한 주변 환경이 무색하게 흐르고 있다. 아무도 살지 않아 대문은 걸어 잠그고 잠겨 있는 대문은 그대로 녹이 슬어 부슬부슬 녹아내리고, 그도 모자라 온전히 거미들만의 세상이 되어 아이러니 하게도 그들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 놓고 있다. 흙새기 마을이 지금의 모습을 갖춘 때부터 이곳에서 부동산을 하셨다는 ‘가로등부동산’ 사장님의 말씀으로는 이미 반 이상 집이 비었다고 하시니 흙새기 마을도 또 다른 모습을 맞이할 시간이 멀지 않았구나 싶었다.

**그렇다고 흙새기 마을이 벌써 모두 폐허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이곳에는 1년, 2년후의 일 따위는 염두에도 없으신듯 하루의 시간을 쓰시는 상가 사장님들이 계신다. 근처 사무실 근무자들을 비롯하여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와서 점심식사를 해결하는 짬뽕하고 맛도 좋고 가격은 착한 집밥 식당인 ‘패밀리 밥상’, 20여년을 마을의 머리 스타일을 책임지신 ‘서진주 미용실’, 오랜 시간동안 마을 중앙통에서 서로 마주보며 살아오신 ‘광명마트’와



휴새기 골목에서 인제나처럼 성업중인 상가들



3년 전 마을의 중심 골목들을 지나다. 우연히 찍은 이본 카페. 지금은 두 곳 모두 이 골목에 없다

‘가로등 부동산’ 이 외에도 ‘하남은행마트’ ‘성심세탁소’ ‘동네슈퍼’와 ‘해성정육점’ ‘마포갈비’ 등등 상호나 모습 모두 소위 세련된 맛은 없으나 그분들이 운영하는 상가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사장님들께서는 마을의 이야기보따리를 몇 개씩은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보니 이곳에서 성업중인 상가들의 업종이 옷가게나 문방구 혹은 이쁜 카페가 아니라 크기가 조금씩 다른 마트나 집밥식당들이 대부분이다. 지금 휴새기 마을에 주로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신지가 짐작이 됐다.

재개발을 시작하는 마을이 대부분 그렇듯이 휴새기 마을도 하나둘씩 빈집이 늘어나며 잠깐이라도 빈집을 싼값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근처 노동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분들이신데, 낯선 땅에 와서 가족을 위해 일을 하시는 이분들은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영화 ‘국제시장’을 연상시키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활을 최대한 줄이며 살아가는데, 휴새기 골목 상가들의 주 고객이 이분들 이다보니 불필요한 업종은 자연스럽게 도태 되었구나 싶었다.

**휴새기 마을 작은 골목을 들어가 보자**

휴새기 마을의 넓고 큰 메인 길을 벗어나 나뭇가지처럼 자잘하게 뻗어 있는 작은 골목길을 들어가 보았다. 골목의 크기는 차가 들어갈 정도로 꽤 큰길도 있고, 어떤 골목은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작은 길도 있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눈으로 봐서 크다고 생각하여 들어간 길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길이었는데, 너무 비좁아 들어가 볼 엄두가 나지 않았던 작은 골목길을 들어가 보니 길 끝에 아이들의 비밀 공간처럼 넓은 마당이 있고 그 윗 골목하고도 직통으로 통하고 옆

골목으로도 바로 통하는 비밀통로였다.

유년의 시간에 나와 동네 친구들은 약속을 한 듯이 ‘큰마당’이라는 곳에서 모여 놀았는데 딱 그 큰 마당이 생각나는 공간이었다. 어린 아이들 키 높이에선 영락없이 이곳은 큰 마당이었다. 저런 작은 골목 안에 이런 공간이 있다니 골목이 주는 재미는 노상 쓸쓸하다. 이곳을 지나 좀 더 위로 올라가 봤다. 역시 지나온 길과 같이 좁은 길인데 마을의 어르신께서 양산을 쓰시고 익숙하게 골목을 빠져 나가신다. 이 길이 도무지 어디로 통해 있는걸까? 그 작은 골목 끝에서 만난 것은 흙새기 마을 유래와 함께하는 ‘초원연립’이었다. 초원연립은 지나온 시간을 말해주듯이 화단엔 풀이 우복하고 건물은 나이 먹은 모습으로 자연의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작은 골목에서 시작한 이 길은 어디로 어떻게 통해 있을까?

궁금하여 초원연립을 나와 좀 더 골목길을 어슬렁거렸다. 그 곳은 여태 지나온 골목 보다는 좀 넓었다. 그런데 이 골목은 1년 혹은 2년 후면 없어질 마을 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 벽에 밋밋하게 나 있는 문은 특징 있는 색으로 단장하고, 담 밑에는 초록의 상추가 자라고 있고, 작은 화분들은 문의 서터 밑에서 별을 받고 있었다. 또한 주황빛의 키 큰 나리꽃은 담 밖을 기웃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였다.

한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골목길. '자유를 위해' 남서는 누가 썼을까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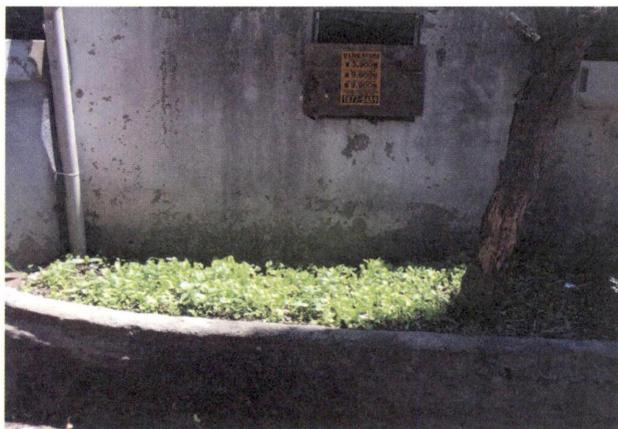


작은 골목길 안에서 만난 또 다른 세상. 이곳에서 있노라니 아이들이 모여 노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지금의 초원엔림 모습 전은 헬고 조경으로 심어 놓았던 나무들만이 무성하게 자랐다



편안한 골목의 모습

이 골목을 빠져 나오니 마치 산을 에돌 듯이 골목이 곡선을 이루며 골목의 이곳저곳이 어딘가로 통하며 뚫려 있었다. 그 길을 살펴보니 한쪽은 문화예술회관으로 통하는 길이고, 또 다른길의 끝은 더샵 아파트와 맞닿아 있다. 좀 더 걸으니 휴새기 마을의 메인 골목 윗부분과 닿아 있고 이 길에 있는 ‘동네 슈퍼’와 ‘해성정육점’을 지나니 바로 수리골을 재개발하여 새로 건설한 하남의 신도로가 나왔다. 이 신도로를 건너면 매달 4일, 9일에 5일장이 열리는 덕풍시장인 것이다. 사람하나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그 작은 골목길은 휴새기마을의 모든 길과 하나로 통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용케도 그 길을 알고서 그 골목길을 이용하며 이웃과 만나고 소통하며 살았던 것이다.

**휴새기 마을의 요즘 모습은 어느 재개발 지역의 고층과 마찬가지로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한 마을이 통째로 다른 시간을 준비하는 일이니 누군가에게는 좀 더 배분됐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덜 배분됐을 것이라는 짐작은 한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해맑은 짐작일 뿐, 손해가 생긴 당사자들 입장이라면 마을이 좋아지건 말건 억울한 마음이 들것이다. 마을 곳곳에 나뉘어 있는 개발 반대에 대한 현수막이 하필 어린이집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며 생경한 느낌이었었는데, 하긴 그것은 나의 선입관에 기인한 것이라는 반성을 했다.

더운 날 땀을 흘리며 어슬렁 거렸던 휴새기 마을에 대한 소견을 마무리 지으려니 노래 한 소절이 떠오른다.

“긴 하루 지나고 언덕 저편에 빨간 노을이 붉게 물들고, 놀던 아이들은 아무걱정 없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럼 ‘들국화’의 노래 ‘사랑한 후에’ 첫 구절이다. 이 노래의 가사는 들국화 멤버 중 한분인 전인권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썼다고 한다. 이 노래의 첫 구절을 들 때마다 나는 유년의 시간 그 곳으로 지체 없이 돌아간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친구들과 별의 별 놀이를 다하며 골목길을 뛰어다녔고, 큰 마당에는 동네 아이들의 떠들며 노는 소리로 노상 시끌시끌했다. 하루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놀고 있으면 골목 여기저기서 엄마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용금아- 희숙아- 명숙아- 희자야... 저녁 먹어라!” 그러면 저 노래 가사처럼 놀던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집으로 하나 둘 돌아갔다. 마을의 골목길은 조용해지고 골목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다.

**나는 마을의 골목길을 좋아한다**

그 길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아하는 편이다. 내가 마을의 골목길에 왜 이렇게 천착하는지는 스스로 명확하게 이유를 말 하기는 어려우나 혹시 ‘사랑한 후에’ 첫 소절처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혹은 그 시절 친구들과 정신없이 웃고 떠들었던 유년의 따뜻한 기억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실 흙새기 마을에서 나의 유년을 떠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는 있다. 어릴 적 내가 살던 마을 보다는 훨씬 도시화된 마을이고 큰마당을 떠올렸던 골목 안 넓은 마당도 그리 크게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요즘 아이들은 더 이상 골목에서 놀지 않으며 놀 시간도 없다. 그럼에도 이제 흙새기 마을 정도에서 느낄 수 있는 골목의 정서조차도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 마을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없다. 다만 스스로의 기억 속에 푸근함으로 자리한 골목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흙새기 마을의 요즘 모습



# 흙새기 사랑방 사람들의 이야기

강경숙

## 내 기억 속의 사랑방

나의 어머니가 하던 방앗간은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사랑방이었다. 사람들은 배가 아프거나 체하면 어머니께 찾아와 침을 놓아 달라고 했었다. 아기가 놀라 경기를 일으켜도 어머니를 찾아왔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서슴없이 바늘로 침을 놓아 주는 엉터리 의사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나왔다고 다시 찾아오곤 했다. 내가 본 우리 어머니는 꼭 인디언 추장처럼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 그러니 사랑방 역할을 하는 방앗간에는 사람들로 늘 북적였다.

앞으로 1, 2년 후면 없어지는 흙새기 마을을 조사하기로 하고, 마을을 어저거리다가 더우니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며 ‘하남은행마트’에 들어갔다. 우리끼리만 먹으려고 샀던 아이스크림인데 은행마트 사장님을 보는 순간 “사장님도 하나 드세요.”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사장님의 인상이 푸근하고 친숙한 느낌이었다. 이렇게 흙새기 마을의 사랑방인 ‘하남은행마트’ 사장님과 인터뷰를 시작했다.

하남은행마트 사장님은 하남시 ‘나룻’이 고향이었다. 나룻이 개발되면서 미사동에서 함바 집을 하며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하였고, 그 후 신장1동으로 이사해 하남은행마트를 개업했다. 마트 주변에 은행나무가 많아서 은행마트란 호칭을 쓰게 되었고, 근 20년간 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다. 은행마트 사장님은 70대 후반이라는 연세에도 불멸더위에 가게를 지키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이 나의 어머니와 닮았다.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잊었던 어머니 모습이 떠올라 내 정신은 온통 은행마트 사장님에 꽂혔다. 아이스크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은행마트는 요즘 보기 드문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었다. 재개발로 마을 사람들이 떠난 자리는 방세가 싸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졌고, 그들 역시 이 사랑방의 구성원이 되고 있었다.



마트 앞 평상 사랑방

변호사 할머니와 함께



### 사랑방 사람들

#### \_마을을 대변하는 변호사 할머니

은행마트 사랑방에 모이는 할머니 중에는 말을 잘해서 변호사 할머니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 변호사 할머니는 대전 관저리에서 태어나 13살까지 살다가 그해 종로3가에 있는 이모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모님은 그동안 데리고 살던 조카딸을 울지로 6가에 사는 신랑과 결혼을 시켰다. 그 후 변호사 할머니는 여기저기로 이사를 많이 다니며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돌아다니는 포장마차를 시작한 변호사 할머니는 전국에 축제나 행사에 참가 했다. 함평의 나비 축제를 비롯해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축제, 고추축제, 사과축제, 등 축제나 행사가 있는 곳은 어디든 다니셨다. 전국 8도를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자연의 절경과 도시의 풍취를 구경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 세상 속 이야기를 가슴에 그득 담아 언제라도 꺼낼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을 지니고 있었다. “내가 아파서 집안에만 누워있어도 여행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단 한 군데 제주도를 못 가서 아쉬워”하고 말씀하셨다. 장사를 그만두면 할아버지와 함께 제주도와 백두산을 가기로 약속했는데 장사를 하다가 그만 할아버지께서 암에 걸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는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다. 25년 전 하남시 덕풍동 대웅빌라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15년 만에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부담금이 없어 10년 전 휴새기 마을로 이사를 해 하남 은행마트 사랑방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나 휴새기 마을이 사라지면 할머니는 또다시 풍산동에 있는 새뜰 마을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한다.

변호사 할머니는 행동반경이 넓어 동네 사람의 소식을 많이 알고 있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분이시다. 그분의 별명이 말해 주듯이 할머니께서는 연로하셨음에도 말씀 전달이 정확하셨다. 하여 가끔 사람들의 억울함을 대변하신다. 하루는 노인정을 갔는데 재미로 화투를 치다 거금 5천 원을 잃고 슬퍼하는 꼬부랑 할머니를 보았다. 재미로 친 화투라서 잃은 돈을 되받을 수 없지만 대신 돈 탄 사람을 흠씬 나무라기도 하였다. 변호사 할머니가 하는 일 중 또 하나는 은행마트 사랑방에 할머니들이 그득 앉아 있는데 골목으로 점잖은 사람이 지나가기라도 하면 ‘뽕’을 뜯어 아이스크림에 시원한 음료까지 한턱 거하게 쓰신다. 이뿐만이 아니다 혹여 사장님이 바쁘시더라도 하면 물건을 팔아주기도 하고 사장님이 심심하실까봐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친구가 되어 주셨다. 어느 날 변호사 할머니는 다리를 수술하게 되었다. 연로하신 분이 수술까지 하게 되었으니 몸의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았다. 혼자서 움직이기가 불편하시니 당연히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했다. 하는 수 없이 아들 곁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으나 변호사 할머니는 이곳 은행마트 사랑방이 그리워 2달 만에 다시 이사를 왔다. 내가 보기에 변호사 할머니께 은행마트 사랑방은 외로운 마음을 치료해 주는 최고의 의사였다.

**고부랑 할머니와 이웃집 할아버지**

지난번 은행마트 방문 때 변호사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연세가 90살이 넘는 고부랑 할머니가 너무 궁금해 저녁 늦은 시간에 은행마트 사랑방을 찾아갔다. 고부랑 할머니 인상은 단아하고 예뻐서다. 할머니는 남대문이 고향이었는데 특무상사이셨던 할아버지께서 예쁜 할머니에게 반해서 돈을 싸 들고 결혼하자고 쫓아다녔다. 몇 번을 도망 다녔으나 결국 못 이기고 결혼하여 필동에 보금자리를 장만해 신혼의 단꿈을 꾸며 살았다. 어느 날 부모 형제가 없던 남편은 1년이 지나자 울진에 부모님을 뵈러 가자고 하였다. 경북 울진까지 간 할머니는 시집이 부자인 줄 알았는데 말도 못 하게 가난하여 실망하고 돌아왔다고 했다. 구의동으로 이사를 하여 몇 년 살다가 다시 하남시 덕풍동에 이층집을 장만했는데, 할머니께서 잠시 외출한 틈에 할아버지께서는 집값을 많이 준다는 사람의 꾀에 속아 집을 팔았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주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그 돈으로는 다른 집을 살 수가 없어서 신장1동에 더 작은 집으로 이사 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하남 은행마트 사장님과 인연이 되었고 그 후 아파트 바람이 불던 해 한 번 더 상계동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가 7년 전 하남시 덕풍3동으로 돌아와 하남 은행마트 사랑방의 가족이 되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젊은 사람들도 움직이는 것이 버거운데 할머니께서는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같은 먼 곳까지 가서서 이웃 할머니들의 필요한 물건까지도 사다 주신다. 변호사 할머니는 고부랑 할머니가 사다 준 핸드폰 가방을 메고 나오셔서 자랑하시는데, 고부랑 할머니의 미적 감각은 젊은 우리를 뺄 수 있을 만큼 세련되었다. 고부랑 할머니는 예리한 눈썰미는 사랑방의 일원으로 자리 잡기에 충분했다.

아무리 연세를 드셨어도 할머니들 속에 혼자 계시니 자연 숙스러움이 많으신 할아버지는 할머니들 곁에 오시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앉아 젊은 시절 막노동을 경험하신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으셨다. 이제 그 대가가 이 집 한 채 남았다고 뿌듯하게 생각하셨다. 할아버지는 이 사랑방의 청일점이셨다.



하남시 덕풍3동 은행마트 사랑방의 할머니들

**새로운 사랑방 주민, 외국인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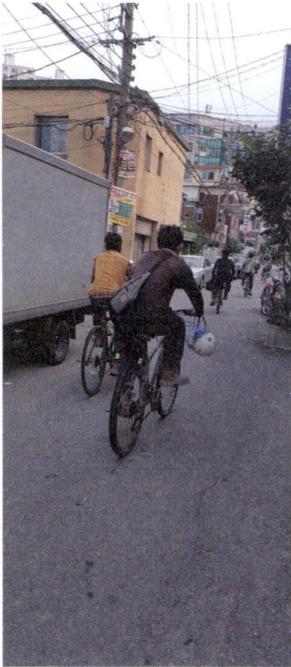
도시 재개발로 흙새기 마을에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하나둘 셋.....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요즘 흙새기 마을 골목에 잠시만 서 있으면 외국의 어느 도시에 있는 것만 같다. 은행마트 사장님은 낯선 곳에 이제 막 이사를 와서 어설프기만 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수호천사다. 올해의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 선풍기 하나 없이 여름을 보내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집에서 쓰던 선풍기를 가져다주시고 이웃들에게 말해서 남은 선풍기를 구해 나누어주기도 하신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러 가는 시간에 택배물건을 받지 못하자 마트 일로도 바쁘고 귀찮지만 대신 받아주기도 하였다. 외국인들은 은행마트를 통해서 낯선 골목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퇴근해서는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인 은행마트 옆에서 무더위를 식히며 먼 곳에 사는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전화를 하며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은행마트 사랑방은 외국인 노동자라는 또 다른 팀이 이어가고 있다. 은행마트 사장님은 “여행사에서 일하는 아들이 외국 여행을 많이 다니니 내가 이곳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잘해 주어야 내 아들도 밖에 나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하는 마음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있다. 낯선 땅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3 40년 전의 우리 아버지 오빠들의 모습으로 오버랩 되는 것이 지나친 내 느낌은 아닐 것이다. 다문화 센터 상담교사와 인터뷰할 때 “우리나라도 노동력을 수출해서 이만큼 이나마 살게 된 나라”라고 열변을 토하던 모습이 생각났다.

**사랑방 사람들의 관계**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은행마트 사랑방은 이웃과 관계가 아주 좋다. 변호사 할머니는 서로를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 은행마트를 스치는 사람들의 외로운 마음도 어루만져주기도 한다. 이렇게 사장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90살의 고부랑 할머니는 먼 곳에 있는 시장을 여행자처럼 다니신다. 할머니의 세련된 미적 감각은 멋스러운 물건을 선택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건강한 정신을 소유하셨다.

사람들의 관계는 끊어질듯 이어졌고 여기에 기대어 흙새기 마을 사랑방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은 연로하신 어르신 몇 분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찾아와 마지막 사랑방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마트 사랑방은 흙새기 마을이 사라지면 어딘가로 떠나야 하지만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 사람들이 모여” 하며 환한 웃음을 지으시는 모습은 어느 곳에선가 은행마트 사랑방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퇴근하는 외국인



# 외국인 노동자들의 휴새기 마을살이

오현주

길가에 반기고 서 있는 노란 해바라기, 작은 화분에 키워 놓 꽃이며 식물 등 낡은 주택에 세월이 묻어나는 골목길, 장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를 허름한 간판, 더욱이 눈길을 잡는 것은 집 근처 공터에 가득 자라고 있는 호박이었다. 호박 덩굴손은 허공으로 손짓하고 무엇보다 반가웠던 활짝 핀 미소 짓는 호박꽃, 그 주위로 무성하게 푸르른 호박잎들이 있었다.

70년대 내가 살던 동네와 비슷했다. 나의 부모님께서는 ‘행길가’에서 자영업을 하셨다. 극장에서 나온 분이 영화 홍보를 위해 영화 포스터를 우리 집 가게 문에 붙이고 그 대가로 영화티켓을 받았다. 그 영화티켓으로 공짜 영화를 보러 간 추억은 엄마와 나의 유일하고도 비밀스러운 문화생활이었다. 도시개발로, 스무 일곱 해 내가 나고 자란 친정집이 이사 가던 날 어머니는 못 내 서운해 하셨다.

“이 집만큼 편안한 곳을 못 찾겠구나 ”

새 보금자리를 구하시며 하신 말씀이다. 낡고 허름하고 불편했지만 당신 자식들을 낳고 기른 곳의 추억이 무엇보다 소중한지라. 반평생을 사신 곳이 어찌 다른 곳과 비교 될까..... 어디선가 읽은 ‘집은 기억과 생각과 따스함이 가득한 원초적 공간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준다’는 글귀가 떠올랐다. 내 집을 품은 동네, 휴새기 마을에서 이런 느낌은 이어졌다.

휴새기 마을에 분 재개발 바람은 어떤 이에게는 희망으로 다가왔겠고, 어떤 이에겐 잃어버릴 공간, 빼앗길 추억어린 내 집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무언가의 변화를 타의에 의해 가져야 할 때 보상이 주어지겠지? 그 보상을 노리는 외지 사람들이 사고파는 과정에서 보증금도 없이 싼 가격에 들어와 살고 나가는 외국인 노동자들, 영화 국제시장이 떠올랐다.

60,70년대 낡은 독일 땅에 가서 광부, 간호사로 일했던 많은 한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을 통해 번 돈을 가족들에게 보내 한국경제가 크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들, 휴새기 마을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가 싫어하는 곳에서 일하는 한국 시장 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다.

초저녁 동네 길목에서 알아듣지 못 할 말소리가 들린다. 와이파이가 터지는 집 담 밑에서 외국인들이 통화하는 소리이다. 그들은 고국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말하고 또 말한다. 얼마나 그리울까 나를 잡아주는 끈 가족이란 얼마나 큰 희망인가.

밭목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 형태의 전통의상 룻지를 입고 걷는 분을 보았다. 미얀마 전통의상 이라고 한다. 광명마트 앞 건물에 사시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때 마침, 말끔하게 생긴 옛된 청년이 집 밖으로 나왔다. “어디서 오셨어요?”하니 한국말을 알아듣고 “미얀마”라고 짧게 말했다. “어디서 일하세요?” “건설 현장”이라고 말하고는 자전거를 타고 달려갔다.

할머니께서는 외국인들이 주변 건설 현장이나 지하철 공사장에서 일하고 돌아와 맥주를 즐겨 마신다고 했다. 마시고 난 맥주병을 모아서 할머니에게 준다고 한다. 할머니는 고마워 아이스크림이나 먹을 것을 사다 주면 그들은 사양하며 그러지 말라고 한단다. 그들은 주위사람에게 공짜는 거절한다고 한다.

그 골목길에서 미얀마 글씨의 간판을 단 트럭을 본 적이 있었다. 그 트럭에서 퇴근한 외국인들이 차례로 줄을 서서, 무엇인가 사들고 가는 것을 보았다. 마을큐레이터로 조사를 하면서 그 트럭을 보기 위해 여러 번 발길을 했는데, 우연하게 한번 본 이후 만나지는 못했다. 주민 분들께





여쭙어보니 그 트럭은 그 나라의 식재료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오는데 정기적으로 온다는 분도 계시고, 외국인들이 전화해서 오기도 한다고 하였다. 폭염이 2주 넘게 계속 되는데 냉장차도 아닌 그 푸드 트럭이 오기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들은 식사를 광명마트, 은행마트, 동네마트 등에서 식재료를 사서 해먹기도 하지만 하남문화원 건너편 5,000냥 가정식 백반 집을 많이 이용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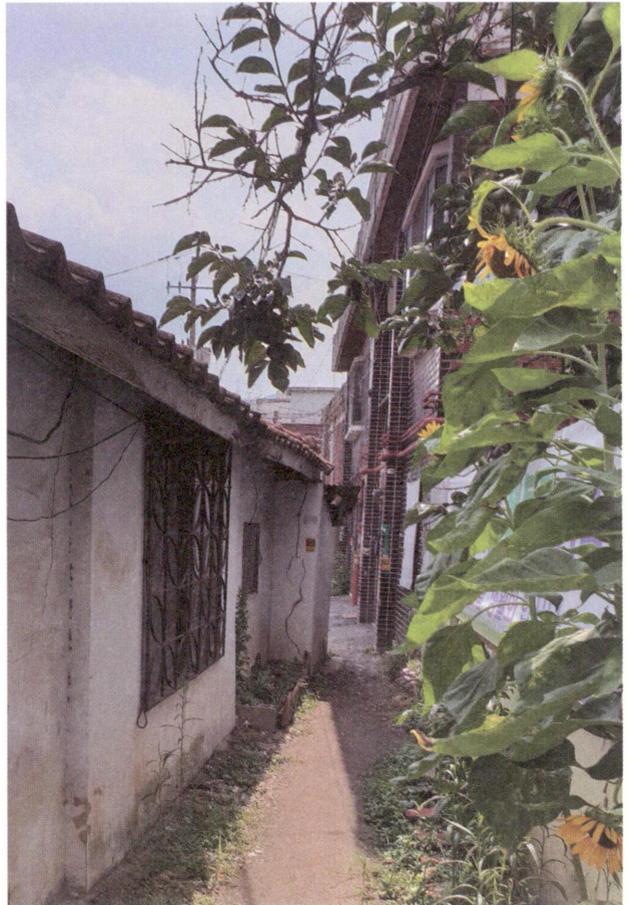
고향이 중국 연변이라는 분과 다문화 센터 선생님을 만났다. 시중보다 훨씬 싼 가격에 식사를 해결 할 수 있어서 자주 온다고 한다. 다문화 센터 선생님께서 한국사회에 외국인과 결혼이주가 정이 늘고 있는데,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 때문에 갈등과 반목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 사회에 결혼이주민가정,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불어 잘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 흙새기 마을 골목 놀이 전소민

아파트 단지 바로 건너편 도로를 사이에 둔  
왼쪽 주택단지가 흙새기 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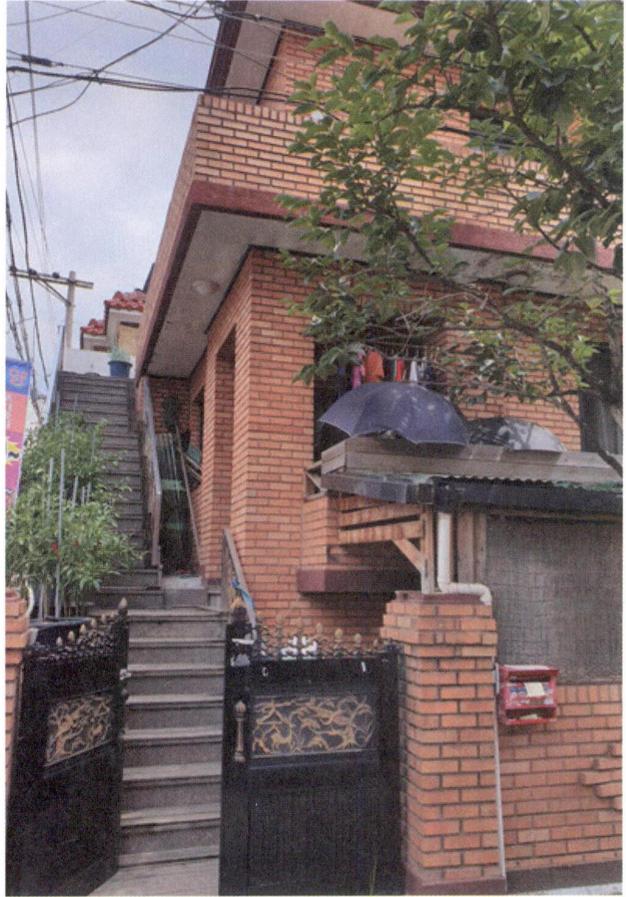
흙새기 마을의 땅을 밟으니 어릴 때 놀  
던 놀이와 풍경이 기억난다.  
자연 그리고 이웃과 친숙했던...



집집마다 약속이나 한듯 초록잎들이 즐비하다.  
나는 어릴적 누구에게 배워서 놀기보단  
눈앞에 보이는 자연물을 가지고  
들. 셋 모인 동네 무리들과 나름의 규칙을 정하며 놀았다.

이곳 흙새기 마을은 그날을 떠올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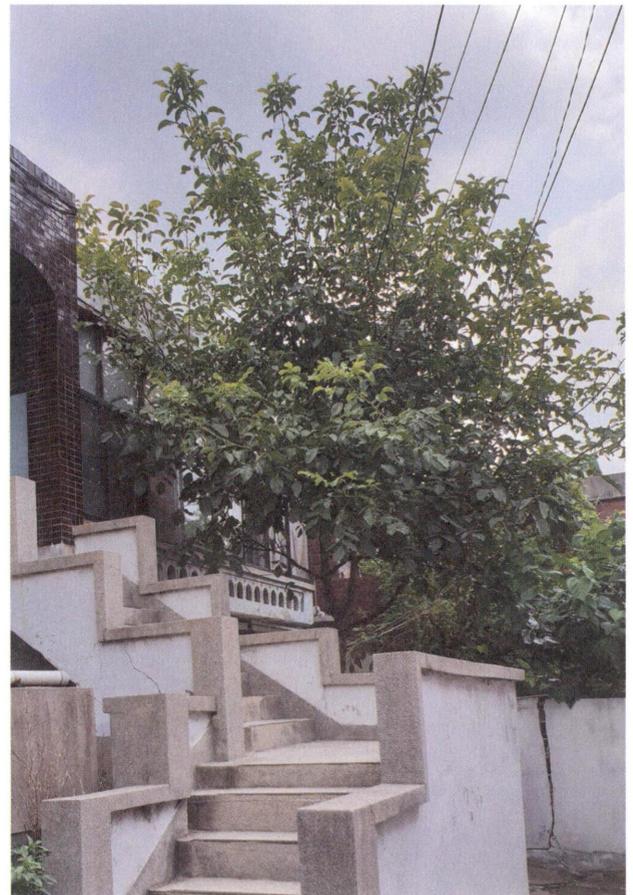


기억나세요?  
우리집 철창 대문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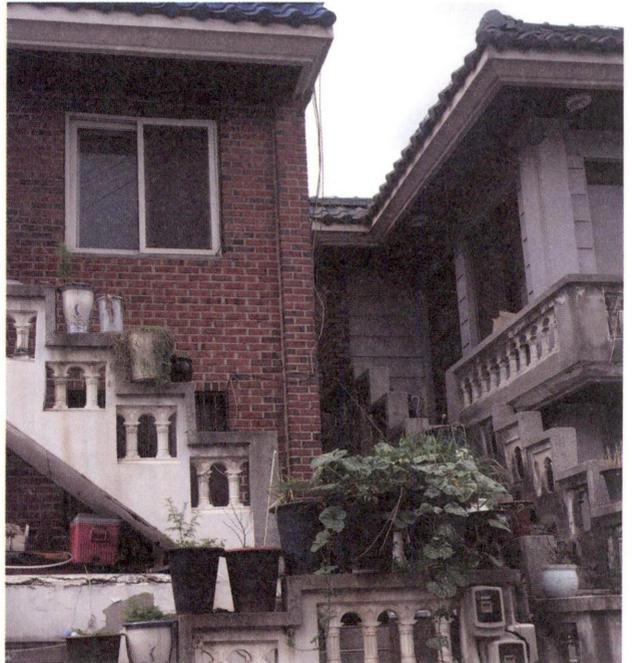




남의 집이 아닌 우리 집 앞 놀이터.  
계단곳곳 틈새마다 숨기대장 숨바꼭질 잡기 놀이터.



알고 계셨나요?  
담장의 역할이 내 집의 철벽방어가 아닌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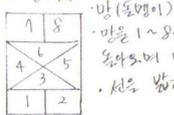


내가 자란 동네 또한 이러했기에 특별할 것 없이 지냈었던 자리들을 엿볼 수 있었다. 옆집 간의 담장은 그저 서로간의 신뢰의 담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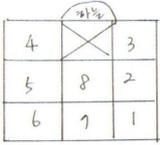
동네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마을을 어슬렁거리는 누군가도 나처럼 옛날 추억거리 하나쯤은 떠올릴 것이다.

나는 이야기다. 지금 이순간 이 시대의 이야기라는 의미를 가지게 해준 흙새기 마을이었다.

<사발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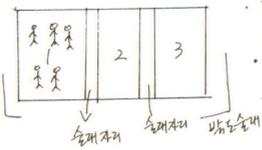


· 발 (돌맹이)  
· 발을 1~8까지 돌아가며 던져 놓은 다음에 변위 7,8까지 갔다가 돌아오며 발을 주워 줘야 함.  
· 선을 밟거나 발을 주우는데 땅을 걸으면 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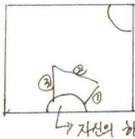
· 망 (돌맹이) : 대각선 5번에 정도의 압착한돌이 유려함.  
· 발을 1번 칸에 던진후 4번칸 (혹시없는 돌발, 짝수칸은 1발로) 계속 발을 차서 (압착발, 한발만) 하는까지 가는 게임.  
· 이 부분은 3번칸에서 발을 4번칸으로 보내야 함.  
· 하나까지 가면 발을 던질수 있는 딱히 손으로 받아야 함.  
· 많은 발을 갖고서 1번칸 밖으로 돌아와야 함.  
· 2발을 발을 2번칸에 던짐. 이걸식으로 8번칸까지 정복해야 함.

<사냥놀이>



· 좁은칸에 속대돌이 들어가 1번칸에 있는 사람들을 2번, 3번칸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한다.  
· 속대가 던져지면 죽는것임.  
· 3번칸까지 1사람이라도 가면 이긴 게임.

<양따먹기>



· 1.5cm ~ 2cm 정도의 유리조각이나 사기 조각. 압착한돌이유려함.  
· 한발의 양으로 0시작.  
· 자신의 양에서 시작하여 3번만에 자신의양으로 되돌아 들어야함.  
· 남의 양을 지나 감속 없음.

<공기놀이>

· 5발 공기 놀이  
· 많은 공기 놀이  
· 3번에서 공기놀이 할만한 돌맹이를 치마에 가득가득 주워들. 사정한 아래서그늘에 다 싣아놓고 하는 공기놀이.

<알뜰박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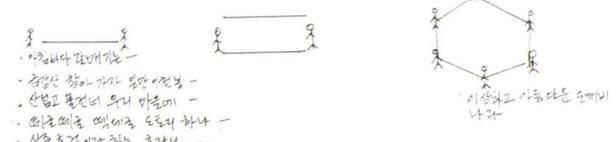
· 길을 나눠 이진 텀이 불타라고 지킴이 인드라는데 1 사람은 텀에 가에이 시시 올라 타는 텀라 가지막 가위 바위보를 해야함.  
- 무공하점이 되었습니까 -  
-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  
- 우리집에 왜왔니 왜 왔니? -  
· 우리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갖 왔으니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무슨 잘못 했으니 왜 왔니. (상대편 1사람을 지목하며) 정답이 잘못 왔으니 가위 바위 보.  
· 이기면 이 지목한 잘못 데리고 오고 지면 본인이나 상대편으로 가야함.  
· 숫자가 많은편이 이기는 것임.  
- 다방구 -  
- 속대잡기 -  
- 뭍속채비 띄이 (압착한 돌)  
- 거북아 거북아 천정골에 새집 다오 - <모래놀이>  
- 모래 깎발 쓰러 뜨리기 -  
· 조공성 보래 제거하며 깎발 쓰러 뜨리지 않다가 이기는 게임.  
- 널뛰기 -  
- 연 날리기 -

<정원대 만들노>

- 더위팔기 -  
- 휘발놀이 -  
- 옥밭에서 단상에게 소원받기  
· 짚을 자신의 나이 만큼 매듭을 짓는다.  
· 짚의 끝에 붉은물인죽 단상을 향해 소원을 빈다.  
· 거의 다 타고 남은 손잡이 부분을 관군데로 모아 그 부분을 뒤로 넘으며 소원을 빈다. (라방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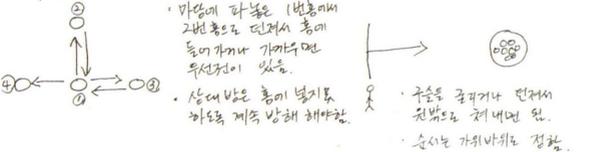
<교부글 놀이>



<가지기>

· 흙이 흙을 파고 작은 막대기를 쪼개 놓는다.  
· 긴 막대기보다 더 많은 작은 막대기를 쪼개서 튀어 오르게 해야함.  
· 습대는 천년 작은 막대기의 위치를 긴 막대기를 뽑아내 되는지 판단함.  
· 긴 막대기의 숫자가 더 많으면 이긴.

<구슬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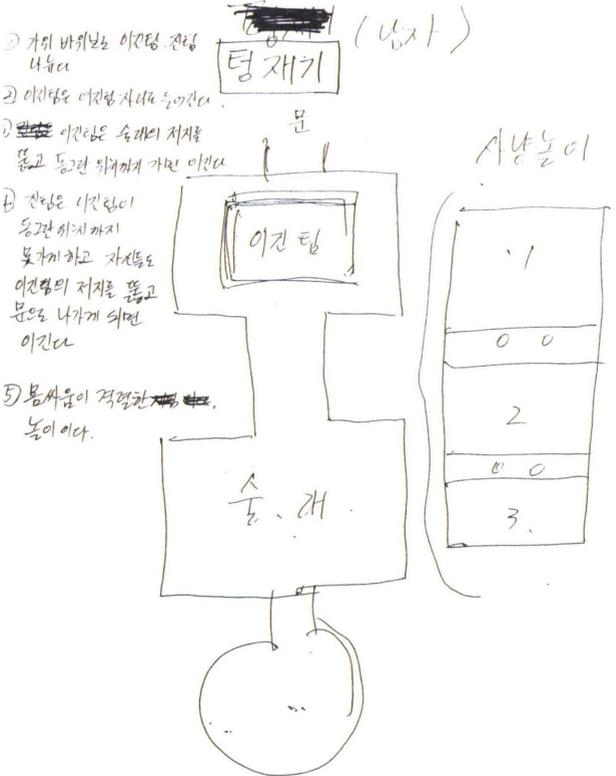
· 가발에 파놓은 (반통에) 2번용으로 던져서 흙이 들어가거나 가버리면 유선전이 있음.  
· 상대방은 흙이 날지못하도록 계속 방해 해야함.  
· 구슬을 굴러가나 던져서 진보므로 천년만 함.  
· 손사는 가위바위로 정함.

<비석가기>

(제)  
· 땅에 놓은 돌을 압착한 돌을 세워서 놓는다.  
· 땅에 놓은 돌을 압착한 돌을 돌려놓고 선에서부터 크게 구멍을 간다. 압착한 돌을 세워서 놓은 돌을 향해 던져서 세워서 놓은 돌을 넘어뜨린다.  
· 구멍을 다듬면 2구멍. 2구멍 다듬면 1구멍. 나뭇잎 선에서 던지면서 날이오를 올려간다.

<편치기(여제)>

· 소편. 못편.  
· 선에서 편을 던져 원 안에 넣어야함.  
· 원 밖이 왔는 편은 손잡이로해서 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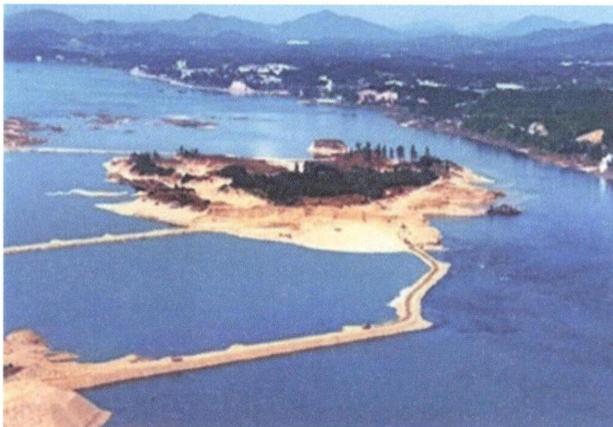
**하남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사 조정경기장이다**

올림픽대로를 따라 팔당 방향으로 계속 달리다 보면 미사리 조정경기장이 자리하고 있다. 잔디와 조정호수 사이에는 울창한 숲과 넓은 잔디밭, 잘 단장된 산책로가 있고, 잔잔한 호수를 누비며 호젓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미사리는 추억을 만들기에 정말 좋은 곳이다.

미사리는 88서울올림픽 당시 조정, 카누경기가 열렸던 곳으로 43여만 평의 대지 위에 10여만 평의 인공호수와 잔디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직사각형의 이 조정호수는 평균수심 3m에 폭이 140m, 길이가 2km가 넘는 규모로 주변에 마치 용단처럼 깔린 잔디와 잘 어울려서 아주 아름답다.

**미사섬은 한강 가운데 위치한 커다란 퇴적섬이다**

오랜 세월 동안 한강의 퇴적물이 쌓여 형성되었으며 특히 사면이 아름답고 고운 모래밭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 모래가 물결이 치는 것 같이 아름답다 하여 미사라고 부른다고 한다. 미사강변은 백제의 수도인 위례성 일대에 위치하고 있고 기원전 6년 부터 370년 까지 백제의 도읍을 유지하고 있다가 해제되었으며 이후 여러 행정구역을 개편을 거치다가 1989에 비로소 지금의 행정구역을 갖추게 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강의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미사섬

**몇 년 전만 해도 조정경기장 옆을 따라 수많은 카페들이 카페촌을 형성했다**

밤이면 불야성을 이룰 정도여서 새로운 분위기 촌으로 각광을 받는 곳이었다. 이곳 카페들은 분위기도 좋지만 라이브 무대가 아주 유명하여 추억의 노래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도심의 북적거림을 벗어나 통기타 가수들의 노래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매력이 더해지며 입소문이 나면서 대표적인 카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우리는 이곳을 취재하여 옛 명성을 되찾고 싶었다.



라이브 카페의 현 위치



미사리 라이브 카페

**라이브 카페의 현 위치**

라이브 카페의 미사리의 명성을 기필코 되찾겠다는 신념아래 누군가는 명맥을 유지해야 한다면 “나 혼자서라도 남아서 라이브 카페의 발상지인 미사리의 상징성을 꼭 지켜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열애의 대표자 오균아 인터뷰 내용 중)” 모든 카페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음식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테네’는 가마골의 고기집으로 ‘로마’는 색동면옥집으로, ‘영클름’은 현대건설의 오피스텔 현장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러한 변화를 오균아 대표는 이렇게 설명한다. 첫째로는 가수들의 고액 개런티가 문제였다고 한다. 인기가수만을 선호하는 손님들의 눈높이 때문에 천정부지로 뛰어 오른 출연료와, 두 번째로 주변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돼 과거의 호젓한 드라이브 코스 분위기가 사라진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현 시대에 맞는 미사리의 카페를 상상해 보았다**

몇 해 전 폐업하던 ‘문글로우’ 라이브 카페가 생각이 났다. 강대관(78, 트럼펫), 이동기(74, 클라리넷) 등 60-70대 노장들로 구성된 재즈 1세대들에게 정기적으로 무대를 마련해준 클럽으로 경영난으로 폐업을 예정이었던 곳이었었는데 팬들에 의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다. 이 사연이 알려진 뒤 문사모(문글로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결성되었고 추억을 공유한 모든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 주고 건물주도 월세를 동결해줘 클럽을 계속 운영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낭만적인 이야기가 생각났다. 모든 것이 추억이 있는 팬들에 의해서였다.



사진: 문사모, '문글로우' 라이브 카페 공연

**라이브 카페의 발상지인 미사리의 상징성을 되찾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있는 그 자체에서 새롭게 재탄생인 것이다.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만들어 주고 거품을 뺀 요즘으로 부담 없이 분위기 있는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라이브까지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면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 생각해 본다. 비쌀 것 같은 라이브 카페 선입견도 바뀔 수 있도록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제2의 “문글로우”가 되지 않을까. 연인끼리 친구끼리 또는 가족끼리 추억을 만들던 그곳, 그런데 지금 그곳이 나에게 그립고 필요한 것이다. 유현준 건축학과 교수는 인간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인간을 만든다고 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추억의 도시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젠 정감 있던 예전 미사리 동네의 모습도, 내 젊음의 열정도 많이 사라졌지만 내 귀에 들리는 노래만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몇 십 년을 거슬러 그 추억으로 돌아가 내 귓가에 맴돌고 있다. 미사리 카페의 가치가 하남에 더해진다면 우리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삭막함에서 벗어나 예술의 공감의 안식처가 될 텐데 오늘도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한다.

# 특별한 열애

이상숙

미사리카페 성업시기에 나는 결혼하여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 키우고 늦게 시작한 공부하느라 학교, 집, 직장을 톱니바퀴처럼 돌면서 여유라고는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숨 막히는 시간들이었다. 그때 나의 친구들은 하나 둘씩 공부를 마치고 자리를 잡고 있을 때였다. 나는 그때가 시작이었다. 목숨을 걸 정도로 잠을 안자고 공부를 하느라 에너지를 모두 쏟아 탈진 직전이 나의 일상 이었다. 가장 힘이 들 때 한 친구가 직장으로 불쑥 찾아왔다. 공부 이후 만남이 뚝 끊어진 나를 위하여 하남까지 찾아온 것이다. 조용히 힘내라고 나를 안아주고 토닥이며 가만히 바라봐 주었다. 지금도 그 눈길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눈길의 뜻은 애처로움 그 자체가 아닐까? 그 친구는 모든 공부를 다 마치고 변호사가 되어 왕성하게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어서 나의 눈에는 한 없이 부러워만 보였다. 그러나 현실은 몹시 힘이 들었다.

그 당시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맡아 돌보아 주셨는데 무슨 문제인지 오해가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공부를 그만 두어야 하나 하는 갈등의 시기였다. 난 그 친구를 보고 아마도 울었나보다 하염없이 울고 있던 나를 향해 분위기 바꾸자며 아무 소리 말고 따라오라고 했다. 그냥 무작정 따라 간곳이 미사리 카페의 열애였다. 그곳은 화려한 조명과 기타소리가 들렸으며 들어가는 입구에 TV에서만 보던 가수들의 브로마이드 대형사진 들이 즐비하게 걸려 있었다. 친구는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할 때면 이곳에 들려 차를 마시고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들으며 위로를 받는다고 하였다.



카페 열애

밖은 화려한데 비하여 조용히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었다. 양하영이라는 가수였다. 애절하게 노래를 부르며 눈가가 조명에 반사되어서 인지 눈물이 고여 보였다. 내 마음이 슬퍼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잠시 했다. 운이 좋게도 바로 공연이 시작하였는지 30분 정도의 모든 공연을 다 볼 수 있었다. 30분의 공연 내내 가수를 본다는 신기함도 있지만 모든 분위기가 왜 이곳까지 라이브를 보러 오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마지막이라는 멘트를 들으며 나도 모르게 한국 더 라는 간절함이 묻어났지만 이내 가수는 그런 마음도 모르고 인사를 마치고 가버렸다. 객석이 이내 조용해지자 젊은 남자분이 메뉴판을 들고 주문을 받으러 왔다. 나는 주문서를 보고 너무 놀랐다. 커피 한잔에 2만원이며, 낙지 덮밥은 2만8천원, 돈가스는 3만원 정도였다. 속으로 주문서를 보면서 차만 마시겠다고 하자 친구는 돈 걱정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시키라고 하였다. 나는 2천원이 싼 덮밥이 먹고 싶다고 하자 2천원이 더 비싼 돈가스를 시켜 주었다.

분위기 때문인지 그 돈가스는 참 맛이 있었다. 지금도 그 맛을 생각하면 군침이 돈다. 이런 저런 이야기 등을 나는 것 같은데 너무 시끄러워서 서로의 귀에 귓속말로 속삭였다. 귓속말로 대화를 하자니 더 정겨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껏 웃고 즐기던 그 시간만큼은 공부의 고단함도 힘들도 모두 잊을 수가 있었다. 다시 불이 꺼지면서 공연이 시작되었다. 파마를 하고 몸에 꼭 끼는 청바지를 입고 너무나 작고 왜소한 가수는 윤시내씨였다.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는지 소리의 울림통은 사람의 심장을 파고 전해 주는듯하였다. 열애의 숨 막히는 가사 전달은 나도 모르게 숨을 멈추게 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음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하는 사람은 없었다. 너무나 정막하여 바스락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혼신의 힘으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서 혼과 육이 분리하지 않고 몽땅 불살라 재가 되어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었다. 그 당시 힘들고 우울하던 모습 속에 대견함을 찾았고, 두 손을 꼬옥 잡아주며 힘내라고 위로해주는 친구가 있고, 혼신으로 부르던 윤시내씨의 진한 에너지를 느끼면서 열정으로 무엇이든 한다면 모든 신이 나를 도와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는 공부도 마칠 것이고, 자식도 클 것이며 모든 문제도 사라지겠지.....미리 감사하자, 난 공부를 이미 마쳤고, 성공을 했다는 믿음으로 결과를 미리알고 가는 한 과정인 것뿐이라고, 마치 축구 결과가 우리나라가 승리한 것을 알고 보는 tv하이라이트처럼 난 이미 모든 것을 다 극복한 목표에 이른 모습을 상상하였다. 그래 난 초조해하지고 말고 힘들어 하지도 말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가짐을 하였다.

라이브 카페에서의 윤시내 가수



엘레 카페에서 가수 브로마이드

노래를 마치고 나가는 윤시내씨에게 나는 다가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했다. 아주 작고 차가운 손을 만지면서 한번 더 내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었다. 그 이후로 난 마음이 복잡하거나 힘이 들면 혼자서 윤시내 씨의 공연을 보러 갔고 커다란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 내가 알고 있는 가수들 중 사람에게 전달되는 에너지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였다. 또한 그 때 그 시절의 또 다른 위안을 받았던 가수들 중에는 동행의 최성수씨와 미사리의 서태지, 박강성씨,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의 임희숙씨가 기억에 남는다. 멋진 가수분들이라 지금도 생각을 하게 된다. 난 그 뒤로 정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미리 감사한 마음으로 애썼다. 나의 목표는 어느 사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더운 여름날에서 이제는 찬바람이 살짝 새벽녘에는 여민다. 이제는 나도 나이가 먹었나 보다. 옛날이 그리워지니 말이다. 다른 사람들은 언제 나이가 들어감을 느낄까? 나는 내가 알고 있던 가수들이 방송(TV)에서 다 사라지고 안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요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내가 늙어 감을 느낀다. 그토록 젊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최성수씨가 무대에 나오는 것이다. 가요무대는 어떤 프로그램인가 이미지, 나훈아 남진씨 등 원로가수들 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70, 80년대 가요계를 주름잡던 가수들이 출연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함께 늙어 가는구나 생각해 본다.

늙음은 추억을 엮고 가는가 보다. 그 시절의 미사리로의 라이브여행은 내 삶이 가장 어려울 때 세상살이가 덜 고달프도록 심의 메시지였기에 오늘은 설렘 그 자체였다.

# 누구없소

## 정정자

나의 고향은 전라북도 정읍군 신태인 백산리이다. 이암부락이라고도 불리는데 마을 자체가 잔메산의 돌이 많아서 이암부락이라 불리기도 했다. 나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이었다.

그때 나의 친정아버지께선 간경화증으로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 항상 외동딸을 남기고 돌아가시게 될까봐 괴로워하셨다.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시집을 보내게 된다면 마을사람들에게 애비 없는 자식 취급받을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몇날 며칠 고민하던 끝에 동네에 공개 구혼하셨다. 옛날에 새마을 운동을 할 때 쓰던 확성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아버지는 친히 말씀을 하셨다.

“동네 사람들 나를 도와주시오!!! 나 정주표의 외동딸이 있는디 내가 몸이 많이 아프니 모든 사람들이 협심하여 중매를 부탁드립니다.”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이 마을 저 마을 이웃 주민들이 서로 중매를 하겠다고 자기 일처럼 술선수범하였고 몇 번의 맞선 끝에 지금 남편에게 시집을 가라 허락하셨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 스무 살이 되는 해 나는 8살 연상의 서울 사람에게 시집가게 되었다. 당시 남편은 서울에서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소가죽 북, 하모니카, 실로폰 등 음악교재 세트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졌다. 난생 처음 기차타고 서울 온,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철부지 촌색시로 결혼생활이 시작 되었다.

고등학교 꿈꿨던 시절



나의 친정아버지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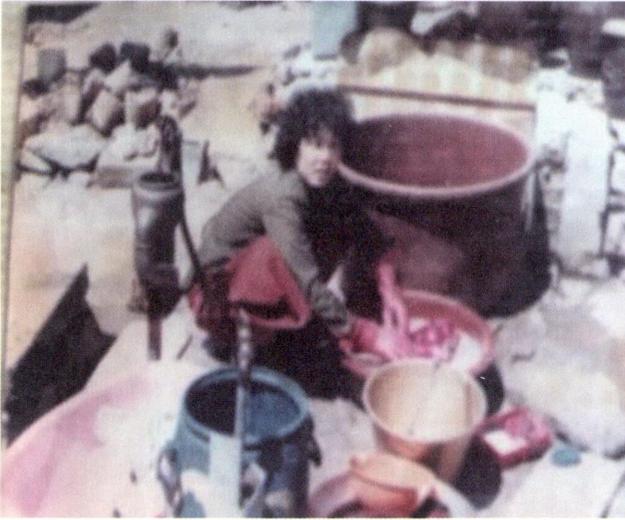
약혼사진



약혼 식사



펌프가 있는 우물



펌프인 자라네 아이들

살림집 근처에 호박밭을 개조하여 공장을 만들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날 그날 식재료비를 타서 삼시세끼 공장식구 밥을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겨울 김장을 할 때면 배추 500포기를 해야 했으며 고추장 된장을 담그는 것은 기본이었다. 물은 펌프질로 해서 길어 왔는데 추운 겨울이면 펌프가 열기 때문에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가져와 부어서 녹여야 했다. 펌프질이 처음인 나는 물을 조금 넣고 살살 달래면서 아래에서 위로 폼을 물을 끌어 올리는 기술도 배워 익혀야만 했다. 남편은 가정사 보다 공장에 많은 신경을 쓰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78년도의 겨울은 무척이나 추웠다. 서울은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는 홀로 외로움을 견뎌야만 했다. 고향을 항상 그리워하며 낯선 곳에서 모든 일을 해 내야 했다. 특히 힘든 부분은 힘듦을 말로 하지 못하는 거였고 이것은 서서히 안으로 끓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힘이 들어서 친정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터미널 까지 하염없이 걸어갔다. “저 버스만 타면 집에 갈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나는 타질 못했다. 아프신 아버지가 나로 인하여 더 병이 심해지시면 어찌하나 등등 한참이나 터미널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집으로 울면서 돌아 왔다. 잔메산에 올라 나의 미래를 꿈꾸던 시절이 이런 것이었나 몇 번이나 되뇌곤 했다. 하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마음을 가다듬으며 세월이 가면서 나에게 아이 둘이 생겼다. 큰애는 아들이었고 그 밑으로 딸을 낳았다.

1998년 어느 날 IMF가 찾아 왔고 우리 사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연쇄 부도로 인하여 심한 타격을 받게 되어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어서 하남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다. 하남은 서울에 비하여 그린벨트가 많아서인지 자연환경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고, 매우 조용했으며 많은 전봇대가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남편과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낙담하는 단계였지만 의외로 담담했다.

카페 로마(왼쪽)와 지금의 모습(오른쪽)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나오라고 전화를 받고 따라가 보니 남편이 데리고 간 곳은 미사리 카페였다. 미사리의 카페 중 로마를 가게 되었다. 화려한 간판, 줄지어 서있는 주차장의 붐빔, 들어가는 입구에 유명 가수들의 브로마이드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정말 텔레비전에서 보던 가수들이 나오는지 의심하기도 하였다. 안은 어두웠지만 음향시스템의 커다란 울림에 나는 더욱 놀랐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노래 소리에 맞추어 박수도 치고 따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름 모를 가수인데 노래를 어찌나 잘 부르던지 나도 모르게 감격하고 있었다. 비트가 강한 드럼 소리는 나의 호흡과 맞아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고 흥분되었다. 남편이 팔을 끌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할 때야 비로소 정신이 들 정도였다.

돈가스 값도 커피 값도 놀랄 만큼 비쌌지만 가수를 직접 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 했다. 어디 가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모였고 어떤 한 가수가 노래를 하러 나왔다. 머리는 흑인 파마를 하고 조명을 받으니 빨간 색 옷은 더욱 짙어졌다. 신발을 신지 않는 맨발의 가수 한영애였다. 그녀의 음성은 매우 힘이 있었고 고음에서는 영혼을 되살리는 전율이 일어나는 느낌이었으며 그 음성을 들은 나는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살았다는 생각과 이제까지의 수동적인 삶에서 깨어나는 왠지 모를 눈물이 났고, 힘이 생겼으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졌다. 나도 저 가수처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새로운 내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맨발을 움직일 때 마다 불끈 올라오는 동맥의 즐거움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손이 쥐어지며 지금의 나는 버리고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면서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강렬한 자극을 받았다.

그 뒤로 나는 두 아이의 엄마로 사업을 하는 남편의 내조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적어도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주도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한다. 그로인해 모든 일이 참 잘 풀렸고 아이들 또한 건강하게 잘 자라 주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건강을 위해 수영, 하모니카, 켈리 등을 배우며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내가 있게 도움을 준, 조명 밑 빨강색의 한영애를 다시 만나고 싶어졌다. 나에게 용기를 주었던 그곳은 어떻게 변해져 있을지 카페 로마를 찾아가고 싶었다. 마치 처음으로 그곳에 갔던 흥분된 느낌으로...

그러나 로마는 없어졌으며 그곳은 떠들썩한 색동면옥의 음식점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좋은 계기가 된 추억 장소를 그동안 한번도 방문하지 못 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 번 나 자신에게 반문하여 본다. 바쁜 세월이었나? 비싼 커피값? 아니면 혼자 오기가 버거웠나?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던 그 가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카페의 주인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의 추억을 어디에서 찾을까, 새로운 계기의 분홍빛의 추억은 내 가슴에만 남아있는 것일까, 그냥 단 한번이라도 맨발의 한영애를 만나 내가 당신에게 용기를 얻고 이 어려운 하남의 삶을 잘 살 수 있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다. 모두가 꿈이었던가! 한영애의 맨발로 절규하던 그 노래 “누구 없소”가 그 의미였던가.

# 덕풍 5일장

선상 사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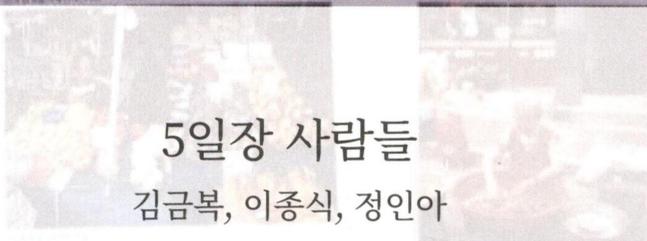
③ 7월 3

주일  
 선상  
 선상  
 선상  
 선상  
 선상

주일  
 선상  
 선상  
 선상  
 선상  
 선상  
 선상  
 선상  
 선상  
 선상

선상 사거리

주일  
 선상  
 선상  
 선상  
 선상



## 5일장 사람들

김금복, 이종식, 정인아

덕풍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 전통5일장의 경우 5일  
 마다 장사하러오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마을주민은 아니지만  
 마치 마을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마을이 생기면서 함께해온 외부  
 인으로 마을살이의 일부를 담당한다. 지금은 상설가게가 함께 공  
 존하는 이곳 덕풍시장 사람들을 안내한 기록이다.



## 덕풍5일장, 사람 구경 하러갑니다

### 이종식

덕풍5일장은 하남의 대표적인 5일장으로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에 장이 열린다. 사람 사는 냄새와 훈훈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덕풍5일장!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장이 서는 날이면 여전히 시끌벅적하다.

덕풍시장 통로는 구길과 신길이 교차되고 길게 뻗는 통로는 약400m가량으로 각종 물건들이 채워져 있다. 각종 야채, 과일, 생선, 곡식, 건어물, 맛나 보이는 간식과자, 건강식품, 약재, 기타 등등 기존가게 앞에 즐비 들어 서서 진열 해 놓고 각각의 식품들이 푸짐하고 싱싱해 보여서 우리의 시각, 미각을 자극한다. 스타필드, 이마트 등 대형 마트가 많이 있지만 그곳과 달리 흥정하는 맛과 덤 등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어 좋다.

장이 서는 날이면 차량이 통행하기 힘들 정도로 혼잡하지만 하남시와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공영주차장과,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등 옛날보다 규모가 많이 확대 되었다. 오늘은 장날(9일)이라 일찍 나가 봤더니 하나, 둘 정해져 있는 자리에 물건을 펴기 시작하고 9시-9시30분까지는 모두 정리가 되는 듯 했다. 일부는 물건이 비싸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생산자가 직접 팔기도 하고 깎을 수도 있어 더 달라고 하면 덤을 얻는 재미도 있어서 좋다.

석전건어물가게 아저씨가 회장님이라고 소개 받아 이것저것 물어봤다. 시장 초창기부터, 30년 이상 되었다 한다. 인터뷰한 시장 과일가게와 건어물가게가 제일 오래 되었다. 점포수는 대략 150개-200개 정도가 된다. 오늘은 즉석 도너츠가게, 시장 과일가게, 각종 화장품 종류가게, 다시마 미역가게, 각종 생선가게를 인터뷰 했다. 5일 마다 장이 서는 전국곳곳을 다닌다.

생선가게 옆에 삼거리에는 한달에 2번 프리마켓도 열린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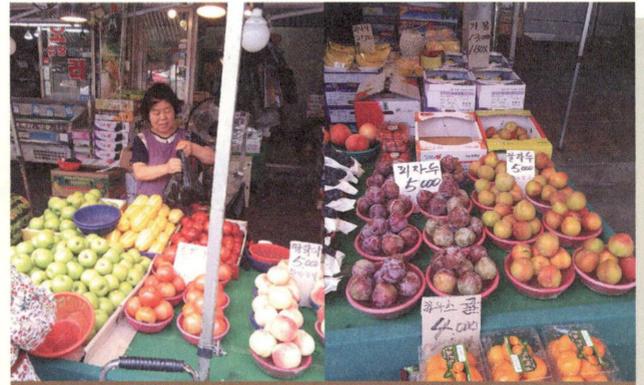
옛날 엄마 언니 누나의 손을 잡고 구경삼아 따라 다녔던 나이 든 세대들이 향수를 달래던 곳으로 남이 있기에 보여 주고 싶은 곳이 너무 많다. 가끔 일산에 사는 손녀가 오면 손을 잡고 덕풍장을 찾는다. 노점에서 파는 옥수수, 빵튀기, 도너츠를 사서 먹으면 너무 맛있고 재미있다. 초등학교 2학년 손녀도 할머니와 같이 시장 도는 걸 너무 재미있어 한다. 그림일기 숙제를 장구경한 걸 그린다고 한다. 손녀가 나중에 커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휴일 날 장이 서는 날이면 교회에 다녀와 오후에 남편과 같이 가끔 덕풍장을 간다. 이것저것 사서 검은 봉다리에 싸서 들고 시장 한 바퀴 구경을 다닌다. 때로는 아외의자가 있는 흥어집, 급창집, 때로는 빈대떡집에 들러 막걸리 한 모금 먹으면서 남편과 옛날이야기 나누며 오가는 사람들 쳐다보며 나누는 저녁시간은 평화롭고 정겨운 나의 힐링의 장소다.

개인적으로 재래시장 덕풍5일장이 오래 유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즉석 도너츠 (좌판)

- 파배기, 도너츠, 잡채어묵 도너츠(팔이슈, 팔없슈) 판매
- 덕풍장 장사는 5년 되었음
- 용인(2일,9일), 춘천풍물시장( 5일,10일) 장사함



시장과일가게 (기존가게)

- 덕풍5일장 장사 30년 이상 됨. 각종과일 취급
- 초창기부터 시작
- <석전건어물, 과일집이 제일 오래되었음>



각종 화장품 종류가게(좌판)

- 덕풍5일장 장사는 7년 되었음
- 김포장 (2일,7일)과 오산장(3일,8일)에서 장사함



다시마 미역가게(좌판)

- 원주장( 2일,7일),평택장(3일8일)에서 장사함



각종 생선가게(좌판)

- 덕풍5일장 장사는 30년 되었음
- 철원 장날, 양평장날 장사함

**NO Allergy**

allos + ergo → 다른 작용  
(다른, 다른) (Action, 역할)

정말이 아닌, 관련 없음

**기아지 농부**

경안 가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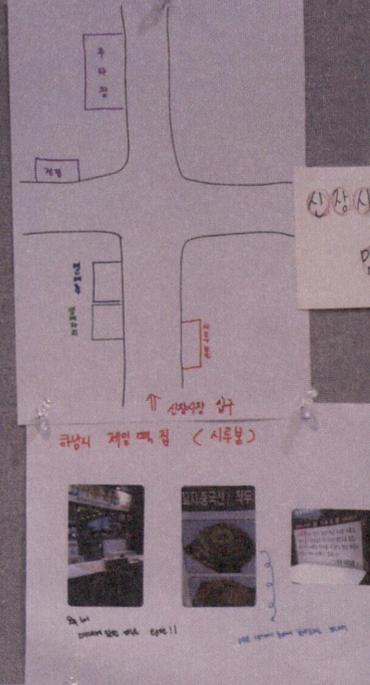
경기 하남시 옥산면대곡리 533

농부정원 (농부, 정원)

가정집 정원 2

**“대안마을의 사랑”**  
시간이 쌓인 사랑

**기아지 농부**



**동경조 산채나물**

**< 갈매초 & 갈매자리 >**

## 특별한 사람을 위한 자연스런 식당

노은정, 원지현

우리동네 떡집 찾기에서 시작된 이 팀의 활동은 알고 있는 것만큼 떡집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면서 알려지가 심한 참여자의 경험을 반영하여 소수자를 위한 식당 찾기로 선회하였다. 알려지 있는 사람들은 집을 나선다는 것이 두렵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하남을 방문하게 된다면 내 경험을 공유한 특별한 이곳을 안내하고 싶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기록이다.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 소수자를 위한 먹을 곳을 다양하게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남 동경조 산채나물**

경기 하남시 신항동 37

산채나물 & 영양달걀

**시리우 시간의**  
**경곡길**

## 알러지가 있으시다면 여기! 추천합니다

노은정

“생일 축하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생일 축하 합니다.”

자라면서 내 기억 속에 엄마가 사랑한다 애정표현을 ‘말’로 하는 일은 생일잔치 같은 일이었다. 물론 평생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테지만. 일 년에 한번 생일노래를 빌려 ‘사랑해요’ 말해 본다.

국민학교 점심시간에는 엄마의 도시락 손편지가 엄마의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도시락을 열면 나비모양으로 곱게 접은 쪽지가 도시락 위에 먼저 보인다.

“사랑하는 우리 딸, 즐거운 점심시간 되세요.”

급히 연습장을 뜯어서인지 스프링 자국대로 구멍이 죽 뚫려있는게 보인다. 그 바쁜 아침시간에 도시락편지를 써주신 마음이 더 곱다.

1987년. 7살에 국민학교에 입학했다.

난 8살 친구들 보다 나이도 한 살, 생각도 한 살 더 어려웠다. 선생님이 무얼 설명하는지 알 수 없어 멍 때리고 말없이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친구들은 가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나를 멀리했고 시간이 지나보니 그 행동이 따돌림 이라는 것을 알았다.

엄마가 곱게 접은 도시락 쪽지와와 즐거운 점심시간. 담임선생님은 밥과 반찬을 남기지 않았는지 학생 한 명씩 교탁으로 불러서 검사를 한다. 그의 시선은 무사통과하는 아이들을 제쳐두고 내 차례가 올 때 쯤 ‘오늘도 역시’라는 표정으로 반찬통을 들여다본다. 선생님은 오늘 나에게 할당된 김치를 다 먹을 때까지 내 옆에서 지켜본다. 나에게 숨이 턱 막히는 교탁 앞에 앉혀지지 않는 일이란 사랑을 말하는 생일 노래처럼 아주 가끔씩 성공하는 일이다.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나물과 김치를 입으로 자신있게 가져가는 일은 일 년에 한 두 번이다. 10살의 어린 나에게게는 김치를 씹어 목구멍으로 넘기는 자연스런 행위가 불편했다. 그 망할 놈의 김치를 넘기려 아무리 노력해 봐도 넘어가지 않았다. 씹어

도, 씹어도 입속 반찬의 질량은 1그램도 줄지 않는다. 난 오늘도 반찬을 남길 것이 뻔했고, 내 손바닥에 붙이날 것이 두려웠다. 아침에 일어나 정성스레 도시락을 싸주신 엄마에게는 미안하지만 차라리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에 버릴까하는 나쁜 생각을 매일 했다. 질경질경 씹으면 씹을수록 넘길 수 없는 나물의 식감은 마음도 즐겁지 않게 했다. 엄마가 써주신 손편지가 전하는 즐거운 점심시간은 이렇게 공포의 시간으로 변했다.

시간이 흘러 날씬해야한다는 몸매의 강박관념이 심했던 20대가 된다한들 편식은 여전했다. 물론 10대에도 그랬었지만. 편식을 꾸준히 한 탓에 내 키는 160센티미터를 넘기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골고루 밥에 김치도 나물도 가리지 않고 잘 먹었다면 롱다리가 되어 있었을까?’ 작은 키는 편식이라기보다는 유전의 영향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지만 한번 먹어볼걸 그랬나 싶기도 하다.

이런 식습관은 30세가 되면서부터 편식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알러지.

듣기만 해도 가려운 세글자가 나에게 찾아왔다. 알러지 검사를 위해 병원에 수 백 만원을 썼다. 알러지는 원인물질을 확실히 규명할 수 없으니 평생 항히스타민제를 복용 하라는 담당의사의 해결법은 생각보다 유쾌하지 않았다. 이렇게 치료 받느라 들은 시간보다 더 두려운 건 바깥 활동에 제한이 온다는 것이다.

가려움이란 꽤나 고통이 심한 질환 중의 하나라고 한다. 모기에 물린 붉은 반점이 온몸으로 번져 나간다. 손이 닿지도 않는 곳까지 가려운 느낌을 안고 밤새도록 잠을 설친다. 혹시 먼지가 많아서 가려운건 아닐까 싶어 새벽2-3시에도 침구를 다 벗겨내어 털어내고 새것으로 교체하는 일을 일주일에 한두 번은 했다.

12년 전.

유독 나의 26살 여름은 누구보다도 말라있었다. 나는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신고서 도장이 채 마르지도 않은 4주 만에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만을 가면 마냥 행복 할 것 같은 상상을 하지만 여행이 아닌 삶이 된 현실에 적응하기 바빴다. 말도 안통하고 아는 사람도 하나 없어 독백을 많이 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외국인 친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하지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다.

이민 후 1년이 지난 2007년. 외국생활 후 처음으로 친정을 찾았다.

공항 입국장의 ‘Departure’ 와 ‘Arrival’ 간판이 눈에 더 먼저 들어온다. 겨우 몇 달 외국에서 살았다고 영어만 먼저 읽히는 자신

이 단순하다는 것을 실감한 후 엄마 아빠가 어디있는지 입국게이트를 한바퀴 둘러본다. 인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나와 눈이 마주친 엄마는 눈이 빨강게 울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옷자락을 잡고 운다. 타국 멀리 보낸 딸 가진 친정 엄마의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사 흘러내린다. 내가 그 마음을 헤아리려면 아마도 나도 내 나이 만큼의 자식을 낳고 기르는 시간이 더 필요하리라. 비행기표 살 여유가 없어 친정부도 초대하면 못하고 사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여전하다.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다 온 가족이 다시 모이는 자리는 식사가 빠지지 않는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데 나에게도 지긋지긋한 알려지라는 정반대의 기능도 함께 주셨다. 환경이 바뀌니 음식이 바뀌고, 음식이 바뀌니 신체가 변화한다. 다만 적응이 느렸던 탓에 해외 체류 기간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았고, 그 결과 체중이 8킬로그램 가까이 줄어들었다. 가족모임으로 가장 먼저 간 곳은 하남의 기와집 순두부 집이다. 그동안 적응 하느냐 마느냐 싸우다 말라비틀어졌던 몸에 영양보충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싶어 선택한 곳. 값이 비싸 좋은 음식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말라있던 영양보충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싶어 선택한 곳이기도 하다. 식당 뒤쪽으로 등산로가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오는 바람을 얼굴로 접하니 양쪽 폐가 트이는 기분이다. 게다가 순두부라니, 까맣게 속색이던 피부가려움도 뽀얀 순두부처럼 변하지 않을까.

지난 2018년 7월 말, 다시 기와집순두부를 찾았다.

특별한 식당 하나  
- 하남 기와집 순두부 -



«기와집 순두부 매니저 박병혁님과과의 인터뷰»

**재료는 어디서 구하나?**

농수산물 센터에서 도매로 사오고 있으며, 기와집 순두부에서 양념을 해서 제공한다. 기본 김치, 오가피, 숙주나물은 거의 같다. 계절에 따라서 한 두가지 멸치나 버섯, 유자청이 들어간 연근은 손이 많이 가서 아쉽지만 메뉴에서 사라졌다.

**경영마인드는 무엇인가?**

맛있게 제공하는 게 기본. 콩은 국산 콩을 써서 다른 곳 보다 약간 비싼 경향은 있지만 기와집 순두부 식당 옆 건물에서 손으로 만들고 있다.

**보통 하루에 만드는 양은 얼마정도 인가?**

콩 14kg 두 바구니를 담아 갈아서 내면 큰대야로 4개가 나온다. 순두부그릇으로 120그릇이다. 주말에는 12-13개 정도 만드니 하루 종일 쉴 틈이 없다.

**오랜만에 와보니 생각보다 대기시간이 길었다. 대기번호표 뽑고고 프린트로 기와집순두부가 주식회사라는 걸 발견했다.**

경영은 주식회사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대기시간은 사람이 밀리는 시간에만 길고 주말에는 15분 정도 대기해야 한다. 앞뜰에는 작은 분수가 있고 뒤로는 등산로가 있어서 경치구경하면 대기시간이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식당에 가지 않고 계곡에만 가는 사람들의 차도 식당 주차장에 세울 수 있나?**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의 주차를 굳이 막지는 않는다. 웬만하면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분들은 세워도 무관하다.

**가장 인기음식은 무엇인가?**

들깨탕이다. 맛대맛 이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되었다.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이다.

**알려지 있는 사람으로서 만족한다.**

**아이들에게도 추천할만한 메뉴가 있나?**

아이에게 추천하는 메뉴는 하얀 순두부이다. 그만큼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정직한 메뉴이기 때문이다.

기와집순두부는 2007년에 방문했을 때보다 더 많이 성장해 있었다. 손님 수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찾아가기 부담 없는 곳으로 가격을 유지해주는 일이 쉽지 않을 터인데, 손님에게 제공하는 순두부 메뉴의 맛이 처음과 다름이 없었다. 주말을 담당하는 박병혁 매니저는 인터뷰한 것을 오히려 감사해 하며 그날 음식 값을 받지 않았다.

특별한 식당 들  
- 하남 동경주 산채나물집 -



«동경주 산채나물집 임병범 사장님과의 인터뷰»

음식은 사장님이 직접 만드시나?

우리음식은 모종도 사지 않고 직접 재배한다. 겨울에는 보온 덮개를 매일 10시간씩 덮어준다. 특히 요즘 같은 8월 여름에는 모종이 잘 안된다. 채소는 고온 보다는 서늘한 곳에서 잘 자란다.

가게오픈은 언제 했나?

1995년도에 했다.

가짓수가 많은데 어떻게 나물을 전부 준비하나?

내가 재배하는 것 이외의 나물은 경동시장에서 부탁해 놓는다. 돈은 흥정하지 않는다. 철칙이다. 나물로 된 반찬을 제공하는 식당이 거의 없다. 공짜로 만들 수 있는 나물은 없다. 시간이 만들어낸 것이 나물이다. 단골고객도 단번에 생기지 않았다. 나의 방법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한 것이다.

동경주 메뉴판이 독특하다. 왜 새로운 메뉴판으로 바꾸지 않나?

국선작가가 붓글씨로 하나씩 썼다. 창호지 위에 쓴 글씨가 전부 다 다르다. 이 메뉴판은 하나하나 각기 다 다르다. 메뉴판 자체에도 자부심이 있다.

메뉴연구는 어떻게 하나?

시간이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만들어내는 반찬은 한 가지도 없다. 모종을 기르다보면 병충해가 생겨서 일 년 농사가 어그러질 경우도 있다. 그래서 생각한 제일 좋은 농약은 산에 가면 쌓이는 낙엽. 일년에 한 번씩 낙엽을 썩혀 30센티 정도 덮어주면 병충해가 사라지고 그게 바로 유기농이 된다.

후계자는 누구인가?

딸이 맡아서 하고 있다. 딸에게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일은 신용이라고 말한다. 이 일은 하루도 쉬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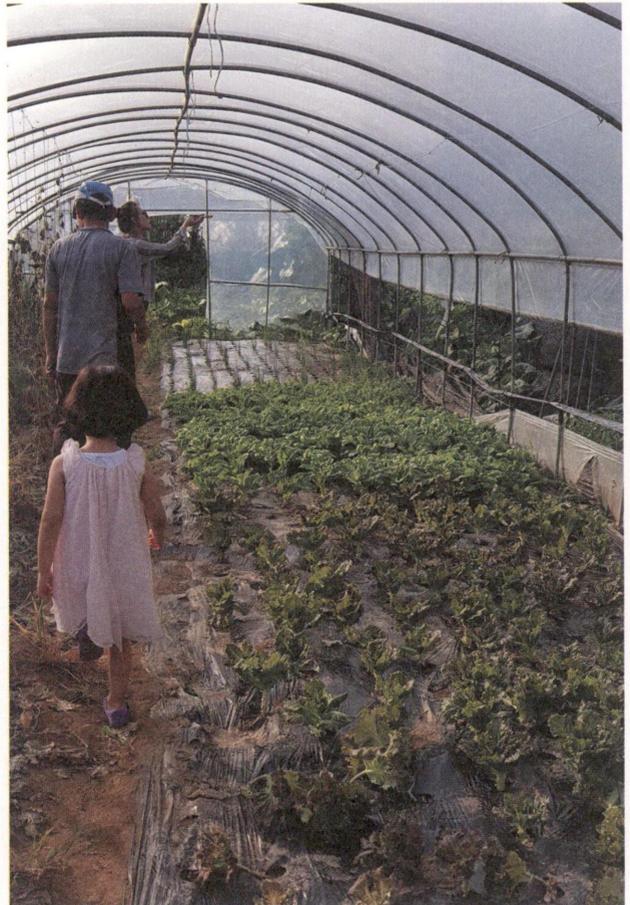
어떤 동경주가 되었으면 하나?

누구나 편안하게 밥 먹으러 왔으면 한다. 손님이 나를 믿고, 내가 손님을 믿는. 나물은 화나는 음식이 아니다. 나물은 맵고 짜고 복잡한 음식이 아니라 쉽게 화가 나지 않는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식사를 하고 가시면 나도 좋다.

편식이라면 일등을 하는 나와는 달리 남편은 김치하나만 있어도 밥을 잘 먹는 사람이었다. 라면 한번 안 끓여본 내가 결혼해서 뭘 해 먹을지 고민도 많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불만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요리라고 하면 미안할 신개념 창조물을 남김없이 먹어주었고, 설거지와 뒷정리는 그의 몫이었다. 특히 나물과 김치를 좋아했다. 쌀밥만 있으면 계란 반숙에 참기름 한방울 넣어 김치뿐인 식탁에도 미소를 지으며 땀을 뻘뻘 흘리며 먹어주는 모습이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신기했다. ‘이사람 혹시 맛이 없는데 맛있다고 하는 건가?’ 의문도 들었다. 그 덕에 나도 나물반찬과 김치를 조금씩 시도해보았다. 먹어보니 별거 아니었다. 아니, 너무 맛있었다. 이 맛을 늦게 알아서 미안할 만큼 나물이 맛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지금은 요리할 일이 없지만 특히 그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은 잡채. 나물과 당면을 따로 따로 볶아내려면, 손도 많이 가고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종목이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10년 동안 시간을 내어 만들어주다 보니 어느 정도 맛도 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있었다. 재료 하나하나 길러야 하는 땀의 시간과 노력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음식이다. 그간의 신뢰가 없으면 나오지 못하는 결과물. 흔히 보이는 잡채라는 요리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과정이 있다는 것에 놀란다. 젓가락질 몇 번에 24절기를 견뎌낸 12가지 나물을 입으로 가져갈 수 있다니 모든 밥상은 공짜가 아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나물은 포기해야한다. 신뢰가 그렇다.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동경주 산채나물밥은 매일 찾아도 부담스럽지 않다.



기록지

문화

도시

**창조도시 예감!**

- 고속도로 4개
- 한강 광담호 (하천 11%) 수도용지 1km
- 녹지 53%
- 문화 2곳
- 9% 개발시 10% 공원화
- 여형 문화: 스퀘어드
- 미사리 조경 경기장
- 남한산성 경수원, 연극장, 병력포함
- 조성장 (배양 비물)
- 삼덕 취정 (덕풍, 삼곡 방형)
- 풍수정, 방정정

**덕풍천, 사용설명서**  
염광숙, 임경재

여기의 기록은 하남에 이주한 사람들의 덕풍천 예찬이다. 늘 있어왔던 것을 다르게 읽는 것은 외지인의 눈이다. 두 참여자가 작성한 덕풍천에 대한 기록은 하남 시가지를 길게 가로지르는 덕풍천의 소중한 아름다움에 대한 기록이며 시민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삶의 경험을 투영한 제안서이기도하다.

여기의 기록은 하남에 이주한 사람들의 덕풍천 예찬이다. 늘 있어왔던 것을 다르게 읽는 것은 외지인의 눈이다. 두 참여자가 작성한 덕풍천에 대한 기록은 하남 시가지를 길게 가로지르는 덕풍천의 소중한 아름다움에 대한 기록이며 시민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삶의 경험을 투영한 제안서이기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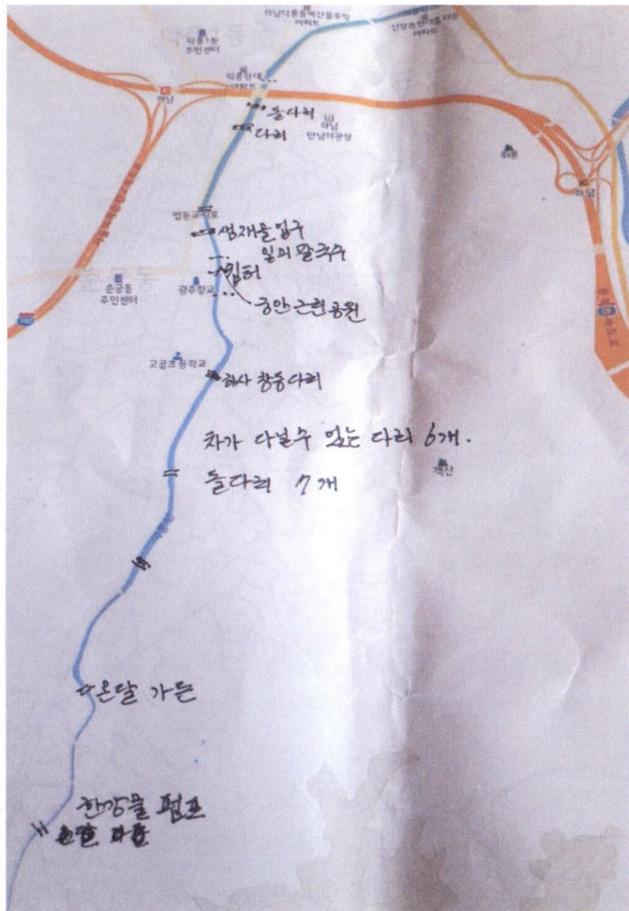


## 덕풍천, 어디까지 가봤니?

염광숙

4년 전 하남에 거주하는 성당교우 집을 방문했을 때 맑고 신선한 공기와 그 집 거실에서 보이는 푸른 산이 나를 벅차게 했다. 그리하여 2년 전 서울에서 이곳 하남으로 이사를 왔다. 그런데 교통이 불편하고 친구도 없고 웬지 내 마음이 편치 못했는데 이번 마을큐레이터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 지역에 대해 조사하며 어떤 문제점, 어떤 바람 등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조리 있게 발표할 때 나는 그들이 놀라웠고 하남에서 내가 아는 건 검단산 뿐인데 그들이 존경스러웠다. ‘내가 너무 관심 없이 살고 있구나!’ 부끄러운 마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자전거로 덕풍천을 달렸다. 와우! 그곳은 비가 와서 개천에 물의 흐름이 힘찼고 그 힘찬 소리는 경쾌함으로 들렸다. 개천 양쪽으로는 짙은 푸른색에 수초와 들꽃이 있었다. 졸졸 흐르는 물 위에는 빨간 잠자리가 여유롭게 날고 있고, 돌다리 사이로 물오리, 하얀 백로까지 먹이 사냥을 하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연에 나는 큰 감동을 얻었다. 물과 수초, 잠자리, 물오리에서 눈을 돌리면 산에는 소나무, 밭에는 고추, 땅콩, 부추, 깻잎 농작물도 많았다. ‘아! 내가 원했던 풍경이구나! 여기가 바로 자연이구나! 하남으로 이사 오길 잘 했다.’ 생각하며 마을큐레이터 프로그램에 감사했다. 쉼터에서 잠깐 휴식을 하고 덕풍천을 따라 올라가니 한강물을 모터로 끌어 올려 내리는 곳이 있었다. 이 지점에서 한강 합류점까지 6km다. 덕풍천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궁금해서 오르막길을 계속 달려보니 고골 남한산성에서 시작 된걸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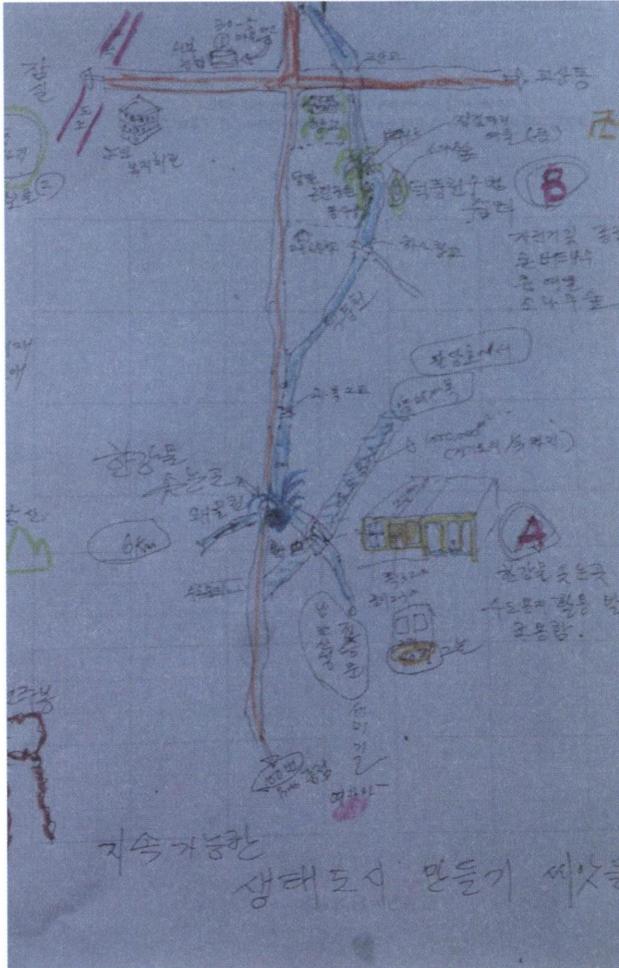


그 곳에는 식당들이 많았고 맨 뒷자락에 250년 된 물레방아 식당이 있었다. 그곳에 사장님은 그 개울물을 먹고 자랐고 그분의 어머니는 앞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도 들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사장님 집과 아랫집 두 채 뿐이었다. '이곳도 역사가 깊구나!' 생각하며 둘러보았다. 지금 춘궁동에 유적지가 공사 중이지만 이곳이 완공되면 많은 사람들이 덕풍천과 함께 마음에 평화를 느끼리라 생각한다. 현대 아파트 앞에서부터 덕풍천까지 차가 다닐 수 있는 다리가 7개, 돌다리가 6개로 되어 있다. 춘궁동에는 창고가 많아서 다리가 많은 것 같다. 한 가지 아쉬움은 이 아름다운 덕풍천에 다슬기와 잉어떼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앞으로 도 푸른 하남을 가꾸겠다.



# 덕풍천, 얼마만큼 놀아봤니?

임경재



- 전체  
93.0 Km2 (100%) : 2010년

---

- 하천  
10.2 Km2(11%) : 가족캠핑장

---

- 임야  
49.3 Km2(53%)

---

- 대지  
4.7 Km2(5%)

---

- 수도용지  
1.0 Km2(경기도 전체의 1/3)

## 하남시 인구변화

|                |                              |
|----------------|------------------------------|
| 1757년(영조33년)   | 5,752명 (輿地圖書), 여성비율 : 57.9 % |
| 1919년(3.1 운동시) | 9,000명                       |
| 1980년          | 20,000명이상으로 동부읍              |
| 1989년          | 50,000명이상으로 하남시로 승격          |
| 2018년 5월       | 240,000명(신장도서관 통계연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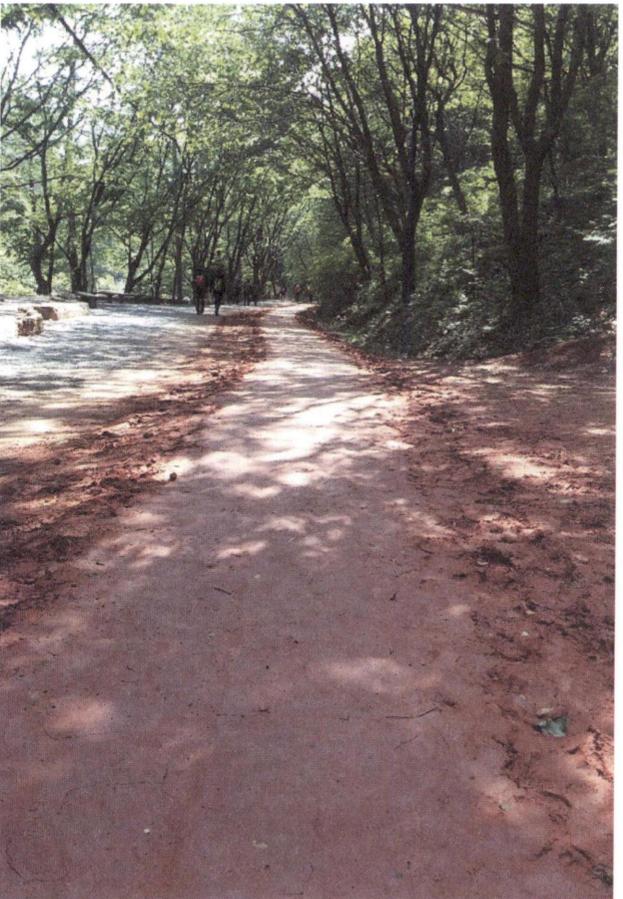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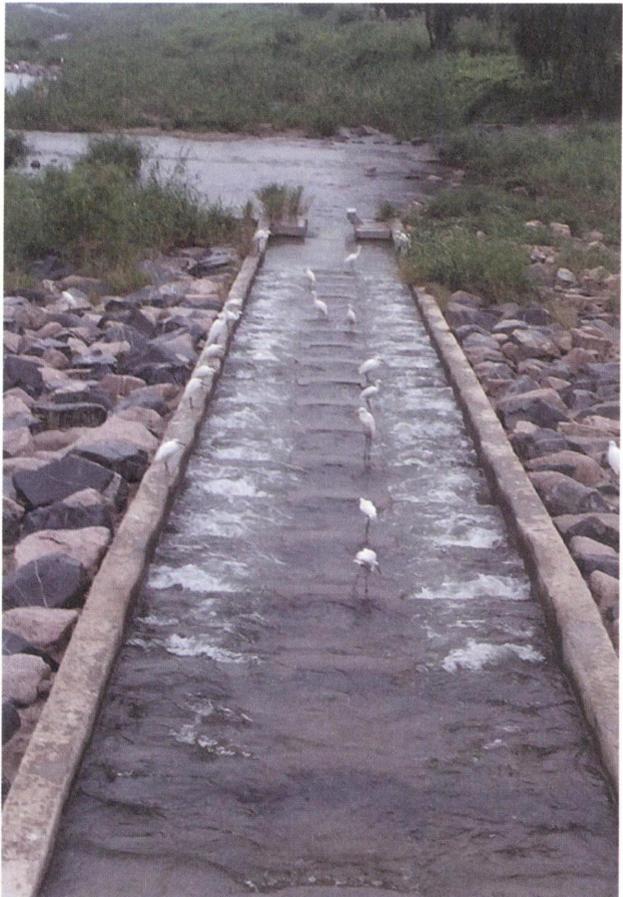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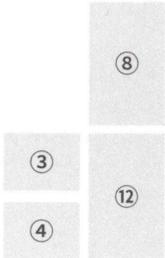
현재 미사, 위례 신도시 아파트 입주 급상승. 고로 인구증가에 따른 지속가능한 생태학적 여건을 더욱 발전시켜야 함.

88올림픽대로 건설로 당정섬이 한강물 속으로 없어지고, 한강수위가 내려가 지하수위 하강 및 폐하천부지 발생.

- 생태하천 (한강물 퍼오려 흘러내리게)
  - 덕풍천 : (19.50km<sup>2</sup>, 8.50km)
  - 산곡천 : (23.83km<sup>2</sup>, 9.66km) 2차 추진중
  - 망월천(미사 중앙호수공원) : (5.55km<sup>2</sup>, 4.5km)
- 일반하천
  - 감이천 : (7.89km<sup>2</sup>, 3.58km)
  - 초이천 : (6.65km<sup>2</sup>, 3.75km)

덕풍천은 생태하천 및 가족 문화 체험 등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무궁무진하다. 덕풍천에서 가족과 놀 수 있는 놀거리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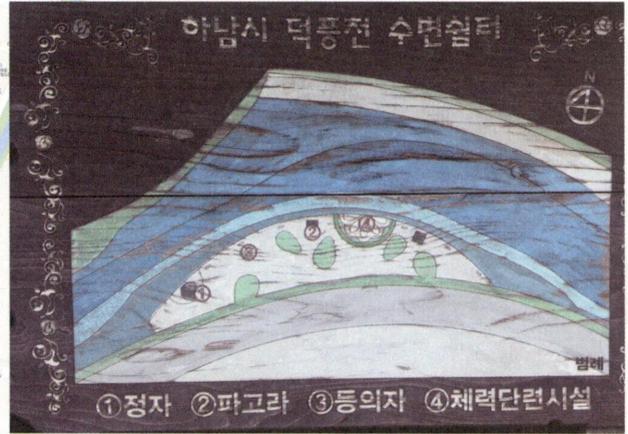
- ① 수영 배우기
- ② 물총 쏘기
- ③ 풀잎배 띄우기 (곤충도 태우고)
- ④ 민물고기 채취 관찰 (뜯채, 족대, 어망, 파리낚시, 손으로 잡기)
- ⑤ 간단한 수질시험 (탁도, 산도 등)
- ⑥ EM 황토볼로 수질 개선
- ⑦ 물래방아 만들기
- ⑧ 자갈, 모래 놀이
- ⑨ 종이배 띄우기
- ⑩ 호수로 소방관 놀이
- ⑪ 간이 수영장도 가능  
(Box 높이 2.3, 폭 3.2, 길이 22m 6Box 중 2개)
- 고급은 고무 자동 댐식.
- ⑫ 황토 흙 맨발로 걷기



A. 한강물 씻는 곳



B. 덕풍천 심터공원



덕풍천 생태하천 체험장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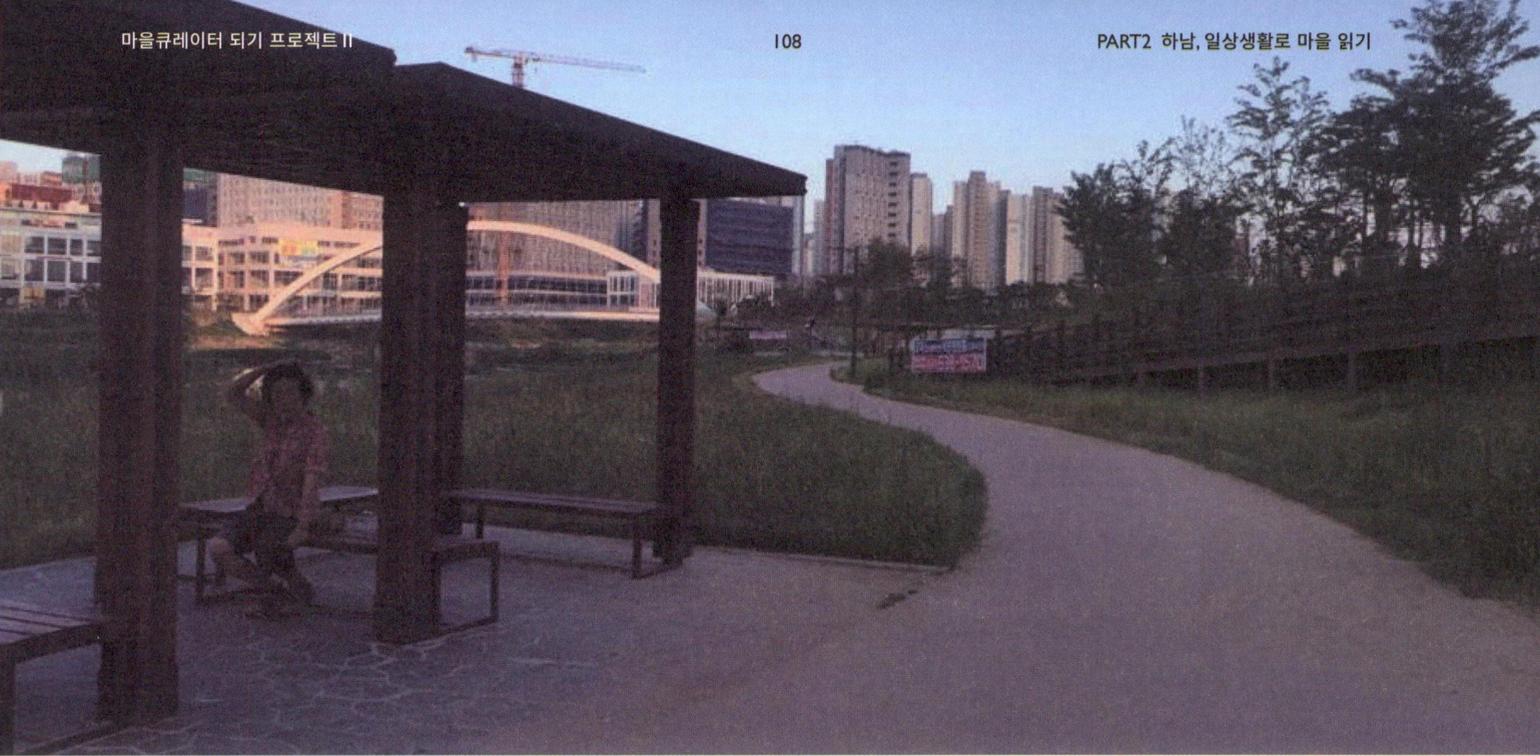
|                                               | 장점                                                                                                                          | 단점                                         | 비고                                                  |
|-----------------------------------------------|-----------------------------------------------------------------------------------------------------------------------------|--------------------------------------------|-----------------------------------------------------|
| <p>A.<br/>한강물 씻는 곳<br/>6km 지점.</p>            | <p>한강물이 씻고 있음<br/>확장이 가능 (수도용지)<br/>모임 그늘장소 있음<br/>조용한 분위기<br/>화장실이 설치 됨<br/>왜골천 시점<br/>연자마 근거리<br/>100번 버스</p>             | <p>멀다<br/>하천 정비가 필요<br/>수자원 공사와 협의</p>     | <p>미래 확장성<br/>3.2*3.2*0.6<br/>튜브 수영장</p>            |
| <p>B.<br/>덕풍천 심터공원<br/>(궁안 근린공원, 광주향교 접함)</p> | <p>기존 정자, 파고라<br/>징검다리 및 넓은여울<br/>자전거길 합류<br/>큰 느티나무 그늘<br/>동쪽에 소나무 숲<br/>가까움<br/>주차시설 이용<br/>문화관광의 중심지<br/>고골초교 연계 체험장</p> | <p>통행량이 많다<br/>(사람, 잔전거)<br/>고골로 횡단 안전</p> | <p>G/B 개발의<br/>10% 공원조성<br/>17,000평<br/>문화재 발굴중</p> |

## 아주 어른스러운 산책

안수경, 임영이

매일 걷는 길이지만 누구와 어떤 계절 어느 시간에 걷는가에 따라 산책길은 다르게 느껴진다. 80 넘은 노모와 걷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과정과 천천히 길을 둘러보며 관찰자로 걸을 때 달라진 시선을 기록하였다.





## 노모를 이해하는 산책

안수경

내 어머니는 10여 년 전부터 집 주변을 산책하시곤 했다. 처음 시작은 그저 남편을 따라 나선 거였다. 은퇴하신 후에도 종일 책상 앞에만 계셨던 아버지가 산책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었다. 오후에 두어 시간 함께 공원을 거닐고 저녁 즈음이 되면 안주가 맛있는 가게에서 저녁식사 겸 술 한 잔하시곤 했다. 아버지는 7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이제 당신의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두세 번은 동네 산책을 하신다. 내 어머니는 올해 여든 둘이 되었다.

미사강변도시로 이사 온지는 3년이 넘었다. 입주 당시에는 주변이 대부분 공사 중이어서 조금 거리가 있는 미사 조정경기장에서 산책을 하셨다. 이제는 동네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제법 걷기 좋은 산책길이 생겼다. 처음에는 아파트 셋길이 멋져 봐야 얼마나 멋지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나쁘지 않았다. 이사 온 후, 나도 시간이 되면 자주 어머니와 함께 산책길을 걸었다.

어머니와 내가 주로 이용한 산책길은 우리 단지에서 출발하여 9단지과 단독 주택 사이에 조성된 공원길을 걸어 미사 2동 주민센터쪽으로 걷는다. 처음에는 거기에서 돌아와야 했다. 어머니 걸음으로 한 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이제는 큰 도로 아래쪽으로 연결된 길을 건너 조성 중이었던 망월천의 산책로가 일부 개방되었다. 망월천을 따라 5단지 옆을 지나 망월초등학교 부근에서 도로로 잠깐 나온다. 그리고 100여 미터 도로 갓길을 지나 다시 2단지를 따라 아파트 사이로 걷다가 미사강변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걸으면 다시 우리 단지가 나온다. 어머니 걸음으로 두 시간 거리다. 물론 중간 중간에 자주 쉬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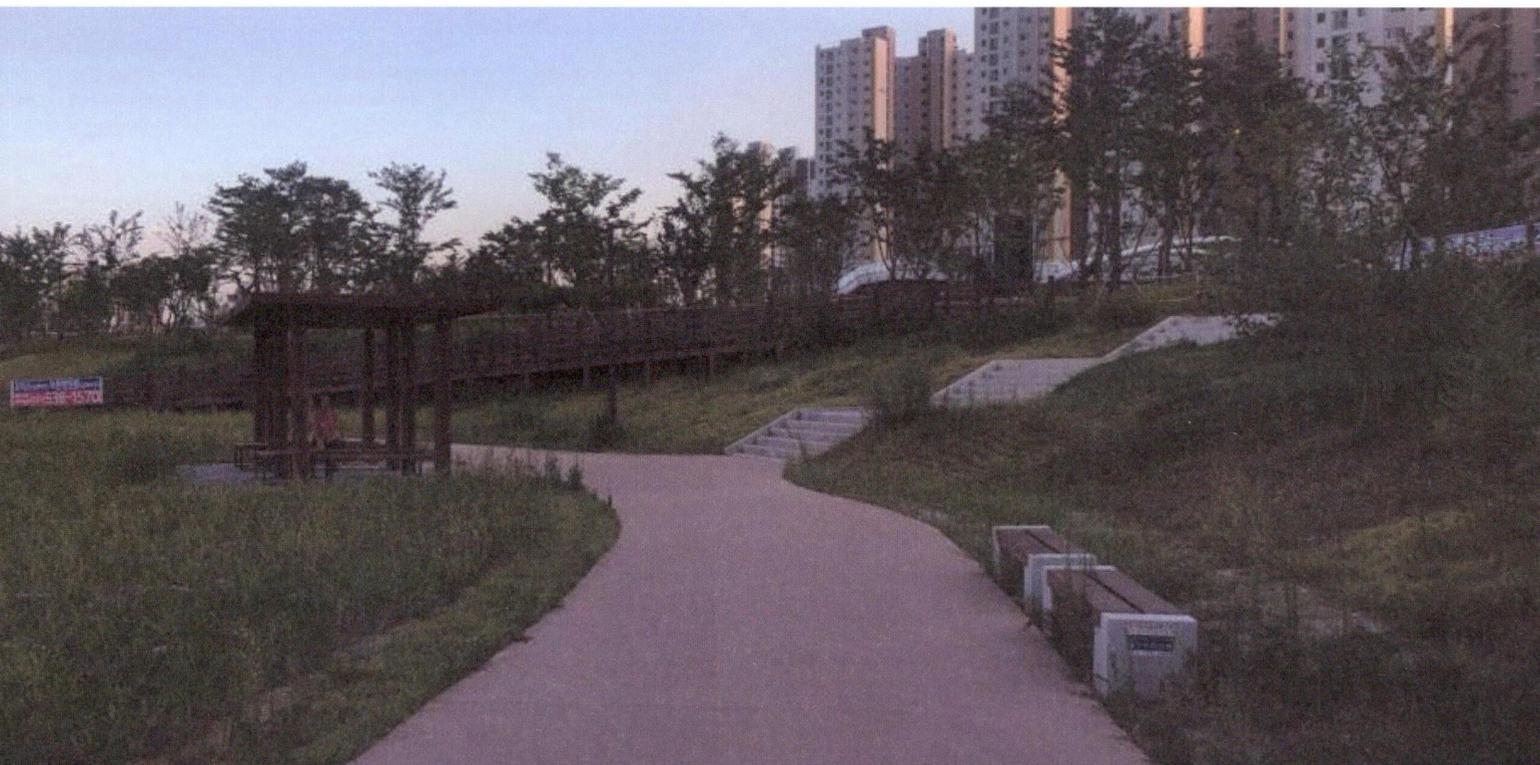
처음에는 몰랐다. 산책길에서 의자가 있는 곳까지 어머니께서 그렇게 힘든 걸음을 하고 계시는 줄을. 그리고 그 다음 의자가 있는 곳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기시는 거였다. 생각해 보니 어머니는 걷는 거나 운동하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고 이제는 생활의 일

부가 되어 있다.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나는 나와 내 어머니의 산책로를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걷는 산책길은 걷는 것을 제법 좋아하는 나와 길은 같아도 내용이 참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산책길을 바라보니 정말 의자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졌다. 또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으실까.

막상 다시 한 번 어머니와 함께 산책길을 걸어보려고 하니 날씨가 도와주질 않았다. 연일 40도를 육박하는 무더위에 엄마와 함께 하는 산책은 엄두도 낼 수가 없었다. 며칠을 더 기다렸다가 온도가 2-3도라도 내려간 뒤 아침 일찍 혼자 산책길을 나서 보았다. 새로운 생각으로, 보고서도 염두에 두며 산책길을 걸으니 많은 것들이 내 시선에 들어 왔다. 인공조형물들, 평소에는 그저 흘려 보았는데 사진을 찍으며 마주 하니 생각이 생겼다. 주전자 모양으로 생긴 큰 조형물은 왜 주둥이에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하지 않았을까? 날갯짓하고 있는 학조형물들을 보며 정말 날갯짓을 하는 학들을 상상했다. 아직 물이 솟아오르지 않는 분수 조형물. 평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이정표들. 저녁에도 거닐어 보았다. 레이저조명으로 지킴이가 돌보고 있는 안심지역이라는 안내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가끔 어머니와 함께 사용했던 운동기구들.

내 걸음으로 한 시간 가량 거리를 한 시간 40분을 소요하며 특히 관찰했던 것은 의자였다. 어머니가 걷기 힘들어 하실 때 당장 눈앞에 의자가 보이지 않곤 했었다. 그래서 우리의 산책길에 의자가 대체 얼마나 비치되어 있는지 궁금했다. 의자는 생각보다 많았다. 열주 세어 보니 150여개가 된다. 하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모든 의자가 잘 활용되고 있어 보이지 않았다. 땀병에 놓여 있는 대부분의 의자들은 사람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은 듯 했다. 아예 풀들이 의자틈새를 비집고 나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등받이가 있거나 그늘에 있는 의자들이 역시 잘 애용되었는지 더욱 낯았거나 반질반질했다. 내 어머니도 그렇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선호하신다. 그런데 산책로에 있는 대부분의 의자는 등받이가 없다. 어머니가 하는 수 없이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사용하실 때면 내 마음이 안타깝기도 했다. 지도 한 장 들고 나선 나는 어머니가 주로 사용하시는 의자의 위치를 표시했다. 산책 후 엄마와 함께 점심을 먹곤 했던 식당도 표시했다. 사실 이제는 순대국을 파는 그 음식점을 지날 때마다 그 안에서 순대국을 먹고 있는 나와 어머니의 모습이 의례히 떠오르는 한다.





나는 걷는 것을 좋아한다. 걷기를 시작하면 걷기에 집중하게 되었다. 움직이고 있는 나를 온전히 느끼게 되었다. 복잡한 세상살이 생각이 없어지고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천천히 걷거나 산책은 오래 전부터 많은 지식인들에 의해 예찬되어 왔다. 부지런한 게으름이다, 느림의 미학이다, 나 자신을 천천히 돌아보게 되는 진정한 사색의 시간이다, 내려놓음과 비움이다 등등. 나의 홀로 산책도 이와 다르지 않다. 때로 수풀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대자연의 원가를 음미하는 시간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걷는 산책은 마음이 더욱 안정되고 행복했다. 어머니와 단 둘이 오롯이 두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좋았다. 손을 꼭 붙잡고 흔들거리고 하고 노래도 흥얼거린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가 당신 때문에 제대로 된 산책을 못하실까봐 걱정하신다. 당신 걸음이 너무 늦어서이다.

“난 여기 쉬고 있을 테니 넌 저기 다녀오렴. 넌 더 빨리 걸어.”

“괜찮아요, 난 너무 빨리 걷는 게 탈이에요.”

어머니가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것도 이제야 알았다. 혼자 산책길을 다녀오시는 것보다 나와 함께 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

“엄마, 왜 나랑 같이 가는 게 더 좋아?”

“당연히 더 좋지. 심심하지도 않고, 넘어져도 네가 옆에 있으니 안심이 되잖아.”

어머니의 산책은 사실 힘든 일의 시작이었다. 조금만 걸으면 고관절과 허리에서 통증이 아우성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열심히 걸음을 걸으시는 거다. 당신의 체력과 싸움이고, 약간은 긴장된 시간이다. 때로는 외로움을 절감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지난 시절을 추억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혼자 갈 땐 무슨 생각해?”

“진언을 외우지.”

“또 뭐해? 노래도 불러?”

“노래도 부르지.”

“엄마 외롭구나. 엄만 외로우면 노래한다며?”

“하하하, 그냥 심심해서 부르는 거지.”

“내가 보니까 엄만 할머니들하고도 얘기 잘하더라.”

“내가 무슨 얘길 하겠어? 그 사람들 자식 자랑하는거 들어 주는 거지.”

사실 어머니와의 산책길을 주제로 삼았을 때 나는 어머니에게 의자가 있는 산책길 지도를 선물해드리는 즐거움을 상상했었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이미 산책길의 모든 의자를 흰히 꿰뚫고 계시다. 어머니에게는 생존문제처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어머니에게는 산책길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의 산책은 이제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은 자신과 온전히 대면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딸자식 다섯을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엄격한 남편을 뒷바라지 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한 번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본 적이 없는데 산책은 그런 어머니에게 너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종용하는지도 모른다. 희생과 봉사만이 당신의 인생 전부였는데 그것들이 떨어져 나간 지금 당신의 모습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당황시켰을 것이다. 게다가 35년을 함께 해 온 지병이 있으시니 어머니의 산책은 혹시라도 아무도 없을 때 쓰러지실까봐 겁이 나는 시간과 공간이기도 하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세속적인 욕망 때문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식들에게 누가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염려였다.

불교신자이신 어머니는 진언을 외우신다고 한다. 진언은 석가의 깨달음이나 서원(誓願)을 나타내는 말로 인도말 그대로 음사(音寫)라고 하는데 이를 많이 외우면 재액이 물러가고 공덕이 쌓인다고 한다. 즉 번뇌를 멸하는 주문 같은 것이다. 이제 빈집 증후군 같은 허전함을 느끼시는 어머니는 종교 생활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계시지만 이 역시 전적으로 자식들을 위한 기도였다.

생각해 보면 어머니와 함께 하는 산책길은 그저 적당한 그늘이 있는 길이면 족했다. 주변의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새소리 풀벌레 소리가 좋고 강아지풀처럼 생긴 수쿠령이 가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 주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애용하시는 의자 주위에 심어져 있는 화살나무가 눈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집으로 돌아 와 보면 어머니가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과 공간이었을 뿐이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속에서 충만감이 솟는다.



사람들.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많고, 유모차 같은 기구를 앞세우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는 할머니도 보인다.옆에서 건물 짓는 소리가 들리고 때 지어 올려대는 쓰르라미 소리도 들리고, 물 흘러가는 소리도 들리고, 물새들도 날개를 펴려거린다.저 소리들이,저 물새들이 저렇게 자신에게,가족에게 몰두하고 걷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마디의 말을 걸까?

아주 어른스러운 산책은 무엇일까? 철학자의 사색 같은 산책길이 그 해답일까? 내 몸의 움직임을 온전히 느끼는 시간으로 그 귀함이 평가될까? 나는 내 어머니의 산책길이 눈에 밟힐 뿐이다.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끌만큼도 자식들에게 신세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어머니의 산책길은 간절함과 긴장감이 교차되었다.죽음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어도 단호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나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교차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산책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절감하고 내 존재를 인식하는 시간이다.내 어머니에게도 왜 그렇지 않을까? 하지만 어머니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더욱 멀리 산책을 가시곤 했다.어머니를 가만히 안아 보았다.너무나 가볍다.아니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처럼 느껴졌다.티끌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더 이상 힘껏 태울 것이 없는 그런 상태.얼마나 힘드셨을까?얼마나 고단하셨을까?남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리셨겠지?이 모든 것들을 어머니의 산책이 품고 있다.

“엄마, 산책하면 좋아?”

“좋지.”

“뭐가 좋아?”

“다녀오면 기분이 좋아져.또 나무들 보는 것도 재밌고... 똑같은 자리에서 자라나는데 한 놈은 잘 자라고 한 놈은 삐쩍 말라가잖아.”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은 한 번도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지 못했다.날이 선선해지면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자주 해야겠다.내 어머니의 어느 순간도 잘 키운 당신의 딸이 함께 하고 있으니 외로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다고 안심시켜 드리고 싶다.완벽하게 함께 해 드리지는 못해도 혼자 다니시더라도 딸이 잡은 손을 떠올리게 해 드리고 싶다.서로의 존재감에 대한 든든함이 시간과 같은 속도로,아니 느린 걸음으로 쌓여가는 행복한 공간임을 떠올리게 해 드리고 싶다.다행이다.산책을 다녀 오시면 기분이 좋아지신다니 정말 다행이다.



## 사색하며 산책하기

임영이

집을 나와 망월 초등학교를 지나 천이 있는 산책길을 걷다보면 나름대로 많은 분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예쁜 강아지와 함께한 사람,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가족, 혼자 산책로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청년 등.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아름답다. 우리 모두 너무 바쁘게 살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모처럼 만난 산책길에서의 평화로움은 도심 속 가까이 푸르름을 간직하고 우리를 맞아주는 숲과 새들의 향연, 풀벌레 소리, 흐르는 물소리.....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감성을 흔들어 깨워 주는 것 같아 행복하다. 특히 숲속 도서관은 지친 우리들에게 편안한 안식처 같다. 넓은 잔디와 나무, 예쁜 모습의 의자들 찬바람이 불면 나도 숲속 도서관에서 여유를 부려보고 싶다.

사람이 앉아 쉬어야 할 의자 위에 마시고 버려진 일회용컵과 음료수병, 담배 궤초 등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다. 어른스러운 산책길에 어울리지 않는 가장 어른스럽지 못한 모습 같아 부끄러웠다. 아이들에게 예쁜 산책길을 선사하고 싶다.





이번에 마을큐레이터 작업을 하면서 옛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같이 전시하려고 동네를 몇 번 나가서 사진을 찍는데 새삼 더 느껴지는 건 주택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이런 삭막한 곳에서 옛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나를 추억에 잠기게 하고 정감도 느끼게 하였다. 내미길의 옛 마을 주민들이 살던 때를 회상하며 동네지도를 그리고 추억속의 주민들의 이름을 써보았다. 33가 구이었던 주택이 21가구로 많이 줄었다. 대신, 창고의 수는 아주 많아졌다. 지금 어르신들은 아침에 병원을 다녀와 집안일, 발일 등을 하시고 경로당에 모여 여가를 보내신다. 좀 더 건강하신 생활을 하셔야 할 텐데 점점 늙고 병들어 가시는 모습, 해마다 한두 자리씩 비어가는 노인정,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들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 내미길 첫번째 갤러리

# ‘내미길’과 나, 강신숙

## 강신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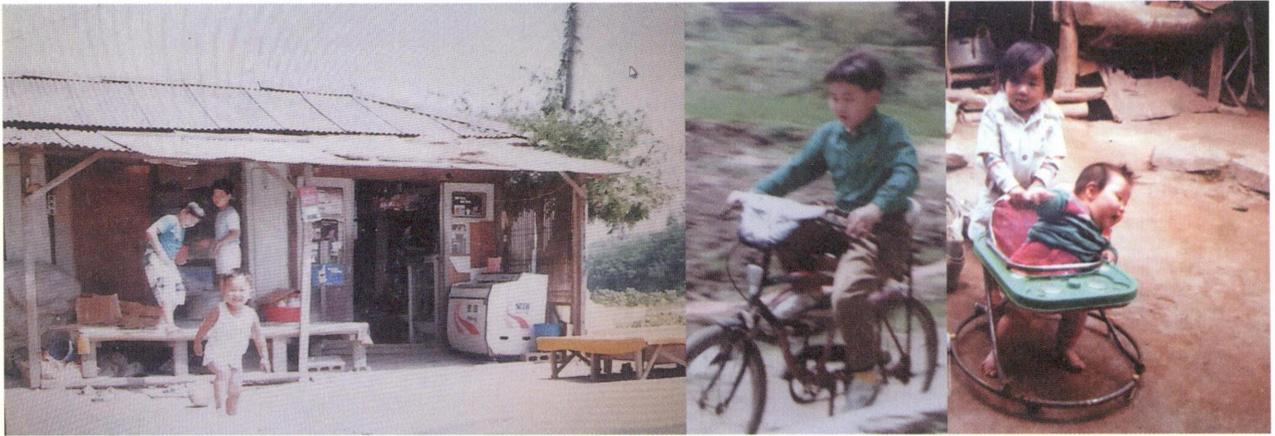
1979년 여름, 결혼 전 남편을 만났는데 자기 집에 가자고 했다. 시기상조라 생각되어 아니라고 했더니 그럼 동네 입구의 은행나무에 앉아 있으라고 권해 마지못해 그러라고 했다.

천호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골 가는 버스를 타고 은행나무 앞에서 내렸다. 이게 웬일인가? 은행나무는 그의 집 마당과 접해 있었다. 이렇게 나와 내미길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그 은행나무가 약 천년의 세월 동안 이 마을을 지켜본 나무이다. 내 기억 속의 내미길은 도로 양 옆으로 논과 밭이 대부분이었고, 그때 이 마을 분들은 대대로 벼농사, 밭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농가였다. 벼농사는 쌀이 부족하니까 소출은 많으나 힘이 없어 밥맛이 없는 통일벼와 차지고 밥맛이 좋은 일반 벼를 같이 심었다. 밭농사는 들깨 단, 토마토, 부추, 달랑 무, 배추, 무, 참외, 파, 호박, 고추, 마늘, 오이, 가지, 아욱, 시금치, 상추 등을 재배하여 상회로 판매하였다. 이것을 주선하여 주시는 분이 현옥이네 아저씨. 도로는 포장되지 않아 버스가 덜컹대면 뒤에 앉은 사람은 머리가 천정에 닿을 정도로 길이 험했다. 남편이 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은 채로 부모님을 도와 상회에 널 물건을 만들어 보내면 학교 명찰이 빠져 상회에서 돌려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름에는 논두렁에서 소에게 먹일 꼴을 베어오고, 겨울방학이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지게에 지고 왔다고 한다. 근처 산에 나무가 없어서 동네 친구들과 지금 동서울 변전소가 들어선 산에까지 가서 나무를 해왔다. 동네사람들은 나무를 해서 마차에 싣고 천호동에 가서 팔아 돈을 벌기도하고, 된장, 고추장등을 내다 팔아 어려운 살림에 보태기도 했다.

나는 결혼 후 고골에서 자면 아침에 개울로 빨래를 가지고 가서 빨아오고, 낮에는 아이들을 개울로 데리고 가서 물놀이를 하게 했다. 집에서 우물물을 퍼서 빨래하면 힘이 들지만 개울에서 하면 훨씬 수월하고 동네사람들과 얘기 하며 재미있게 할 수 있었다. 내가 자란 상계동에도 너머동치와 개지뚫굴이라는 이름의 개울이 두 군데 있었다. 평상시에는 빨래를 하고, 여름이면 개울에 가서 미역을 감고 놀았다. 큰 빨래나 김장을 씻는 일은 마차에 싣고 한내(지금의 중랑천)가서 해 오시는 엄마를 따라 갔던 생각이 어렵풋이 난다. 집에서 개울(지금의 고골천)가는 길에 있는 논에는 메뚜기가 날아 다녔고, 물속에서 피는 논 꽃들도 보았다. 개울둑에는 미류나무가 서있고, 산딸기도 있어 따먹었고, 둑에서 사진 찍던 생각이 난다. 상계동에서는 노란색 알의 옥수수를 먹었는데 고골에 오니 검정색 찰옥수수가 있었다. 어찌나 맛있던지 술을 끌어안고 다 먹으니 옥수수 귀신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결혼 초 성남에 살 때는 쉬는 날에 고골에 오고, 일이 많은 철에는 일주일이나 열흘간 고골에서 지내면서 구멍가게를 하시는 시부모님을 도와 드렸다. 신장으로 이사를 온 후로는 농사가



시작되는 봄부터 가을까지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고 난 후, 나는 작은 아이는 업고 큰아이 손을 잡고 8시 반 버스를 타고 고골로 출근을 해서 가게를 보고 시부모님은 밭으로 나가셔서 들깻단도 하고 토마토를 따서 상회로 내보낼 준비를 하셨다.

1989년 1월 광주군에서 하남시로 승격한 후 시에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강의를 시작했는데 나는 그곳에서 1990년에 사진을 배우게 되었다. 고골에 가면 평일에는 가게 보느라 사진 찍으러 다니질 못했고, 주말에는 설거지가 끝나면 카메라를 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눈에 띄는 대로 사진을 찍었다. 아이들 노는 모습, 동네 분들 일하시는 모습 등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그것이 지금 마을큐레이터에 유용하게 사용될 줄이야. 그때는 동네 전경이나 사람들의 모습들이 참으로 정겨웠다.

고골에 축사 건축 붐이 일기 시작하더니 농토는 점점 축사로 변해갔다. 남한산성에 올라가 고골을 내려 다 보면 온통 빨강, 파랑지붕 창고들로 가득 차 보인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농사짓기는 힘에 부치고 창고를 지어 임대료를 주는 가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논밭은 창고로 변하고 점점 농토는 줄어들었다. 몇 해 전 부터는 저온창고와 유리온실이 변형된 창고가 넘쳐나고 좁은 도로에 크고 무거운 차들이 수시로 드나드니 도로가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훼손되고 있다. 원주민들이 팔고 나간자리에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 창고만 지어 이제는 동네에서 주택을 찾아보기 힘든 마을이 되었다.

나는 마을 갤러리를 준비하면서 책꽂이에 모셔두었던 먼지 앉은 앨범들을 열어보면서 마치 보물을 찾듯이 사진을 고르고 추억에 잠기게 되었다. 노인정에 가서 동네 어르신들께 옛 사진이나 물건들이 있으면 전시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아무도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 몇 번을 말씀드려도 물건이 없다는 말씀들만 하신다. 할 수없이 집집이 찾아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몇몇 젊은 엄마들에게는 전화로 사진을 부탁했는데 흥운선님만 답을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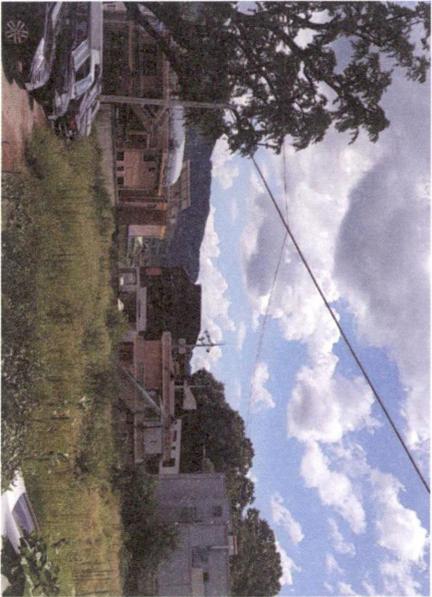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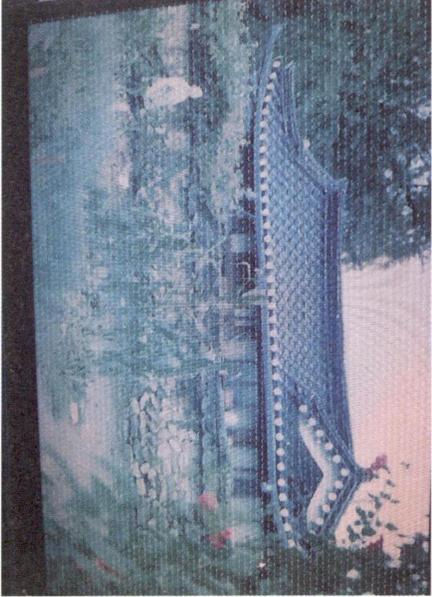
남편이 독일에 일하러 가셨는데 아빠에게 보내기 위해 찍은 아이들 사진을 보내 주셨다. 마음이 찡해온다. 최성환 어르신 댁에 가서 옛날 사진을 보여 달라고 말씀드리니 “나는 사진 많아” 하시며 앨범을 찾아주시고 설명해주셨다. 나는 “아저씨, 여기가 보물창고예요”하며 기쁘게 아저씨의 말씀을 들었다. 젊은 시절, 결혼 전에 친구들과 찍은 흑백사진 속에 돌아가신 나의 시 작은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서 어찌나 반갑던지, “정현이와 내가 친했지”하신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사진 속 얼굴에서 그분들의 아들과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고 신기했다. 어찌면 이렇게 똑같은 수가 있을까? 아저씨 삼형제분 사진, 형님 회갑잔치 때 찍은 사진들 속에 동네사람들이 많이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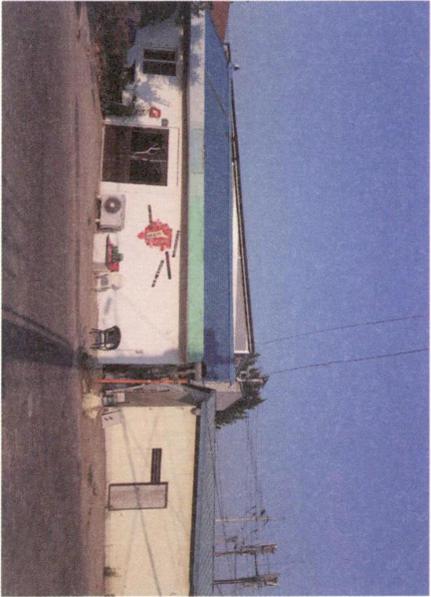
아줌마 네 동서들 모습, 옛날 집 모습들이 시간을 되돌려 놓았다.

박정열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리니 “사진 많지. 이리 와 봐.” 하시며 안방에서 사진을 찾아 주신다. 앨범이 아주 많았다. 그 중에서 이런 저런 사진을 꺼내 보이며 자랑을 하시는데 “아줌마 우리 동네가 나오거나 집이 보이고, 동네사람들이 있는 사진을 찾아주세요”라고 말씀드리니 “이건 어때?”하신다. 여기서도 잠자고 있는 보물을 찾아낸 듯 매우 기뻐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들춰볼 생각도 안했을 텐데..... 아줌마의 친정엄마사진, 아저씨가 군대에서 받은 대통령훈장사진, 옛날 집에서 한 아저씨 회갑사진, 여기에는 또 다른 동네 분들이 계신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거나 돌아가셔서 뵈 수 없었던 분들(설호네, 종인네, 미선네, 상준네, 서희네, 도연네, 은숙이네, 옥이네, 진득이네, 현옥이네, 향숙이네, 재영네, 재수네, 재광이네, 상은네, 은정네, 미녀네, 훈아네, 인호네, 석규네, 까까네, 점용네, 옥분네부모님, 그리고 나의 시 부모님의 젊은 시절 모습이 보이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두 분 결혼식사진, 그전 집 주변의 밭, 산의 모습, 옛날 집에서 자라던 아이들 모습 등 여러 장의 사진을 핸드폰에 담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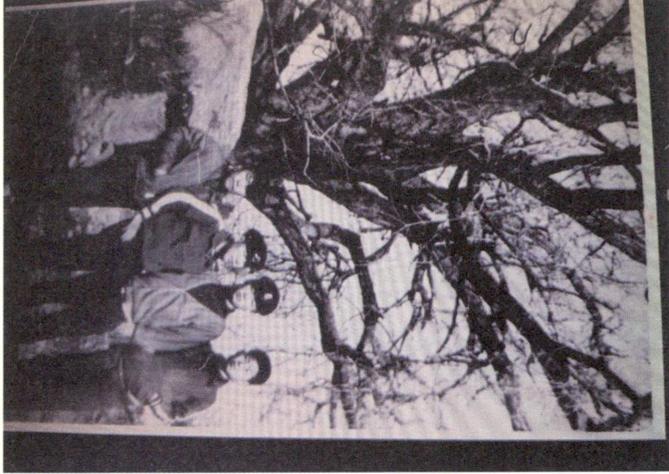
노인회장님께 전화로 사진 말씀을 드리니 “있어.” 하시며 택으로 갔더니 앨범을 찾아놓고 계신다. 고마운 마음으로 열어보니 여기에도 또 다른 보물이 있었다. 아저씨네 옛날 집 모습과 올 1월에 돌아가신 아줌마 사진이 있다. 작은아들 친구의 뒤 배경으로 동네의 옛 모습도 보이고, 초가지붕으로 된 점용네 화장실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새집을 짓고 찍은 단체사진, 복날 동네사람들이 개울에 가서 천렵하던 사진, 옛날 마을회관 앞에서 찍은 단체사진 등 보물을 핸드폰에 가득 담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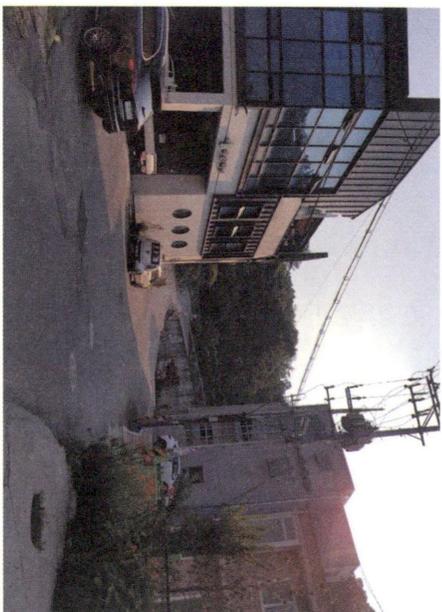
1990년대(왼) 기와집 자리가 지금은 풀만 무성한 빈 터



1990년대(왼), 2018년(오) 마을회관



1970년대(왼), 2018년(오) 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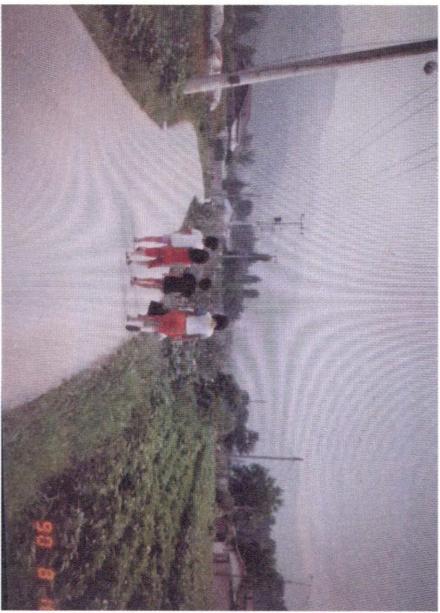
연당자리에 들어선 건물



구멍가게가 2층 건물로 바뀜



초가집이 벽돌집으로 바뀜



1990년대 차도 변(원)에 현재 창고가 들어섬



내미길 두번째 갤러리

# 박정열 어르신 인생이야기

강신숙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오빠, 나 다섯 식구가 화천에서 살았다. 할머니와 엄마는 늘 편찮으셔서 내가 시중을 들면서 살았다. 3.8선이 코앞이어서 남, 북한 군인들의 싸움이 잦았다. 그날 오빠는 한 동네에서 인민군으로 간 집의 모를 내주고 있었는데 낮에 남쪽 군인들이 우리 동네로 들어와 총을 쏘는 소리가 들렸다. 총소리가 나서 보니 같이 모내던 사람과 오빠는 도망가는데 오빠는 발목에 총알이 관통하여 절룩거리다 쓰러졌다. 오빠한테 가려고 하는데 인민군이 앞을 막고 엄마와 나를 끌고 산으로 가서 개굴창에 버려두었다.

2시간동안 총소리가 나더니 소리가 멈췄다. 남쪽 군인이 “이새끼 죽었다”그러더니 산 아래로 내려가고 그들이 보이지 않자 오빠가 “나 좀 살려줘”소리를 지른다. 엄마하고 나는 건너가서 산비탈 모래밭에 피를 흥건하게 흘린 오빠를 엄마가 업고 방공호로 가서 눕히고 밤을 새웠다. 다음날 낮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들것에 태워 돌이 메고 화천읍에 있는 병원으로 갔는데 받아주질 않아 철원도립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리를 잘라내고 나올 때만 기다리는데 낫질 않고 더 나빠져서 또 잘랐지만 돈을 안줘서인지 치료를 안 해줬다. 돈이 없어 다급한 마음에 소를 한 마리 끌고 면사무소에 가져다주고 병원비가 없으니 소 값을 쳐달라고 했다. 면에서는 소 값을 줄 테니 소는 도로 가지고 가라고 해서 소는 큰집에 두고, 병원에 돈을 가져다주었다. 그 후로 다리를 또 무릎 위까지 자르고 치료를 받은 6개월 만에 오빠가 퇴원을 했다. 6.25가 나고 우리 식구는 방공호에 숨어 있었다.

추석 무렵 음력 8월에 엄마와 나는 대추 따러 가고 없는 사이에 남쪽군인들이 와서 오빠에게 총을 쏘서 머리에서 향문으로 관통하여 즉사했다. 엄마와 나는 가만으로 가서 살다가 엄마가 아팠는데 미군이 아픈 사람들을 천호동에 옮겨놓았다. 그곳에서 텐트치고 살다가 가을에 화천사람은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향동의 용골로 분배해줘 옥석이네서 살게 되었다. 덜미재 넘어 피난민 연락소에 가면 피난민에게 배급을 해줘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거기서도 엄마가 아프시니 옥석할아버지가 염병이라고 나가라고 했다. 우리는 포대기 두르고 산 넘어 연락소에 가서 사정을 말하니 병원에 갈 수 있게 증명서를 써주었고, 또 지서에 가서 증명서를 받아 천호동 보호병원 근처 피란민병원에 엄마를 입원시킬 수 있었다. 그곳에서 하루밤자고 나만 집으로 왔다. 다음날 돈이 없어 나무를 한임해 판돈으로 부침개를 3-4조각사서 엄마께 가져다 드렸는데 아파서 못 잡수셨다. 옆 사람이 달라고 하여 돈도 받지 못하고 그냥 주었다. 이를 만에 또 나무를 팔아 병원에 갔더니 엄마는 청량리 병원으로 보내졌고, 거길 가려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다른 환자 갈 때 따라 가야한다고 하여 나는 그냥 용골로 돌아왔다. 엄마가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시면서 몸이 좀 나아지자 병원에서 주는 긴기랍

(항생제)을 먹지 않고 모아다가 퇴원할 때 가지고 나와 동네에서 팔아 장사 밀천을 만들었다.

별의별 장사 다하고 광주리에 사탕과 과자를 담아 팔고 다녀서 별명이 까까네가 되었다. 겨울을 지내고 다음해에 과목에 진수네로 이사를 했다. 그 집에서 감을 사서 연시 안쳐서 피란민한테 팔아 본 돈만 진수네를 주고 나머지는 먹으라고 했다. 처음에는 겁이 나서 조금씩 가지고나가 팔았는데 장사가 잘되어 엄마하고 둘이서 반접씩, 나중에는 한 접씩 가지고 신장으로 가져갔는데 내가 먼저 다 팔았다. 그해 겨울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누룩장사를 하는데 신장에서 누룩을 사면 형사가 알고 쫓아 와서 송파에 가서 사서 집에서 갈아서 누룩을 만들어 걸어서 새미재굴을 넘어 광주에 가서 팔았다.

장사가 아주 잘되어 1주일에 한번씩 30-40개 만들어 팔아 과목에 땅을 99,000원 주고 샀다. 18살에 장사해서 돈을 모아 샘재 용주네 소개로 내미길 지금 집 자리 주인(용백)에게 이자 1월에 5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주지 않아서 그 집 건넌방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 집 주인이 집을 판다기에 빌려준 돈에 웃돈 2만원을 더 주고 99,000원에 이집을 사게 되었다. 1년 후에 집터를 옥이 할아버지가 판다고 해서 우리가 샀다. 요 옆에 막내 준 터는 황골 사람에게 샀다. 장사해서 번 돈으로 땅을 사고 산 밑 황골에 400평의 논을 샀다. 19살에 서울에 사는 큰집을 찾아서 그곳으로 가서 중앙학원에 다니면서 1년 동안 미용을 배우고 큰집이 적성으로 이사하셔서 따라 가서 미용실을 2년 동안 하였다. 고향에는 8년 만에 가서 산소에 별초하고 와서는 한 번도 못 갔다.

그곳에도 4000평의 좋은 땅이 있었는데 농사만 짓고 등기를 하지 않아 찾을 수가 없었다. 큰집 올케가 화천에서 군인으로 근무하는 남편을 중매해서 22살에 결혼하여 적성에서 반년 살다 의정부 쪽 남율리에서 1년 살았고, 남편이 부산 화학학교로 발령이 나서 3년 살고 제대했다. 이곳에서 3년 근무하면 전방에 가서 7년 동안 근무를 해야 해서 지겹다고 제대하여 퇴직금 12만원 받아 선산동 골짜기에 논 900평을 샀는데 천수답이라 농사짓기 어려워 팔아서 이천에다 땅을 샀다. 경옥이는 여기서 나왔고, 태창이는 부산에서 나와 돌을 여기 와서 했다.

남편은 2살 때 아버지가 사망하셨다. 커서 인민군에 가라고 해서 1달만 있다가 고향에 돌아올 생각으로 배를 타고 남하하여 혼자 되었다. 나와 남편은 이북에서 내려와 형제가 없어 외로워서 아이를 많이 낳았다. 직업군인이었던 남편은 군대식으로 아이들을 엄하게 키워 큰아들은 많이 맞고 자랐다. 남편은 군대에만 있어 농사일을 할 줄 몰라 내가 나가 일을 해야 했다. 남편은 습관적으로 낮잠을 한잠씩 자야했고, 소를 길러서 3-4시에 소꼴을 베러가서 엄마와 둘이서만 일하게 되었다. 엄마는 84세에 사망하셨다. 엄마는 8남매를 두셨지만 아래로 오빠와 나만 살았다. 내가 막내를 업고 다닌 기억이 있다. 남편은 3년 동안 눈이 안보여 고생하니 다리가 꼬부라져 지내셨는데 돌아가니까 다리가 펴졌다. 돌아가기 전에 새집에서 살려고 집을 부수고 동부 초교 뒤쪽에서 사는 도중에 사망하셨다. 집이 완성되었는데 내 운으로 집을 지어서 내가 먼저 들어와야 한다가에 나 먼저 9월 9일에 이사 오고, 애들은 10일에 들어왔다.





내미길 세번째 갤러리

## 항동 금암산 산신제 이야기

박순인

하남시 항동 마을에서는 아직도 산신제를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아! 지금도 이런 곳이 있나? 마치 타임캡슐을 타고 적어도 100여 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묘한 생각이 들었지만 고품 토박이이신 석인균(80)옹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는 내내, 어렸을 때 부모님,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나는 문득 돌아가신 친정 할아버지 같은 따뜻함과 인자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

금암산 산신제는 매년 (음)10월 1일에 항동에 있는 금암산 중턱에 있는 큰 바위에서 지낸다. 제주의 집에 붉은 흙에 엄나무(가시돋힌나무)를 짐에대(풀의 일종)로 묶어서 고기류를 제외한 술, 떡, 과일, 전을 준비하여 예를 갖춰 절을 한 다음 소원을 빌면서 동네와 어르신들을 비롯한 객지에 나가 있는 자손들까지 무병장수와 번영을 빈다고 한다.

현대식으로 지은 마을회관에서 인터뷰를 하였지만 마치 TV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본 아프리카 토속 신앙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였다. 그래서인지 석옹(목도노인정 노인 회장)께서는 동네 사람들이 순탄하게 살아가면서 자녀들도 나쁜 일에 연루되는 일이 없이, 도시에 나가서도 맡은 업무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금암산 산신제를 올리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하셨다. 옛날에는 여자와 외지인들의 출입이 통제되리만큼 엄격한 룰이 있었지만 변화되는 세상 흐름에 많이 개화가 되었다고 하신다. 특히 15년 전부터는 하남시에서 매년 보조금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동네잔치처럼 남, 녀, 노, 소 다들 참가하여 한해의 수확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마을의 안녕을 빈다고 하셨다.

하지만 개발이 되면서 외지인들이 많이 유입되어 토박이 분들은 30% 정도만 남아 계시다니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는 숙명이지만 농사를 짓고 살았던 그때가 그림자면서 아쉬움을 토로하시기도 하셨다. 평생 함께 사셨던 아내분이 금년 1월에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소식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다행히 지금은 아들내외와 새로 지은 넓은 저택에서 여유롭게 살고 계신 것 같아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겁지는 않았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날씨에 금암산 산신제에 대하여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석인균님께 감사드리며 내내 건강하시길 빌어본다.



내미길 네번째 갤러리

## 내미길, 이금령 어르신 인생이야기

김태란

젊었을 때는 하남시 초이동에서 살다가 향동으로 시집 왔고, 슬하에 2남 1녀 자녀가 있으며, 연세는 81세다. 남편 분은 현재는 많이 편찮으시나 말씀은 재미있게 잘하신다. 이금령 할머니가 사는 집은 지은 지 60년 넘었는데, 마당에는 큰 감나무가 있어 특이하고 옛날집이라 보은 때문인지 마루에 비닐을 친 모습이다. 마당에 오래된 감나무가 있으나, 마당이 좁아서인지 감나무가 집보다 더 크게 보였다. 옆에 붙어 있는 광에는 농기구가 가지런히 걸려있었다.

대문밖에는 포도나무줄기가 할머니집의 창과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으며 분홍 접시꽃도 질새라 키를 뽑내며 있었으며 또한 여름 꽃인 화려한 후룩수꽃인지 아프리카 봉선화인지 만개하기 시작하여 이금령 할머니의 고운 성격이 나타나는 것 같았다.

집 앞 밭에는 파아란 붉은 파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고, 파 옆에는 초록색깔의 고구마 잎이 낮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옆에는 보라빛 가지나무와 고추나무들이 열매를 주렁주렁 자랑스럽게 매달고 있었다. 다른 밭에는 단호박들이 예쁘게 달려있어, 나도 모르게 작은 욕심으로 단호박 열매를 따고 싶었다. 신기하게도 단호박 잎도 일반 호박잎과 똑같이 생겼으며, 할머니가 세워 놓은 지지대를 타고 탐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고 있었다. 그 밑으로는 안정되게 작은 울타리 콩을 심으셨는데 가을이 되면 맛있는 콩으로 밥을 해 잡수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밭의 이곳 저곳을 돌며 사진도 예쁘게 찍어 보았다.

이웃 분들이 이금령 할머니 덕은 농사를 크게 짓는다고 말해 주었다. 작물로는 벼, 들깨, 고추, 콩, 호박, 파, 가지, 고구마 등등 각종 농작물을 짓고 있었다. 농사짓는 솜씨가 훌륭하시다. 이금령 할머니는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운 것이 최고의 보람이고, 성공이라고 말했다.

목도 경로당의 여러 어르신과 인터뷰를 하고 느낀 점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게 사시는데, 연세가 높아 건강이 문제였고, 마을 대부분 친인척으로 형제분들, 동서지간, 조카, 사이로 친척 모임 같았다. 다른 경로당 어르신들은 오전 10시쯤 와서 점심식사를 하는데 목도 경로당은 오전에는 밭에서 일하시고 오후에 경로당에서 저녁식사를 한다.

외지에서 이사 온 집도 마을의 2/3 된다고 하고, 새로 들어온 가구는 농사가 아닌 공장, 사업체, 창고, 가게로 바뀌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 대중교통 버스 100번도 자주 오지 않아 불편한 상태라고 한다.

경로당에서 인터뷰를 하고 나오는 길에 큰 은행나무를 보았는데 은행나무 주변에는 잡초가 어지럽게 자라고 있었고 깨끗하지 않은 모습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마음으로 잡초도 뽑아주고 깨끗하게 치워주고 싶었다. 은행나무의 사진을 찍었는데, 모습도 우람하지 않고 늙은 모습으로 나뭇잎들도 많이 달리지 않아 빈약해 보였다. 집에 와서 향동의 은행나무가 궁금하여 책을 찾아보았는데 은행나무는 경기도 나무의 보호수이고, 은행나무 주소는 “하남시 향동 127-3번지이며 1982년 10월 15일 도 지정 보호수로 선정되었다. 지정번호는 경기-하남-04이며 유형은 정자목이며 높이는 30m 둘레는 9.4m 이고 종자는 나무 고아원에 매장하였다고 한다.

옛날에는 은행을 딸 때 시루떡과 술을 차려 놓고 고사를 지내면 흉년이 없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으며 매년 3-4 가마의 은행을 수확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로는 나무가 늙어서 가지들이

자연적으로 떨어져 안전에 위험이 있고, 주위의 토지가 사유지여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한다. 향동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면 나무의 규모와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역사적, 문헌적 자료가 부족하여 천연 기념물로 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하남시에서는 10여년 전에 향동 은행나무와 용문산 은행나무를 천연기념물로 문화재청에 건의하였다. 용문사의 은행나무는 스님들에 도움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향동 은행나무는 지정되지 못하였다고 경로당의 이회장님이 말씀해주셨다.

향동 이름은 고골에서 남한산성에 오르는 길목에 있다고 해서 향동이라 하고, 금암산을 기대고 있는 마을이다. 나뭇골, 왜골, 향골, 용골 등의 마을들이 금암산과 어우러져 있다. 금암산 골짜기에는 하남의 고대(고려) 절터인 약정사지, 자화사지, 신복선사, 봉수사 등이 있다.

예전에는 향동 마을에 하마비(下馬碑)가 있었으나 언제부턴가 없어졌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하마비가 향교로 이전 되었다고 하나 근거는 없다. 하마비란 조선시대 종묘 및 궐문 앞에 세워 놓은 석비, 말을 타고 그 앞을 지날 때에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타고 가던 말에서 내려야 하는 글, 돌비석이고 궁궐이나 향교, 혹은 사찰이나 옛 고택 등의 앞에도 서 있었다고 한다.

부담  
모노  
영양  
어르신  
과  
인터  
부





## “나와 떠나는 마을여행”을 함께 했던 분들에게

퍼실리테이터 김지연

이제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며칠 전에 수북히 쌓이는 첫눈이 오기도 했구요.

지난 6월 시작되어 한참 더웠던 7-8월에 이야기 수집을 다니셨던 마을큐레이터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 처음 ‘마을큐레이터’ 사업 퍼실리테이터 제안을 받고, 이렇게 지역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하남에 오하려 놀랐던 거 같아요. 30대~80대까지 모인 분들과 ‘마을’이 야기를 했고,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수집을 했었네요.

2018년 5월 하남의 2차를 준비하며, 우리의 마을에 ‘사람’, ‘이야기’를 좀 더 가져가는 마을큐레이터를 그려봤습니다.

지난 5월 컨설턴트인 민병은샘과 오다예샘과 밤 12시를 넘겨 가면서, 판을 그리고 이야기를 했던 시간, 그래서 정했던 2018년의 주제 “나와 떠나는 마을여행”. 나의 감성과 나의 언어로 나의 마을을 바라보고 친구에게 이웃에게 보여주고픈 이야기 여행 코스를 만들어보자 했던 시간, 여러분의 시선을 만들어지는 길을 갖고 싶었습니다.

은유작가님을 초대해 2번에 걸쳐 ‘글쓰기’, ‘나의 글쓰기’ 시간 속에서, 속내를 드러내는 따뜻한 이야기 글들을 만날 수 있었고, 각자 놓치는 글쓰기에 용기를 얻기도 했네요.

이 소중한 시간만큼 우리의 준비시간이 짧았기에 아쉬웠고, 그래서 세심하게 봐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나’로부터 출발하는 마을 여행인데, 혼자서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함께 그려가기 위한 모듬을 만들며, 어려움을 겪는 팀들도 있었지요.

그런 시간들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여행코스는 참 멋졌습니다. 그 안을 살짝 엿볼까요?

‘함께, 그러나 다르게 내 시선으로 보기’의 대표작은 “흙새기 마을”이었습니다. 내년이면 재개발되어 사라질 ‘흙새기 마을’의 기록을 남기고 싶었던 장순란님, 그 관심에 붙었던 강경숙, 오현주, 전소민님은 그 안에서 다른 것을 봅니다. 마을의 사랑방 어르신들, 사라져갈 마을을 채워주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 그리고 잃어가는 추억의 골목놀이. 각자의 이야기가 모여 좀더 깊이 좀더 다르게 보여지며, 애잔함과 따뜻함,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동

시에 머무는 여행길이었습니다.

다함께 그 길을 걸어 들어가 사랑방 할머니들도 만나보고, 변해가는 마을이야기도 들어보고, 같은 세대로 놀았을 법한 놀이 수도도 떨면서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내미길 마을갤러리” 강신숙님은 기록의 달인입니다. 오랜 시간의 가계부와 일기처럼 마을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모으는 분입니다. 잊혀져가는 기록들이 더 없어지기 전에, 마을의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년에는 정말 “내미길 마을갤러리”가 마을 곳곳에 만들어지고, 다같이 내미길 산책을 가며, 옛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옛 사진과 옛 물건, 옛 이야기 속에서 근대사회에 힘들게 살았던, 하지만 서로가 챙겨주고 살았던 공동체, 그 어른들의 삶의 역사가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신숙님의 이야기 속에 함께 들어갔던 박순인, 김태란님도 내미길 마을의 공간적 가치를 찾아주셨습니다.

“아주 어른스러운 산책”길을 만들어준 안수경님과 임영이님,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혹은 다른 공원과 다르지 않은 미사리 산책길에 스토리를 만들어주었습니다. 50년을 곁에서 지켜준 어머니에게 이제 곁을 지켜주는 딸이 되어 함께 걷는 어른스러운 산책길에 보였던 어머니의 벤치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다시 보여지는 산책로의 모습을 따뜻하기도 했고, 한편으로 공공의 시설물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미사리 라이브 카페”를 찾은 이상숙, 정정자님. 잊혀져가는 라이브 카페를 지키며, 미사리의 음악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읽혔습니다.

“덕풍천 길”을 보여주시는 임경재님과 염광숙님은 참 하남이 아름다운 도시구나, 한강을 끼며 자연 속 공원을 만들어가는 도시임을, 그리고 그 도시를 자랑하고픈 마을큐레이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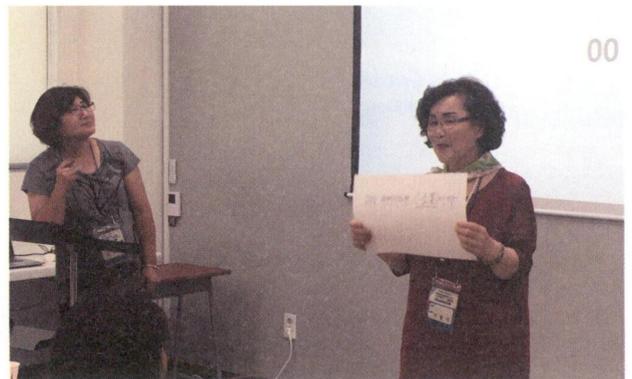
“건강한 음식”팀 너무 도시화되지 않은 농촌과 도시의 경계에서 자연속 음식을 살리고 계시는 사장님들을 찾아가는 여행 속에서 노은정님의 건강만큼 우리의 먹거리가 소중한 것임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덕풍재래 5일장”팀은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게 참 어려운 시간이었네요. 아직 남아있는 5일장은 우리네 삶입니다. 오일장을 돌아다니며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을에서 소소한 농산물을 갖고 나오는 분들도 있죠. 매일 그 자리를 지키던 시장 안에 오일장이 설 때면 일상과 특별함이 만나 새로운 일상을 만들고 그 안에 풍성한 이야기가 만들어 집니다.

“나와 떠나는 마을여행”은 그래서 참 따뜻했습니다. 나로부터 출발한 7개팀의 여행길에는 누구나 다니는 마을길이지만,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이 있고, 스토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따라 함께 걸어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껴봅니다.

지난 시간 하남 마을큐레이터를 만나면서 공간마다 가지는 다양한 색깔과 매력에 빠져봅니다. 그리고 마을이 새로운 이야기로 깊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을큐레이터 2년차를 끝내고, 3년차에는 우리가 만들어 낸 이야기길이 다시 지도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길과 길이 만나 또 다른 이야기길로 커져나가는 그림을 그려 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흙새기 마을’처럼 사라져가기도 할 것이고, 내미길 마을의 어르신들처럼 우리 곁을 떠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이야기길이 차곡차곡 쌓인다면, 그 기록들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여 백

## PART3



### 마을큐레이터가 되기까지

· 진행과정

· 특강

· 모니터링

진행과정 | 단계 / 프로젝트 기획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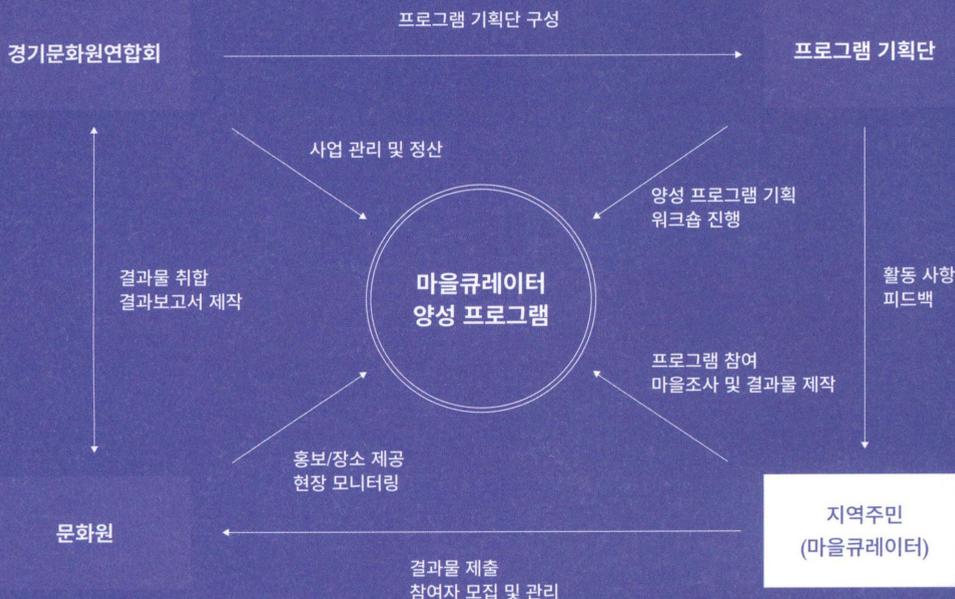
추진배경

- 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중심에 위치하였으나 그 역할이 오래된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통과 전례의 답습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생활문화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음
- 주민들의 삶을 다룬 활동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나 전통과 역사에 대한 학식 높은 활동가들로 구성된 활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활용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음
- 생활문화관련 사업 지원 경향이 뚜렷한 상황에서 문화원 목적 사업의 일환인 향토문화 보급과 보존이라는 목적사업에 현재성을 담은 생활문화적 버전 필요
- 주민이 직접 현재의 생활문화를 읽어내 지역특성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주민과 문화원이 네트워크 하는 구조 마련

사업목적

- 지역 문화원이 지속적으로 지역소재 발굴 및 지역특색을 반영

추진체계 및 역할



한 사업 기획을 할 수 있는 지원구조 마련

- 지역을 인문학적 시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주민역량강화로 주민 활동가 양성
- 문화원과 지역 커뮤니티의 연결망 구성으로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 주민 참여와 문화원과 주민 간 상호작용에 의한 지역 의미 찾기로 지역다움 발견

사업목표

-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마을큐레이터 양성과정 마련
- 1차년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두 개 지역 맞춤형 커리큘럼 진행
- 각 20명씩 40명의 주민 참여로
- 10명의 \*마을큐레이터 양성을 목표로 함

\* 마을큐레이터란?

- 지역자원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축적 되어진 결과물로서 지역의 현재(일상)를 조사하여 지역 자원(사람, 사물, 장소, 분위기, 커뮤니티 등)을 발견
- 발견한 지역자원을 새롭게 분류, 조합하여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특징을 만들고, 가치를 부여
-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의미를 담은 현재의 콘텐츠 제작

|             |                                                   |                               |
|-------------|---------------------------------------------------|-------------------------------|
| 프로그램<br>기획단 | · 컨설턴트(민병은) / · 의왕 퍼실리테이터(임재춘) / · 하남 퍼실리테이터(김지연) |                               |
| 문화원         | 의왕                                                | · 총괄(김상범 사무국장) / · 진행(공은실 주임) |
|             | 하남                                                | · 총괄(이상범 사무국장) / · 진행(김혜연 과장) |

«기획과정»

|    |                  |                    |                       |                            |                       |
|----|------------------|--------------------|-----------------------|----------------------------|-----------------------|
| 일정 | 1차 기획회의<br>4월 3일 | 2차 기획회의<br>4월 16일  | 3차 기획회의<br>4월 30일     | 4차 세부 기획회의<br>5월 18일       | 5차 세부 기획회의<br>6월 12일  |
| 내용 | 2차년도 기획방향 논의     | 의견수렴 및 평가회의        | 지역별 방향 논의             | 세부 프로그램 방향 논의              | 세부 프로그램 기획            |
| 참여 | 컨설턴트, 사업담당       | 문화원, 컨설턴트,<br>사업담당 | 퍼실리테이터, 컨설턴트,<br>사업담당 | 문화원, 퍼실리테이터,<br>컨설턴트, 사업담당 | 퍼실리테이터, 컨설턴트,<br>사업담당 |

«진행방향»

|             | 의왕문화원                                                                                                                                                                                                                        | 하남문화원                                                                                                                    |
|-------------|------------------------------------------------------------------------------------------------------------------------------------------------------------------------------------------------------------------------------|--------------------------------------------------------------------------------------------------------------------------|
| 기본 방향       | 기존 마을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매핑으로 마을 읽기' 심화과정                                                                                                                                                                                           | 신규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로 마을읽기' 기본과정                                                                                         |
| 참여 대상       | 기존 참여자 60%, 신규 모집 40%                                                                                                                                                                                                        | 신규 모집 위주(기존 참여자 참여 가능)                                                                                                   |
| 참여 일정       | 6월 1일~8월 24일 (매주 금) 13:30~15:30                                                                                                                                                                                              | 6월 22일~8월 24일 (매주 금) 10:00~12:00                                                                                         |
| 건의사항 및 기타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년 참여자 중 매핑 방법론을 배워서 지역 적용이 가능해 좋았다는 의견 많음</li> <li>- 거주지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길 원함</li> <li>- 현장 컨설팅 필요</li> <li>- 문화원의 시민활동가교육(마을큐사업)이 지자체 사업과 중복사업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지자체협조방안모색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원 중에 조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이나 멘토 위주로 가길 원함</li> <li>- 조사결과와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li> </ul> |

«프로그램»

| 의왕 '매핑으로 마을 읽기'        |           |          |                                                                 |
|------------------------|-----------|----------|-----------------------------------------------------------------|
| 구분                     |           | 일정       | 내용                                                              |
| part I<br>(사례공유와 방법알기) | 1차시       | 6.1(금)   | - 오리엔테이션_ 프로젝트 소개, 참여자 소개<br>- 강의 및 워크숍1. 나+요즈음+관심주제 ±α=프로젝트 주제 |
|                        | 2차시       | 6.8(금)   | - 강의 및 워크숍2. 팀 정하기, '지리적 상상하기'                                  |
| part II<br>(계획 세우기)    | 3차시       | 6.15(금)  | - 강의 및 워크숍3. 매핑계획서 작성하기                                         |
| partIII<br>(마을로 나가기)   | 현장<br>활동  | 팀별<br>일정 | 팀별 마을조사                                                         |
|                        | 4차시       | 7.6(금)   | - 현장 워크숍1._ 관찰, 수집, 기록 > 버리기와 배열                                |
|                        | 5차시       | 7.13(금)  | - 현장 워크숍2._ 관찰, 수집, 기록 > 버리기와 배열                                |
|                        | 현장<br>활동  | 팀별<br>일정 | 조사 보완 및 보고서 작성                                                  |
| partVI<br>(과정 나누기)     | 6차시       | 8.3(금)   | - 강의 및 워크숍4. 과정과 결과를 보이게 하는 방법 정하기                              |
|                        | 전시회       | 8.10(금)  | - 과정과 결과 전시회                                                    |
|                        | 통합<br>수료식 | 8.24(금)  | - 수료식 & 네트워크파티                                                  |

| 하남 '일상생활로 마을 읽기'       |           |          |                                |
|------------------------|-----------|----------|--------------------------------|
| 구분                     |           | 일정       | 내용                             |
| part I<br>(사례공유와 방법알기) | 1차시       | 6.22(금)  | - 오리엔테이션_ 프로젝트 소개, 참여자 소개      |
|                        | 2차시       | 6.29(금)  | - 워크숍1. 나로부터 시작하는 마을, 관심주제 나누기 |
| part II<br>(계획 세우기)    | 3차시       | 7.6(금)   | - 특강1. 나로부터 시작하는 글의 힘          |
|                        | 4차시       | 7.13(금)  | - 워크숍2. 주제 찾기 조사방법과 팀 정하기      |
| partIII<br>(마을로 나가기)   | 현장<br>활동  | 팀별<br>일정 | 조사 및 자료수집                      |
|                        | 5차시       | 7.27(금)  | - 피드백1. 중간피드백                  |
|                        | 현장<br>활동  | 팀별<br>일정 | 조사 보완 및 보고서 작성                 |
| partVI<br>(과정 나누기)     | 6차시       | 8.10(금)  | - 피드백2. 조사결과 피드백 & 전시 기획하기     |
|                        | 전시회       | 8.17(금)  | - 과정과 결과 전시회                   |
|                        | 통합<br>수료식 | 8.24(금)  | - 수료식 & 네트워크파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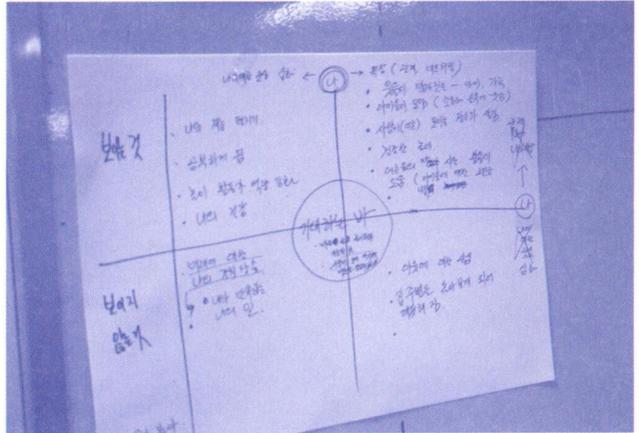
**진행과정 2단계 / 워크숍**

**«의왕, 매핑으로 마을 읽기» 워크숍**

**강의 및 워크숍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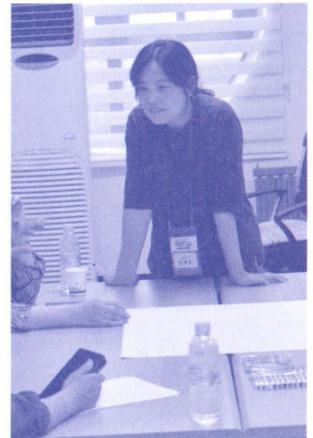
관심주제 나누기

‘나+요즈음+관심주제±α=프로젝트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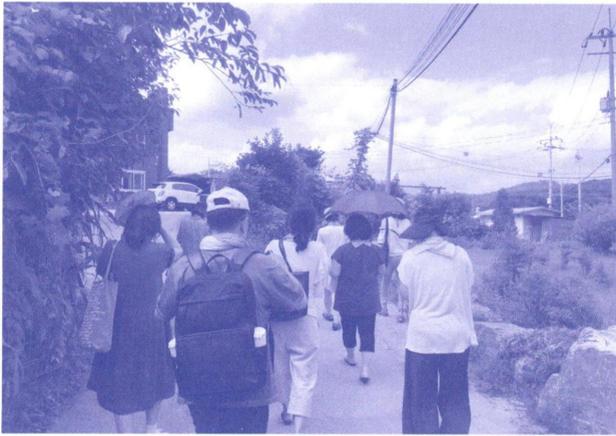


**강의 및 워크숍2.**

팀 정하기, ‘지리적 상상하기’







현장 워크숍

관찰, 수집, 기록 ⇨ 버리기와 배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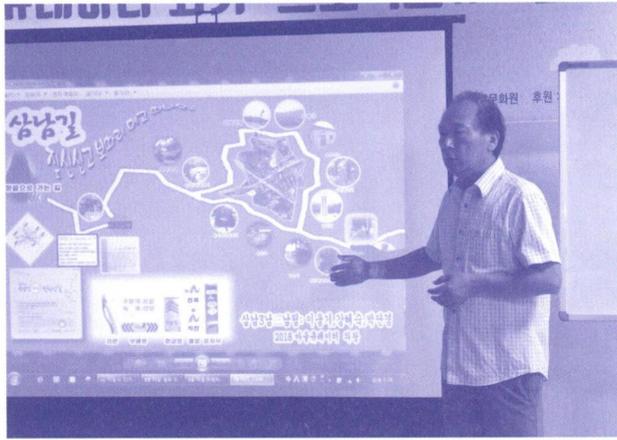
숲 워크숍  
마을평점



숲 워크숍  
마을평점

숲 워크숍  
마을평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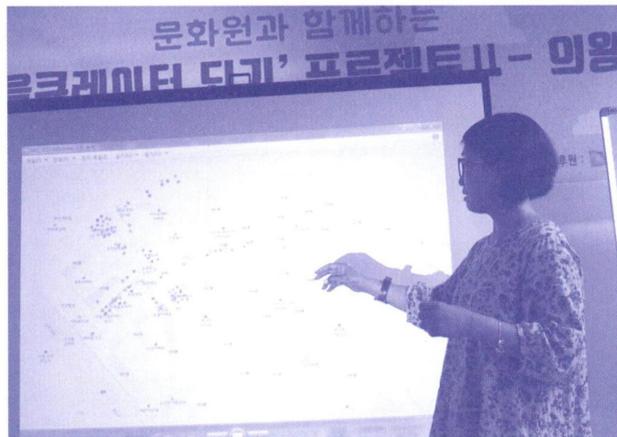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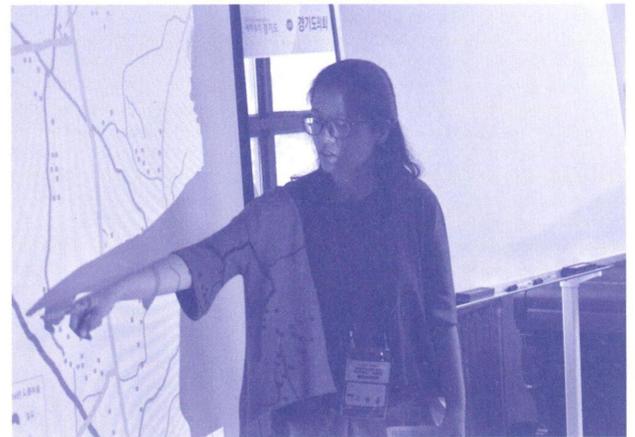
삼남리

강의 및 워크숍4.

과정과 결과를 보이게 하는 방법 정하기



오전동



매마노



원터마을



내산동



퍼실리테이터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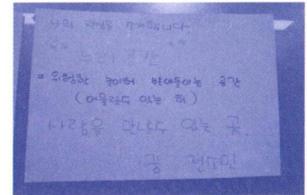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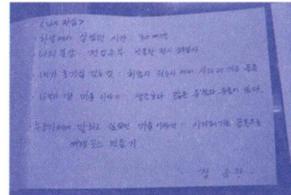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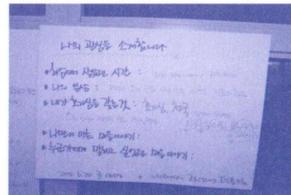
권설턴트 전시방법 안내



### «하남, 일상생활로 마을읽기»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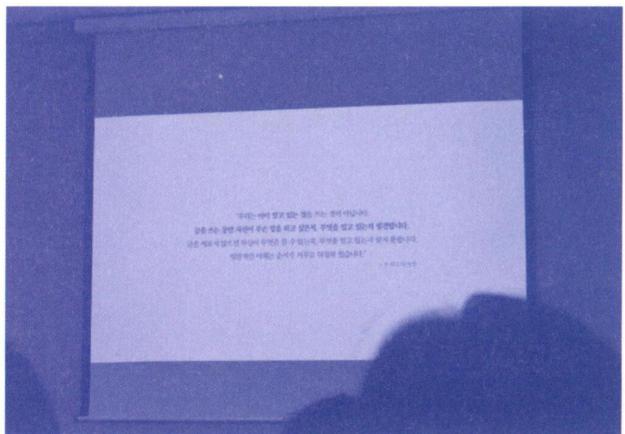
#### 워크숍 I.

나로부터 시작하는 마을,  
관심 주제 나누기



#### 특강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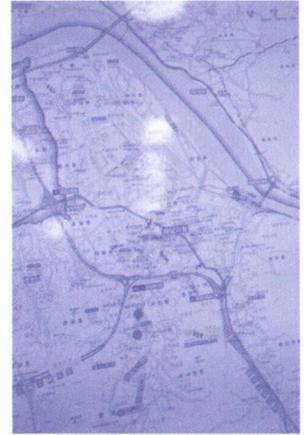
나로부터 시작하는 글의 힘  
은유





**워크숍2.**

주제 찾기  
조사방법과 팀 정하기



**특강2.**

나로부터 시작하는 글의 힘  
\_은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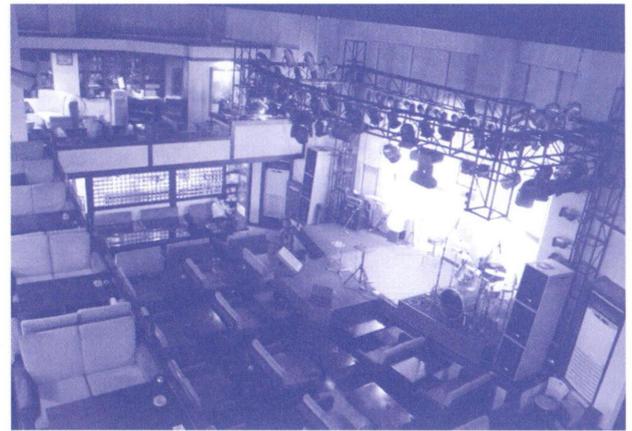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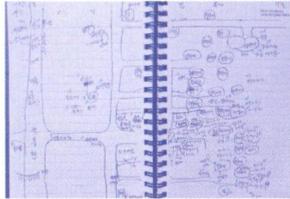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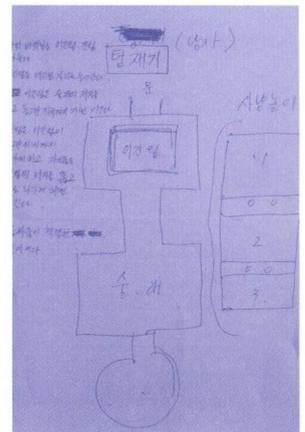
건강한 음식 팀 자료조사 및 수집



마을갤러리 팀 자료조사 및 수집



미사리 카페 팀 자료조사 및 수집



흙새기 마을 팀 자료조사 및 수집

덕봉5일장 립 자료조사 및 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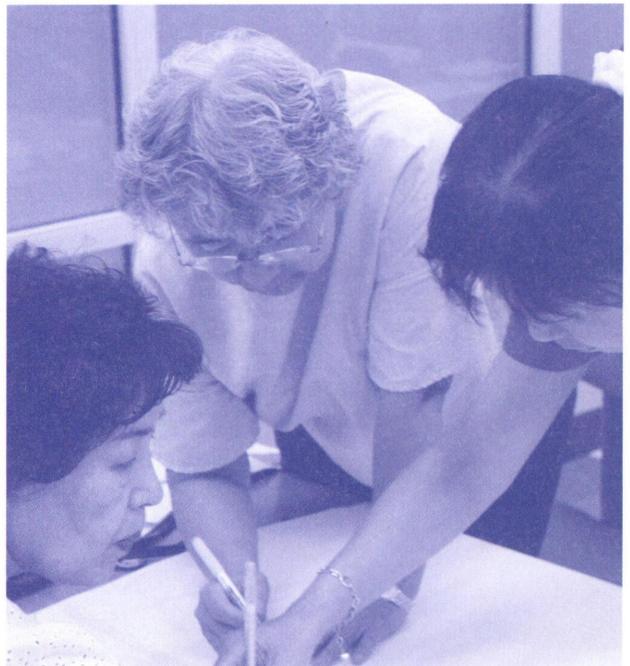


미사리 산책길 립 자료조사 및 수진



**피드백2.**

조사결과 피드백 & 전시 기획하기





진행과정 3단계 / 과정과 결과 전시

«의왕, 매핑으로 마을 읽기» 전시회

원터마을

원은경, 황혜정, 김영화, 김영선



도롱마을

고동윤, 전태훈, 정분아, 김미라, 이정진

내손2동

김정희, 김신혜, 조은희, 송은아



오전동

박찬덕, 전영순, 정연남

삼남길

강혜숙, 이용기, 박단경



«하남, 일상생활로 마을 읽기» 전시회

건강한 음식  
원지현, 노은정

내미길 마을갤러리

김태란, 박순인, 강신숙



덕풍천

염광숙, 임경재

흙새기 마을

오현주, 전소민, 강경숙, 장순란





아주 어른스러운 산책  
안수경, 임영이



미사리 카페  
정정자, 이상숙

덕풍5일장  
정인아, 김태란, 김금복



진행과정 4단계 / 수료식 & 네트워크 파티



수료식





네트워크 파티



**의왕 박찬덕** 마을큐레이터 과정이 처음이었다. 처음이라 어렵고, 힘들기도 했다. 과정에서 발견하고, 알게 된 것들이 앞으로 내가 지역을 생각하고, 활동하고, 지역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영상으로 의왕지역의 마을큐레이터 활동을 보니 전체적인 맥락이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읽혀졌다. 의왕이 현재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갈등하는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개발이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의왕은 개발 불이 너무 불어서 보존되어야 하는 자원들이 문힐 수도 있을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우리 힘으로는 한 번에 뭔가가 결정될 순 없겠지만 우리의 작은 힘과 작은 생각들이 모아진다면 의왕의 미래에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하남 노은정** 알려지가 심해서 오늘 아침에도 알려지가 돌을 정도로 식단을 조절해야 하는 사람이다. 나처럼 알려지가 있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알려주고 싶었다. 제일 좋았던 건 내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기회가 있어 너무 행복했고 보람찼다.



**하남 이상숙** 2년차이다. 1년차를 해봐서 쉬울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웠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코멘트를 정확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여러 번 했다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1년차라서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가장 중요한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는 것인데 그게 굉장히 창의적이고 좋은 것 같다. 어찌되었든 시작을 하고,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었던 것 같다.

**의왕 고동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두 번째이지만 여전히 어려웠다. 사실 작년 1년차 때는 아쉬웠던 게 몇 가지 있었다. 그런 것들을 후기나 소감문에도 썼는데 2년차 마을큐레이터 과정에서 많이 보완을 해주셔서 놀라기도 했고, 감사했다. 보통

공공기관에서 진행을 하면 빨리 빨리 개선이 되지 않는데 이번 마을큐레이터 과정은 교류의 측면들이 많이 보완되었던 것 같다. 오늘처럼 하남과 의왕이 모이는 네트워크 파티가 있어서 좋다. 기획자분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나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다. 현장에서 같이 얘기 나누길 바랐는데 도롱마을이나 원터마을 등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조언도 해주셔서 특히 좋았다.



**의왕 강혜숙** 결과에 아쉬운 마음이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 신랑과 같이 해서 너무 좋았다. 너무 더워서 주로 밤 12시에 삼남길을 다녔다. 낮 시간에 틈나는 대로 산골짜기에 들어가고, 개울가에도 가고, 즐거운 시간 많이 보냈다. 의왕시를 근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작년 마을큐레이터 1년차를 하면서 골우물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다. 아이들을 데리고 투어도 많이 하고, 의왕을 많이 돌아다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안 가본 곳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엔 삼남길을 신랑과 동행하면서 너무나 즐거웠다. 앞으로도 즐겁게 더 해보고 싶다.

**의왕 이용기** 작년에 선배님이 하는 걸 보고 나도 시간이 되면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내가 수원에서 근무하면서 수원은 화성이라는 좋은 곳이 있어서 역사 공부도 할 수 있고, 자랑으로 내세우는데 의왕은 항상 없다고만 한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보니가 분명히 내세울게 있더라. 우리는 삼남길의 이정표와 볼거리에 관해서 매핑 했다. 하면서 참 재밌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은 삼남길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작업을 해서 땅만 보고 다니는 삼남길이 아니라 볼거리, 이야기가 많은 삼남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영상에서 “하남을 사랑합니다.” “의왕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구가 나왔었다. 지금까지 사랑하고 싶었고,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무엇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할지 몰랐다. 그런데 이번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다. 다음 의왕에서는 투어 프로그램을 해봤으면 좋겠다. 원터마을에서 시작해 내손동을 거쳐 삼남길 지나 오전명동을 걸어 도롱마을까지 가보는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하남 안수경** 하남에 이사 온지 3년이 넘었는데 마음을 못 붙이고 있을 때 마을큐레이터를 시작하면서 마을에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 마을큐레이터는 뭐냐고 물었을 때 거리낌 없이 마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활동이라고 대답했다. 이번에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마을 읽기 작업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은 어머니와의 산책길이다. 생각해 보니 내가 걷는 산책길과 어머니가 걷는 산책길이 다르다는걸 느꼈다. 어머니가 너무 힘드셔서 의자에서 의자까지 힘들게 걸어 다니시던 것이 생각났고, 의자에 대해 남다른 느낌을 받았다. 마을큐레이터를 하면서 마을에 대한 주민의식이 많이 생긴 것 같다. 우리 동네의 아름다운 일이나 건물들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마을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싶다.



**의왕 박단경** 삼남길 구간이 의왕에 2구간으로 나뉘져 있다. 인덕원서부터 꽤 긴 코스를 여러 번 걸었다. 이전에 그 길을 산책길로 많이 이용했었는데 이번에 걸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들이 많았다. 삼남길에 그동안 표식이 있는지 몰랐는데 발견하고 나서 깜짝 놀랐다. 발견하는 기쁨이 이런거구나 생각했다. 무엇인가에 호기심을 갖다보니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 같다. 작년에는 뽕연 안개 속에서 초점이 뭔지 잘 몰랐는데 올해는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았다. 비가 많이 오고 날이 안 좋고 덥기도 했지만 즐거움은 더 컸다.

**하남 박순인** 지역 특성상 하남은 도시와 농촌이 같이 공존한다. 그래도 하남은 서울권이라 아파트촌만 생각했는데 의외로 고골 항동이라는 마을에서는 아직도 산신제를 지낸다는 것을 알았다. 아직도 옛날 그대로 제를 지내는 풍습이 남아있다는 것이 쇼킹 그 자체였다. 하남 역시도 계속 개발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통 중에 좋은 것은 소중한 것으로 남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특히 작년에 활동을 한 게 책으로 나왔는데 취재한 분들한테 드리니까 너무 고맙고, 반가워하시더라. 그래서 큐레이터 하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다. 올해는 날씨 관계로 생각했던 것만

큼 많은 성과가 있지는 않았지만 노인정에 직접 가서 노인 회장님을 취재했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취재에 임해주시고, 언제 오느냐 반가워해주셔서 좋았다.

**하남 안수경** 산책길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엄마랑 산책길을 다니면서 그 산책길이 나이 많은 엄마한테는 참 힘든 길이였다는 걸 깨달았다. 엄마랑 인터뷰하면서 산책을 하니 옛날과 다르게 느껴지고 산책길이 끝나면서 점심 먹은 곳이 다르게 보였다. 똑같은 일상이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일상을 다르게 보게 된 것 같다. 사실 엄마와 인터뷰를 하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엄마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인상적이었고, 주제를 참 잘 정했다는 생각을 했다.



**하남 강신숙** 내가 내미길로 시집 간지가 거의 40년이 된다. 30년 전에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그때 찍은 것들과 남편이나 시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사진들을 모았다. 이번에 마을큐레이터 강의를 들으면서 ‘마을 갤러리’라는 걸 들었고, 그게 가슴에 와 꽂혔다. 동네 어르신들한테 옛 물건이나 사진이 있으면 가져다주시라고 말씀 드리면서 사진을 모았다. 어르신들이 앨범을 보여 주셨는데 그 사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사 가서 안 계신 분들 다 있더라. 너무 반가웠고, 보물을 찾은 것 같은 마음이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사진 찍었던게 이렇게 마을큐레이터에서 사용될 줄 몰랐다. 박순인 선생님, 김태란 선생님과 같이 조사하면서 셋이 노인정에 가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인터뷰 했다. 나는 박정열 선생님을 인터뷰 했는데 글을 쓰다보니 부족하게 많았다. 아줌마한테 다시 찾아가가서 “아줌마, 옛날 얘기를 더 해주세요. 살아오신 얘기를 해주세요.” 했더니 군대 간 손자가 어제 왔는데 며느리가 암을 앓고 있어서 엄마가 많이 아프다고 얘기를 해줬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그 집 며느리가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를 해줬다. 며느리가 나보다 10년 이상 어린 사람인데 나를 형님, 형님, 하면서 잘 따랐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일이 마을큐레이터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다.

올해는 내가 생각했던 만큼 많이 못했던 것 같다.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마을 갤러리를 만들어 봤으면 한다.

**하남 영광숙** 서울에서 살다가 하남으로 이사 온 지 2년이 채 안 됐다. 그래서 하남에 대해 전혀 몰랐다. 이번 마을큐레이터를 통해 하남을 알아보니 하남의 덕풍천이 너무 좋더라. 그곳을 6월부터 다녔는데 그때는 수초가 많이 자라지 않았다. 산이 있고 또 그 옆에는 밭에서 나오는 오이, 호박, 깻잎이 있고 아침에는 물안개가 자욱해서 잠자리가 날아다녀 ‘내가 바라는 곳이 바로 여기였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하남이 정말 청정하남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남으로 이사 와서 처음에는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웠다. 그런데 이 마을큐레이터를 통해서 덕풍천이라는 곳을 조사하고, 다른 분들과 함께 하남을 알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앞으로도 하남을 많이 알아보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내가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되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많다.



**의왕 전영숙** 우리 마을이 알고 보니 오전 명동이었다. 우리가 이 주제를 찾기가까지 돌고 돌아 왔다. 스쿨존이나 T존 도로도 찾았다. 우리가 또 잘한 게 팀명이 평강공주였는데 ‘평소에 공부하고, 강의 듣고, 공부하는 주민들의 모임’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정했다.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보겠다.

**의왕 박찬덕** 올해 1년차라 그런지 마을큐레이터라는 정확한 개념을 사실 잘 몰랐다. 막연하게 큐레이터 라고 하면 좀 품이 나서 선뜻 시작했다. 우리 마을 자량을 좀 하자면 오전동 아파트에 사는데 행복학습마을이다. 마을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마을 학교를 활성화하는데 정보를 얻지 않을까 생각해서 마을큐레이터를 시작했는데 거의 한 달은 잘못된 주제를 가지고 맨땅에 헤딩을 한 것 같다. 오전 명동은 우연히 찾은 것이다. 아들이 지금 25살인데 어릴 때 친구들과끼리 “오전명동에서 만나.” 이렇게 얘기 했었다고 한다. 어른들은 그곳을 명동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런데 고등학생들은 거기를 오전명동이라고 한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오전동은 1km남짓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짧은 거리인데 그 거리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상권이 거의 다 형성되어 있다. 보고서에 쓰진 않았지만 오전 명동을 찾고 나서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 학생들의 삶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오전 명동이라는 거리는 학생들의 일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 거리에는 길 하나 사이에 큰 건물들이 5개가 있는데 그 중 4개 건물에 커다란 독서실이 하나씩 다 있다. 그리고 그 독서실 아래층에는 학생들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피자나 떡볶이 등 간식거리들이 있다. 또 우리 마을엔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 많다. 중고등학생 학원은 많지 않다. 그건 학생들의 생활패턴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 보통 엄마들이 초등학교 때는 집근처에서 학원을 보내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좀 더 수업의 질이 높은 대도시, 의왕 같은 경우는 평촌에 학원가가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들 가는데 그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평촌학원가에 들러 독서실에 왔다가 새벽에나 집에 들어간다. 나는 학생들의 패턴을 그렇게 읽었다. 내가 18년을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항상 다니던 길만 다니다가 건물마다 독서실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나이면 지식을 채우기도 해야 하겠지만 마음을 키우고 정신을 키워야 하는데 학교생활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선불리 보고서에 쓰지는 못했다. 이제는 젊은 엄마들한테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 한다. 아이들한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라고 조언 한다. 그래서 우리 마을이 오전명동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도 기쁘지 않았다. 깜짝 놀랐던 것은 보통 걸어 다닐 때 앞을 보고 걷는데 조사하면서 건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서 다니니까 위만 쳐다보고 걸었다. 길 건너에서 누가 나를 볼러도 모를 정도로 말이다. 이렇게 뭔가에 몰입한 게 오랜만이라 참 기뻐다.



**의왕 조은희** 1년차도 시간이 짧게 느껴졌는데 2년차는 시간이 더 짧게 느껴졌다. 마음 맞는 사람들과 기분 좋게 다녔다. 내손동

을 조사했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 하면서 느낀 건 사람마다 같구하는 것도 다르고, 하고 싶은 말도 다른데 그걸 누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다. 마을큐레이터를 하면서 달라진게 있다면 이제는 공동의 관심에 대해 고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해 좀 더 바라보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우리 팀원들에게 나를 2년차라고 역할분담을 했는데 아무도 불만 없이 너무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컨설턴트 민병은**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 작년과 올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과정에서 깊어짐을 봤다. 거의 100% 수료라는 이상한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 생각도 해봤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길만 보이는 게 아니라 길을 보면서 학생들의 삶이 보였고, 흙새기 마을을 보면서 재개발로 밀려나는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보였고, 엄마와 산책하면서 몰랐던 엄마의 삶속으로 조금 들어가 보는 과정도 있었다. 공방들이 밀집해 있는 내손동 거리를 보면서 예술가의 삶도 보인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 삶이 투영돼 마을을 바라봤던 것 같다. 그런 점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냈기 때문에 100% 참석률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박찬덕 선생님이 전시 때 내 이름 석 자를 걸고 전시 해 보는 건 처음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내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단지 참여가 아닌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눈에 보이더라. 발견이 되더라. 관심이 생기더라. 사람들이 이해되더라. 엄마랑 얘기를 하다 보니 거리두기가 되더라.’ 당사자로서 그 얘기를 오늘 다 말씀하고 계신다.

처음 이 사업을 기획할 때 공은실 주임님과 김혜연 과장님의 얼굴 표정이 아직도 잊혀 지지 않는다. “그래서 얘기하는게 뭔데?”라는 얼굴이었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거다’라는 답을 못 드렸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기획자로서 가장 힘든 것은 기다리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시라고 말해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은 줄이고, 바라봐야 했다. 이 자리에 오진 않으셨지만 두 분의 퍼실리테이터 선생님께서 너무 애써서 잘해주셨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잘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역시나 우리 안에 내제되어 있던 힘을 믿을 때 그 결과들도 보여지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내년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장순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그 마을의 삶의 질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계속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상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의왕 김상범** 고생 많으셨다. 공주임과 나도 많이 배웠다. 활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결과들을 잘 풀어내서 어떻게 열매 맺게 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이 했다. 작년에 이어 2년간의 인연을 계속 유지해서 지역의 변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남 이상범** 무더운 여름날 정말 고생들 많으셨다. 20대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 하나가 호이징하의 ‘호모루덴스’라는 책이다.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인데 ‘놀이가 곧 문화다’라고 이야기한다. 큐레이터 사업이 끝나고 오늘 종결을 맺지만 여러분들이 한바탕 놀며 조사한 내용이 곧 오늘을 살아갔던 문화의 흔적을 남기고, 후대에도 남겨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남 김혜연** 이 자리에 와서 한번 더 놀란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너무 잘하신다는 거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 진행을 하면서 실무자이기 때문에 ‘결과물 빨리 내세요, 사진 더 내세요.’ 하며 좀 다그친 부분이 있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 하셨다면 진행 상 마무리 하려고 그랬던 거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의왕에서도 진행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너무 궁금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통해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이야기 나누면서 하남에서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 잘했던 건 우리 하남에서도 도입을 해봐도 좋겠다.

**의왕 공은실**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많이 배웠다. 여러분이 조사한 5개 마을을 과정이 끝나고 그 길을 다시 다 가봤다. 기존에 의왕에 살던 사람들은 그곳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고, 평범하게 느끼는데 나처럼 의왕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이야기 하나 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다. 그런 작업을 더 해보고 싶고, 무엇보다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동료들을 만났다는 게 너무 반가웠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다. 내년은 연합회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원 사업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은 이런 긴 사업이 새롭게 느껴지는데 이 사업 덕분에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끝났을 때 이렇게 좋게 끝나는 사업은 드물다. 좋은 사람 만나 뵈게 돼서 너무 감사했다.

특강 I / 매핑으로 마을 읽기

임재춘



«매핑으로 마을을 읽는 방법»

매핑의 시작, 낯설게 바라보기

대부분은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어야 마을을 잘 알아서 마을 활동에 관여할 자격도 있다고 얘기한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나 마을의 필요가 때로는 마을에 처음 와 본 사람, 마을이 낯선 사람을 통해 발견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동네사람들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잘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실은 중요하고, 지켜져야 할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오래 살면서 무뎠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은 그런 것들을 아주 예민하게 볼 수 있다.

낯선 시선은 매핑에서 새로운 지표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읽고자, 보고자 하는 바가 지표를 통해 드러난다. 그리고 내가 이 지역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역 읽기’이다. 읽기라는 경험이 충분히 쌓였을 때 좋은 기획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뭔가를 배워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성공의 경험도 필요하고, 좌절의 경험도 필요

하다.

어그러짐의 미학

좋은 시선을 얻기 위해선 매핑이 어그러질 수도 있어야 한다. 안 되는 경험을 해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안 됨도 이해할 수 있고, 자기가 설정한 목표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결국 좌절의 경험을 어떻게 배움의 여정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인데 설사 매핑이 잘 안됐으면 왜 안됐는지, 어느 지점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이 큐레이터 과정에 중요한 목표라는 걸 꼭 상기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나치게 손쉬운 방식으로 매핑의 결과물을 얻으려고 욕심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서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설령 매핑이 잘 안되더라도 무의미하거나 실패한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조사했던 곳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매핑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먼저 어슬렁거렸다. 이 지도 작업은 이 동네의 문화자원 조사 연구 과정에서 나온 지도이다. 그런데 문화자원이 무엇을 말하는지 고민했다. 보통 문화영역에서 문화자원하면 도서관, 예술관, 미술관, 공연장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문화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도시개발에서 비껴있던 마을에 도서관이나 미술관이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자원을 새롭게 바라봤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는데 모여서 사부작거릴 장소가 뭐였을까 생각해봤다. 처음엔 정자를 생각했다. 그리고 오래된 동네니까 느티나무를 생각했다.

그리고 구역을 정해 집중적으로 매핑을 시작했고, 한 시간 반, 두 시간 가까이를 걸어서 돌아다녔다.

동네라는 범주를 두 시간 정도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의 규모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

배우 수원시 고색동 배움터



다. 여러분은 이 동네를 잘 모르지만 이 지도를 보면서 같이 동네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동네가 동별로 구획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뭔가 비어 있다. 여기는 수인선 전철, 옛날에 단절되었다가 복원시키는 지하철 공사가 그 당시 진행되고 있었는데 아직도 개통이 안 되었을 것이다.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다. 이것을 통해 동네의 위험요소나 삶의 쾌적함 등에 관해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매핑은 꼭 점을 찍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성 지도들이 다루지 않는 것, 내가 마음이 가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다.

### 사료연구의 필요성

매핑을 하고나서 문화적으로 연구 결과가 의미 있으려면 사료연구도 병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구조사나 사회통계 같은 것도 데이터와 맞춰봐야 한다. 지도로 얻은 정보들을 추론한 것이 실제로 공공기관의 통계자료와 일치하는지 맞춰보는 작업을 함께 해보면 좋겠다. 지도가 지리적으로 정확한 것이 핵심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이다.

### 마을을 흰히 꿰뚫고 있는 사람들 멀리하기

음영으로 표시한 곳이 재개발로 지정된 곳이다. 전체 동네에서 재개발로 지정된 비율이 어떨까? 어마어마하다. 동네 전체를 들어내겠다고 하는 계획인거다. 여기서 안타깝다고 느꼈던 건 재개발 자

체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재개발에 대해 찬성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할 수도 있다. 그 자체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 이 동네의 긴장감 중에는 재개발에 기인한 것이 많았다.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빨리 취소하자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도 갈등이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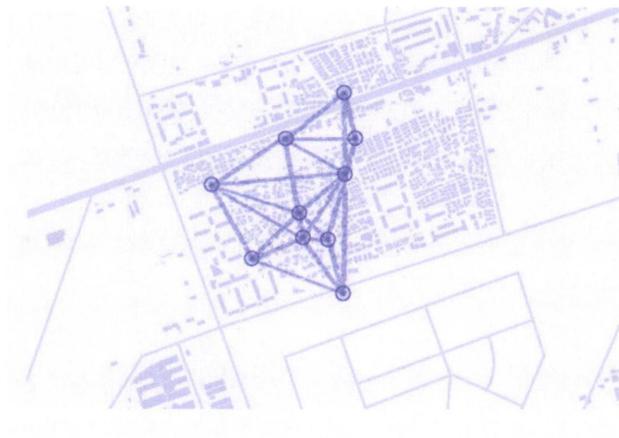
여기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였다. 삶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을 살든 무너진 담장은 보수를 해야 되고, 벗겨진 시멘트를 바르거나 지붕이 틀어졌으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재개발을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손을 안댄 집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것이 의미하는 문제는 단지 집이 아니라 자기 삶을 재개발에 얽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많은 도시들이 그렇겠지만 이 지역은 재개발이 10년 정도 지체된 거다. 쾌적한 자기 삶의 양식을 10년이나 미루고 있었던 거다. 왜 그럴까? 의문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재개발로 인해 현재의 삶을 소박하게 돌보는 정서들을 너무 쉽게 유해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담장이 무너진 상태에서 애들은 거기서 놀고 있다. 그런 상태를 외부인인 내가 목격했을 때 ‘왜 그러지?’라고 궁금하게 생각하지,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핑하면서 세운 몇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원칙 중에 하나가 통장,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낯선 사람이라는 새롭고, 어색한 시선과 우연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문제들은 이미 드러나 있다. 하지만 정작 자기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오히려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마을의 소위 리더나 원숙한 활동가들을 만나보면 이미 드러나 있는 문제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그 얘기들이 진짜 자기 얘긴지 남한테 들어서 학습된 얘긴지 변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 경우는 오히려 인터뷰 대상을 정하지 않았다. 가다가 고구마 까는 할머니를 만나면 쭈그리고 앉아 얘기했다. 실제로 문화인류학에서 참여관찰이라고 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에서 인터뷰 방식을 많이 한다. 그것이 결코 부정확하거나 비과학적인 연구방식이

수원시 고색동, 오목천동, 평동, 평리동





아니라 실제로 많은 문화 연구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다.

### 어슬렁거릴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것은 고물상이다. 이 동네가 걸어서 한 시간밖에 안 되는 동네라고 했었다. 그런데 한 시간을 걸으면서 발견한 고물상만 9-10개가 된다. 왜 그럴까? 처음부터 고물상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다녀보니까 고물상이 계속 보였다. 그래서 일단 한번 매핑을 해봤다. 이 고물상이 의미하는 게 뭘까? '버려지는 게 많다.' '저소득가정이 많다.' '주택이 많다' '지저분하다' '떠난 사람이 많다.' '도시에서 좀 떨어져 있다.' 다 맞다. 여러분은 고색동을 모르지만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이 동네에 맞는 이야기이다.

이 지도에서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 고물상에 대한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환경법이 바뀌면서 고물상이 주택단지 안에 생길 수 없게 법이 바뀌어버린 것이다. 주택단지에 고물상이 없어질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한 가지는 쓰레기가 방치되는 것, 또 한 가지는 노인들의 삶의 복지 문제가 걸려있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청소용역업체가 가져가는 비율과 폐지 줍는 노인들이 줍는 비율이 7:3이라고 한다. 청소용역업체가 3이다. 실제로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노인들이 하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폐지 줍는 노인들이 취미삼아 폐지를 줍는 게 아니다. 삶의 절박함이 있다. 사실 10명 중 7명은 생계문제이다. 만약 고물상이 주택가에서 멀어지면 노인들이 주워서 팔 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주울 수도 없다.

이 사람들의 생존권의 문제와 마을을 깨끗하게 했던 역할이 없어질 것이라는 게 바로 이 고물상 지표에 나와 있다. 고물상 지도를 말씀드렸던 건 처음에 상정하지 않았지만 동네를 다니면서 눈에 띄었고, 확신 없이 무작정 시도하였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매우 중요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다. 그런데 “왜?”라는 의문을 가졌던 결정적인 저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어슬렁거림이다. 동네를 계속 다녔다. 그래서 어슬렁거림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특강2 / 일상생활로 마을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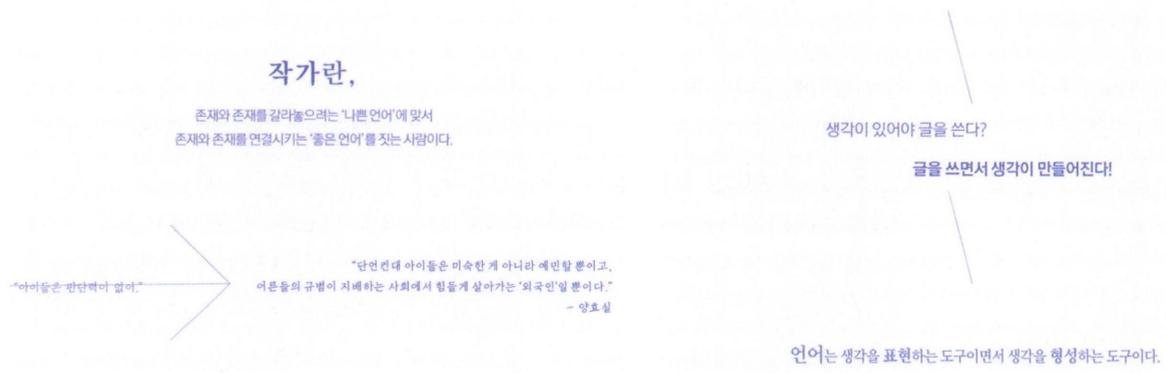
은유



«나와 세상을 잇는 글쓰기»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도 “내가 왜 글을 쓰고 싶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한다. 자기표현은 사람의 본능이라고 생각한다. 미술이던, 사진이던, 음악이던 무엇으로 표현하던 말이다. 우리나라는 특성상 정해진 규칙에 얽매일 때가 많다. 이런 상황일수록 글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글을 쓰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좋은 경향이라고 본다. 하지만 글쓰기를 배워서 자신을 더욱 꾸미려는 사람이 있다. 자신을 과장시키는 것은 나쁜 글쓰기이다.

“글쓰기를 왜 해야 할까?”라고 물었을 때 “거짓 자아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싶다. 한마디로 자기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자기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만이 앞서 말한 서사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자소설’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세상은 우리를 거짓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



우리는 다양한 질문에 나의 생각과 의견을 또렷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보통은 생각이 있어야 글을 쓴다고 하지만, 사실 글을 쓰면서 생각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글을 써야만 내 생각이 무엇인지 나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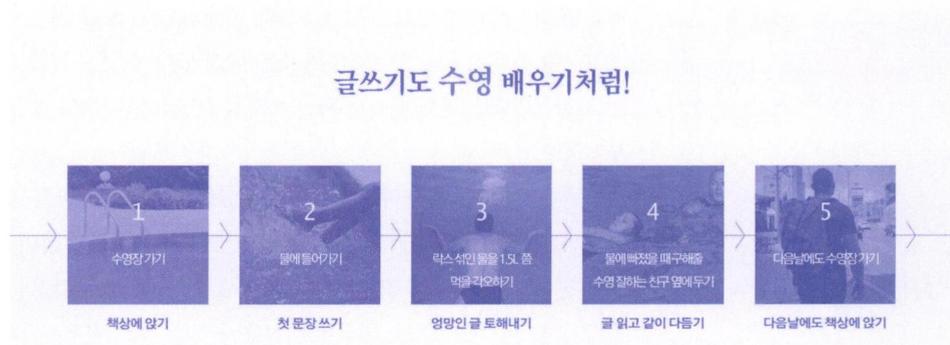
인간의 욕망은 복잡하다. <효리네 민박>에서 이효리씨가 “제주도에 조용히 살아 좋기도 하지만 대중에게 잊혀지고 싶지는 않다.”고 말한 것처럼 말이다. 쓰기 전에는 내 생각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글쓰기는 기술이 아니라, 생각의 근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생각의 근력은 바로 ‘사고력’이다. ‘나’라는 존재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글쓰기는 ‘세상을 읽어내는 관점 만들기’

글쓰기는 사실 ‘관점 만들기’이다.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풀어낼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다.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일인 것이다. 여러분들이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생각은 하는 것이 아니라 낳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다. 아이를 낳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의미다. ‘삶에 대한 설계’, ‘세상을 읽어내는 나의 관점’ 이런 것들은 글쓰기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다. 불가능하거나 어렵지는 않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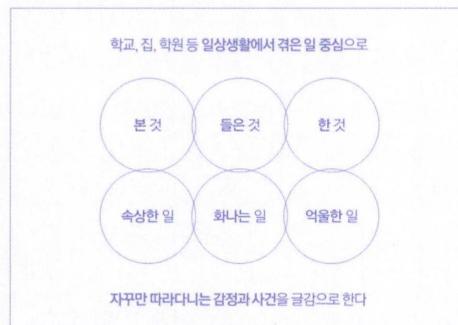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조금씩 시작하시면 된다. 수영과 글쓰기는 공통점이 많은데 일단 수영장에 가야 하는 것처럼 일단 책상에 앉아야 한다. 또한 이론보다는 실전이 중요하다. 수영 초보자들에게 물이 입에 들어가는 게 괴롭듯이, 엉망인 글도 자꾸 봐야 한다. 글쓰기는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줄 수 있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동료가 있으면 더 좋다. 그리고 꾸준한 연마와 부단한 노력을 위해 규칙적으로 시간을 확보하고 투자해야 한다. 결심으로 되는 일은 없다. 반드시 시간을 내야 한다.



### 관찰력이 좋아야 좋은 글감을 찾는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관찰력이 좋아야 한다. 경험이 제일 좋은 재료이고, 사유의 광맥이다. 내가 본 것, 한 것 중에 쓰면 되는데 가능하면 나쁜 일, 슬픈 일로 쓰면 좋다. 떠올리기 싫고, 구체적으로 쓰기 힘든 경험일수록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약자들의 글쓰기가 필요한 이유도 이러한 맥락과 비슷하다. 나에게 설명 되지 않는 것들을 계속 설명하기 위한 노력, 이것이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수원에서 글쓰기 교육을 할 때 한 70대 할머니에게 수업소감을 여쭙보니 “관찰력이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 세상에 나와 상관없는 일은 없다.

### 글감 찾기



### 내러티브 글쓰기,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읽는 사람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스토리텔링을 담아야 한다. 그럼 보여주는 글은 무엇일까? 있는 그대로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보여줄 수 있는 글이어야 한다. 만약 타인의 처지와 형편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추상화를 통한 묘사방법이 있다. 소설의 3가지 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듯이 중심요소만 등장한다면 내러티브 글쓰기는 분명 가능하다. **글쓰기는 타인의 설명에 내가 압도당하지 않도록, 내가 내 자신을 설명하는 일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글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러한 시도가 계속 될수록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들이 바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불우한 가정환경에 대한 차별처럼 말이다. 휠체어를 탄 한 명의 아이를 위해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하듯이 단 한명을 위한 제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휠체어를 탄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 글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포인트

허세가 있거나 자기중심적이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글쓰기는 사회적이고 공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쓰기는 반드시 독자를 미리 상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 생각을 감정적으로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쓰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글쓰기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 신기한 것들에 한 눈 팔지 말고, 당연한 것들에 질문을 던지자

이성복 시인의 말씀인데 시뿐만 아니라 모든 글쓰기에 통용될 수 있다. 주부인 나도 “밥은 왜 매일 내가 할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 자꾸 글을 써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개진하다보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정확하고 간결하게 쓰셔야 한다. 주례사와 교장선생님의 훈화 말씀처럼 지루해서는 안 되겠다. 부사와 접속사도 될 수 있는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근거와 사례만 탄탄하다면 글이 세련되고 깔끔해진다.

### 과잉감정 금지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 감정을 과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실(fact)만 넣어주는 것이 좋다. 어떠한 상황과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글의 기준은 ‘글을 쓴 사람이 보이는가’이다. 자신으로부터 출발해 연결고리를 연결해 나가는 것이다. **단순한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새로운 해석이나 질문이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한 글에는 하나의 메시지만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너무 많다면 교장선생님의 훈화 말씀처럼 지루할 수도 있다.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글쓰기는 만인에게 공평하다는 것이다. 어떤 삶을 산 사람도 자신만의 고유한 목소리와 경험이 있기에 다양한 글이 나온다. 글을 쓰면서 타인과 나를 함께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작가의 재능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희귀하지 않다.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지루하고 고독한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다.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는 추상적인 의미이다. 또한 각자가 다양한 글을 써보고 타인과 나누어 봄으로써 생각의 교류를 할 수 있고, 더욱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글쓰기는 인생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비이다.

## 공동체에 대한 성찰의 기회

공은실 의왕문화원 주임

의왕문화원과 함께하는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II 사업은 작년에 이어 마을을 새로운 방법으로 조사하는 작업이었다. 현재의 의왕을 큐레이팅 해보고 싶은 주민들과 1차년도 활동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매핑을 적용해 보고 싶은 주민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5개 팀을 나눠 3개월간 매주 한 번씩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마을을 단순히 지리적 요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을을 어슬렁거리보고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자료를 선별하고, 배열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우리가 잃어낸 의왕은 어떤 곳인지 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의왕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모여 사는 곳, 마을의 삶을 담고, 삶의 조각들을 모아 의미를 부여하여 매핑 작업을 통한 새로운 시각을 투영시켰다. 내가 보고자 하는 걸 직관적으로 매핑 하고, 표시하고 다시 해석하는 작업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처음 시작했던 인원 중에 단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전원이 수료하는 성실함을 보여줬다.

다음은 개성 있는 다섯 팀의 매핑 내용을 참여자 분들의 소감문을 통해 발췌하고 거기에서 느꼈던 부분을 요약했다.

### “오전명동 팀” : (박찬덕, 전영순, 정연남)

18년이나 살아온 오전동, 그동안 무심코 지나다닐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 둘 보였다. 아파트 밀집지역인 오전동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높은 건물이 없다는 것도 매핑을 하고 나서 알았다.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2~3층 짜리 낮은 상가들이 있고 거의 모든 상가의 2층엔 식당들이 위치해 있었으며 철물점은 한 곳뿐이었고, 산부인과병원은 없어졌다는 것도 매핑을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이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우리 동네에 학원이나 독서실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참 많다는 것이다. 웬 학원들은 그리 많은지 영어, 수학, 컴퓨터, 미술, 태권도, 검도 등 전 분야를 망라하는 학원들이 있어 정말 놀라웠다.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과 독서실이 많았는데 이것으로 학생들의 생활패턴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도보로 15분 남짓이면 관통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중심부에 그 동안 몰랐던 사실들이 많다는 것은 참 새로웠다.

“오전명동”은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는 명동이고 학생 문화의 꽃이었다.

매핑을 통한 이 지도가 신입생들의 학교생활과 새로 이사 온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길 기대해 본다.

### “도롱마을 팀” : (전태훈, 고동윤, 김미라, 정분아, 이정진)

도롱마을은 행정구역상 월암 2동 마을회관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4~5백년은 족히 된 오래된 마을이다.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과 성씨, 길의 변화에 주목하여 변화에 따른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조사하였다.

성씨매핑은 지번과 사진이 포함된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마을 사정을 잘 아시는 최병복 노인회 총무님께 상세한 내용을 여쭙고 내용을 채웠다. 매핑을 위한 주요 항목으로는 대표 성씨, 거주자 분 세대수, 회사인 경우 이전에 집이었는지 내대지였는지로 나눴다. 성씨는 집을 기준으로 도씨, 최씨, 이씨, 조씨, 이사 온 집 이렇게 5개로 나눴다. 주요 성씨인 도씨, 최씨의 경우 몇 세대가 사는지 표시했다. 회사는 이전에 집터가 있는 자리였는지를 분리해서 표시 했다. 길은 새로 생긴 길과 예전 길을 구분했다. 마을을 특징하는 경부철도와 하천을 추가했다.

매핑 결과 성씨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같은 성씨끼리 모여 있는 모습이고, 도씨와 최씨의 경우 도씨는 위쪽, 최씨는 아래쪽에 지리적으로 나뉘서 거주하고 있었다. 새로 이사 온 집들은 대부분 빌라 또는 복층으로 집을 짓는 모습이었다. 대부분 1세대가 거주하는 고령화 마을이다. 마을 구석구석을 확인 해 보니 옛 모습 그대로 집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도씨 · 이씨 · 최씨 · 조씨 각각 골고루 분포했다. 현재 공장 또는 회사인 경우 이전에 집터인 곳이 있는데, 전체 공장 중 반 정도가 집터였다. 이 부분에서 그 동안 궁금해 했던 “마을이 변했는데, 왜 그럴까?” 라는 의문이 풀리게 된다. 길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사람이 사는 낮은 집들이 2층 공장으로 바뀌면서 마을이 변했다고 느껴지게 된 것이다.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로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기반 시설이지만 그로 인해 마을이 단절된다면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다. 도시개발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삶의 변화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찾은 매핑이었다.

### “삼남길 팀” : (이용기, 강혜숙, 박단경)

삼남길은 해남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긴 걷기 길인데 ‘짚신 신고 보따리 메고 떠나요’ 라는 주제로 매핑을 하였다.

인덕원에서부터 지지대고개까지 15킬로에 이르는 구간을 걸어서 그 구간의 자연경관과 이정표 화장실 등을 색깔로 분류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으며 삼남길 구간에 없는 것,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까지 자세하게 매핑하였다.

삼남길은 의주길 영남길과 더불어 지방에서 한양으로 가고 오는 제 1 관문길이다.

한양에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가는 1000리길 조선의 대로로서 선비들과 보부상들이 이 길을 걸어 지방을 오갔고 인덕원에서는 이순신장군이 전라좌수영으로 부임 받아 가는 길에 쉬었던 곳이라고 한다. 정조임금의 사도세자 능행차 때에도 인덕원에서 6번이나 쉬어 가셨다는 기록이 있고 강진으로 유배길을 가던 다산 정약용도 이 곳을 지나갔다고 한다. 인덕원은 의왕, 안양, 과천의 분기점으로 임진왜란 때나 한국 전쟁 때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다. 과거에 원이 있던 자리였다고 하는데 골목길 들어와 삼남길 초입에 돌로 만든 표지석이 그 유래를 일러 주었다.

삼남길 팀은 삼남길이 좋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까지 덧붙였다. 이정표들의 관리와 봉사단을 조직하여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봉송아를 심어서 꽃길을 만들고 싶고, 주민들과 좀 더 친해지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었다.

“내손동 팀” : (송은아, 조은희, 김정희, 김신혜)

내손동 스토리는 큐레이팅을 통해 내손2동의 카페와 공방들을 매핑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입이 즐거운 곳, 눈이 즐거운 곳, 손이 즐거운 곳, 모두 모여 즐거운 곳으로 나눠서 매핑 했다. 입이 즐거운 곳에는 맛있는 먹거리가, 눈이 즐거운 곳에서는 다양한 볼거리가, 손이 즐거운 곳에서는 아기자기 조물조물 만들어 볼 수 있는 경험거리가 있는 곳이고, 모두 모여 즐거운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나눠보았다.

세상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우월해지고 뛰어나야 행복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손2동에서 만난 사람들은 세상은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즐거움을 오래오래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도시 계획이나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이곳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큐레이터를 하며 어떤 한 현상이 있기까지는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면 양측을 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리하게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인내해줘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누구를 위한 공동체이고 발전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다.

누구나 각자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연계하며 먼 지역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 소규모라도 서로 뜻을 맞춰가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

“원터마을 팀”: (원은경, 김영선, 황혜정, 김영화)

경기도 기념물 제 176호인 하우현 성당이 있는 원터마을은 과거 조선시대 동양원이라는 역원이 있을 정도로 번성하였던 곳이었는 데 현재는 20여 호의 가구가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다. 동양 원터는 단순히 과거의 인천-제물포-이천-여주를 잇는 간선로가 통해 있는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속에서 역사와 역사를 잇는 길이다. 또한 자연과 공감하고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는 길이라는 걸 발견하였다. 또한 흙길, 비포장길, 아스팔트길의 변화도 느껴보고 사소하지만 농작물과 다양한 꽃들도 매핑하였다.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보였고 역사적 의미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사해 보고 싶은 의미 있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이상은 다섯 팀의 매핑 내용이었다.

이번 큐레이터 과정을 통해 얻은 가장 의미 있었던 점은 사람과 사람 ‘우리’를 알게 되었고 ‘공동체’에 관한 그동안 느꼈던 추상적인 형상들이 좀 더 구체화된 것이다. 공동체는 정주의 단위를 기본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회집단이다.

마을큐레이터 구성원들은 지리적 공간이라는 의왕 안에서 매핑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상호작용하였고, 심리적 유대감을 넓혀 각자의 팀별로 마을의 삶을 읽어냈다.

매핑을 통한 마을 읽기 과정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같이 공감하고 함께 살아가갈 때 개인의 행복 가치가 부여되고 문화원은 이 공동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제는 말만 들어도 정겨운 오전명동, 도룡마을, 삼남길, 내손스토리, 원터마을의 낯설게 보였던 소중한 자산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로 전달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콘텐츠화 되거나 스토리텔링화 시킬 수 있는 전문성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올 한해 의왕문화원은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통해 가능성의 관계를 이끌어 냈다. 사람이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하여지는 양적 증가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연결에서 나타나는 무한 가능성을 통해 함께 만들어 가고 발전시켜 나감을 의미하기도 한다.

함께 참여하고 고생한 19명의 빛나는 사람들과 모든 일정에 지혜를 주신 임재춘 퍼실리테이터, 기다림을 기뻐한 민병은 컨설턴트, 그리고 뜻깊은 기회를 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 감사함을 표한다.

## 개입과 거리두기 사이에서 역할 찾기

김혜연 하남문화원 과정

올여름 한창 더운 여름을 하남문화원의 마을큐레이터 분들은 여름보다 더한 뜨거운 열정으로 지냈다. 하남문화원은 2년차 진행으로 2017년에 참가자 중 10명이 참가를 하고 나머지는 신규 인원이 참여 하였다.

글쓰기에 대한 강의가 초반에 진행이 되어 글을 쓰는 부분에 부담을 덜 느끼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2017년 사업 진행시 참여자들이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 수월치 않았었다. 강사의 수업은 나를 반영한 글쓰기가 왜 중요한지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간단하면서 명료하고, 담백한 글쓰기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 덕분에 작년보다 좀 더 객관적인 '나'로부터 시작한 마을 읽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큐레이터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수월치 않은 점이 많다. 신규참여자 모두 생소한 사람들과 조를 만들어 일을 꾸미는 일이 수월치 않아 보였다. 2년차 분들은 그 동안 생각해 둔 아이터를 바탕으로 먼저 조사하기를 원했고 신규 참여자들은 방향조차 잡지를 못하고 있었다. 두 부류는 기름과 물처럼 서로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 서로 섞는 윤회제 역할이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상대방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마을 읽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러한 서로의 혼란은 컨설턴트와 퍼실리테이터의 정리로 점차 방향성을 잡았다.

**내미길 마을갤러리(강신숙, 김태란, 박순인)** 팀에서는 강신숙님이 그동안 내미길의 집안을 조사를 하고 인물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알고 있어 조사에 들어갔다. 박순인님은 '기억나니'라는 한정식집을 조사를 하였는데 조를 이루고 아이터를 집중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가졌던 고집을 버리고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주제로 정한 듯하다. 내미길의 어르신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동네의 마을 민속제례인 향토 금암산 산신제에 대한 구술 자료를 얻게 되어 방향을 잡았다. 이 제례는 마침 우리원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 어르신들의 인터뷰가 어렵지는 않았을 터이다. 김태란님은 강신숙님과 함께 내미길 어르신들의 삶에 집중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장점은 강신숙님의 동네라는 것이다. 이 동네는 강신숙님이 통장을 하고 있고 동네 분들의 안면과 호구를 모두 파악하고 있어 애착도가 높고 수월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점은 다른 조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낯선 동네에 이끌려지는 대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참여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고 일의 배분이 특정인에게 집중이 되어 혼자 하는 작업과 조 작업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

다. 어려움의 호소에 나 또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구성원들의 인간적 한계를 낮추는 데에만 급급했다. 결과물은 어느 조 보다 훌륭하였지만 역할문제, 참여도의 열정이 개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어르신들의 조사결과물은 문화원에 전시를 하였고 동네 분들의 열의에 따라 마을전시회를 따로 갖고자 하는 강신숙님의 열정이 있어 어르신들의 자료는 계속적으로 연계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든다.

**건강한 음식(노은정, 원지현)** 팀의 조사는 건강과 맛에서부터 시작을 하였다. 원지현님은 여섯 살 아이를 둔 젊은 세대부모이다. 요즘 세태를 반영하듯 본인의 일을 똑 부러지게 찾아다니고 열심히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다니는 엄마이다. 아이와 밸리댄스를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아이의 간식거리를 위해 덕풍시장에 자주 갈 일이 있었는데 아이가 떡을 많이 좋아해서 주로 떡집에서 간식을 준비했다. 시장의 떡집마다 잘하는 떡 종류가 다르고 맛도 달라 시장 떡집지도를 만들면 재미있을 거라 생각했다. 덕풍시장은 하남사람이면 한번쯤은 들리게 되는 5일장이다. 그리고 이 5일장과 떨어진 상시시장인 신장시장이 있다. 원지현님은 이 두 개의 시장을 중심으로 맛이 다른 떡집을 조사하였다. 같은 조의 노은정님은 알레르기가 심하여 음식조절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다. 하남 여기저기 맛집을 돌아보며 본인과 같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을 위해 음식점지도를 만들고 싶어 했다. 음식점은 주로 유기농 재료를 중심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순두부집과 한정식집을 소개해 주었다. 나도 여기를 자주 이용을 하는데 하남의 이러한 음식점이 있다는 점을 나 또한 주변사람에게 홍보를 하고 싶어 했는데 노은정님의 건강과 연결된 조사로 인해 우리하남의 좋은 맛집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나또한 즐거운 일이었다.

**덕풍천(임경재, 염광숙)** 팀은 물과 하남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임경재님은 남성 혼자 참여를 하였다. 과거 토목공사에 종사를 한 적이 있어서 하남의 물, 댐, 개발에 대해 관심이 남다르다. 염광숙님은 요식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올해 비로소 같이 사업에 참여를 했다. 진행 초기에는 하남의 맛집과 나에게 맞는 요리법이 있는 상점조사를 원했는데 다른 분들의 아이터를 들고 임경재님과 같이 덕풍천에 대해 관심을 갖기로 했다. 조사과정에서 임경재님은 2년차이고 염광숙님은 1년차 참가자로서 임경재님이 주로 리드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분은 주로 자전거로 한강의 이야기를 찾아다니셨고, 더운 날씨에 새벽부터 움직여 사진을 찍고 지도를 보며 지역을 돌아다니고 생태하천 및 가족 문화 체험장을 구상하였다. 생태하천을 이용한 체험장의 구상은 우리 큐레이터가 하기에는 벅차고

큰 그림을 그리셨기에 중간에 몇 번 대화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의 조사를 이야기했다. 염광숙님 또한 임경재님의 큰 그림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분의 의견을 조율하기가, 아니 임경재님의 큰 그림을 작은 그림으로 옮기기가 우리의 큐레이터 사업에 맞게 조절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다.

그래도 두 분의 하남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지역을 알아보고픈 열정이 이러한 난관을 넘을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결과물 또한 두 분의 조사과정의 땀과 열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반짝반짝 빛나는 전시물이 되었다.

**미사리 카페(이상숙, 정정자)** 팀의 미사리 카페촌에 대한 조사는 처음부터 목적과 조사대상이 확실하여 끝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 우리지역의 미사리 카페는 하남의 대표적 상징으로써 유명했다. 나 또한 서울에 살던 시절 미사리 카페촌으로 원정을 올 만큼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찾는 장소였다. 지금은 모습이 거의 사라지고 개발된 모습만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이러한 점이 이상숙님과 정정자님에게도 같이 느껴진 것 같다. 하남이 개발될수록 간직되어야 할 것들이 없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의 경제적 현상과도 연결이 된다. 땅값이 올라가고 길이 넓어지고 출연하는 가수의 개런티가 높아지고 개발이 이어질수록 작고 사소한 것들은 점차 뒤로 밀리게 된다. 우리지역의 여러 중요한 유적지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없어지고 우리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미사리 카페촌팀은 예전처럼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모색과 하남 시민으로써 잊혀져가는 추억을 지켜야하는 정당성을 설명하고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하는 방향까지 설명하였다. 이상숙님과 정정자님은 친구사이였고 2년차 이상숙님의 노련한 리더쉽과 1년차 정정자님의 열정으로 전시물까지 무난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전시하는 날 이상숙님은 전시물 앞에 향초를 피우시고 커피메이커를 준비하여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효과를 얻었다. 준비된 소품과 미사리 카페라는 주제를 잘 연결 해놓은 예라 할 수 있다.

**아주 어른스런 산책(임영이, 안수경)** 팀은 산책길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안수경님이 미사리에 이사 와서 하남을 알고 싶어 작년에 마을큐레이터로 조사를 했던 2년차 참여자이다. 임영이님은 하남 역사박물관의 해설사로 평소 하남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이다. 하남에는 산책길과 걷는 코스가 많다. 하남의 자랑거리 중 자연환경을 들 수 있는데 이 환경을 이용한 산책길은 남녀노소, 동물 모두 좋아하는 길이 잘 닦여진 곳이다. 이러한 천연보물인 산책길을 두 분의 예리한 눈으로 큐레이팅을 하였다. 산책길이 길고 많은 만큼 유지비용은 그만큼 많이 든다. 또한 사람들과 반려동물들이 많이 이용할수록 각종

쓰레기와 분변이 주위를 더럽히고 눈살을 찌뿌리게 한다. 안수경님과 임영이님이 조사한 우리의 산책길도 별 다를 리 없다. 하지만 안수경님은 좀 더 자세한 시선으로 산책길을 조사하였다. 노모와의 산책길에서 어머니가 힘들어 쉴 수 있는 의자를 관찰한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많이 걷지도 않지만 꼭 산책을 하는 이유 또한 있었다. 모든 일은 관찰을 하지 않고 넘기면 나에게 의미가 없다. 여기에 관찰과 의미를 부여하면 나에게 좀 더 새로운 환경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안수경님은 어머니가 산책을 하시면서 사색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어머니의 지난 과거 고생하며 자녀를 키우신 인생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 절절한 단어요, 우리의 가슴에 따스함으로 남겨진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산책길에 발걸음이 느리고 의자마다 쉬어가는 어머니가 가끔 짜증이 나고 힘이 들만도 한데 안수경님의 눈에는 어머니의 인생의 노곤함과 따스함을 느낀 듯하다. 임영이님은 객관적인 시각화에 중점을 두셨다. 산책길을 다니며 쓰레기가 의자위에 딱하니 버려져 있고 음료수까지 담겨있어 벌레가 꼬인 모습은 고개가 절레절레 돌아가곤 한다. 플라스틱의 유해문제, 빨대의 바다동물습격 등 많은 사건이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어 일회용품을 나 자신도 쓰지 않으려 노력하건만 우리시에 사는 주민이 우리 동네에 이렇게 버리고 가면 누가 치우나? 내 집에서든 그렇게 버릴까? 임영이님의 사진자료에서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누군가 해야 하고 알려야한다고 생각이 든다. 포토샵으로 근사하게 결과물을 전시하신 두 분의 열정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

**흙새기 마을(전소민, 장순란, 오현주, 강경숙)** 팀은 골목이라는 주제를 잡고 조사를 다녔다. 장순란, 전소민, 강경숙님은 2년차 조사자이고 오현주님은 1년차 조사자이다. 2년차분들이 3명이 있어 어렵기도 하고 쉽게 갈 수도 있다는 걱정반, 기대반을 갖고 있었다.

이 지역은 우리문화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골목이다. 주택과 가게가 있고 내년이면 재개발이 들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현란한 현수막은 반대와 찬성을 주장하며 항상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기도 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어 말만 시켜도 좋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권이다. 이분들도 조사를 하시면서 가게에 들려 조사를 부탁하면 시청어나 가버리라는 소리를 듣거나, 아예 말도 못 붙이는 경우도 있었다 한다. 그 말을 듣고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들어 조심하시라는 당부를 몇 번을 했다. 다행히 오래된 마트주인은 흙새기 골목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주인이지만 그 가게의 음료를 사드리면서 취재를 했다고 하니 센스만점! 이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면 아는 것만큼 보이게 된다.

골목하면 뭔가 따뜻하고 정감을 느낄 수 있다. 주로 공동

체 생활이 사라지고 개인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현대의 대도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공간과 장소를 만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돈과 이해관계가 얽힌 그곳에는 서민들의 한숨과 외국노동자들의 땀이 뒤섞여 있다.

장순란님은 흙새기의 전체적인 느낌과 골목의 이야기를 풀어 나아갔다. 강경숙님은 그 골목의 오래된 인물을 중심으로 흙새기의 낯선 분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정을 조사했다. 여기에 오현주님은 재개발이 얼마 남지 않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자주 이용하는 식당을 중심으로 흙새기와 외국인 노동자, 재개발을 풀었다. 전소민님은 3명의 아이를 둔 젊은 엄마이다. 흙새기 골목을 조사하면서 어른들의 이야기와 장순란님의 아이템 속에서 골목 놀이를 조사했다.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디지털과 멀어지고 놀이터에서 많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이 조는 조사를 하실 때 마다 우리 문화원을 들렀는데 항상 얼굴이 빨갛게 익고 땀범벅으로 들어왔다. 정말 송구스러운 순간이었다. 하지 말라할 수도 없고 계속 하시라는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많은 사진을 전시함으로써 조사를 마쳤지만 조원들의 아쉬움은 많이 남아 있어 내년도 사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덕풍5일장(이종식, 정인아, 김금복)** 팀은 앞서 떡집을 조사한 원지현님의 조사장소와 같은 곳이다. 덕풍5일장은 매달 4와 9가 들어간 날짜에 열리는 장이다. 김금복님은 평가회 날 수박을 집적 시장에서 구매해서 ‘이것이 바로 덕풍5일장이다.’라고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실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었다. 5일장의 사연과 장사하는 분들의 이력을 따라 조사를 하니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각각의 사연이 풀어져 내려갔다. 김금복님이 2년차 조사자이고 이종식님과 정인아님은 1년차 조사자이다. 이종식님은 하남에 이사 와서 남편과 처음 가본 곳이 이곳 덕풍시장이라고 했다. 두 분이 양손가득 장을 보고 좌판에 앉아 막걸리 한잔에 빈대떡 한 장으로 먹고 끼니를 채우고 손자, 손녀가 놀러오면 항상 데리고 간 곳이 시장이었다. 하남의 자랑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 조사의 주제로 삼은 듯하다. 덕풍5일장팀은 음식에 관심이 많은 정인아, 김금복 두 분이 있어 주제선정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시장에서 프리마켓으로 음식을 만들어 어려운 분들을 식사 대접하는 아이템이 있었고 덕풍시장에서 구매한 재료로 주위 분들과 음식을 나누고 싶은 아이템도 있었다. 3명이 하기에 너무나 벅찬 주제였고 강의가 진행이 될수록 점점 주제의 목표가 확실해지면서 난해한 것들은 가지치기를 했다. 그런데 컴퓨터 조작에 대한 부분에서 힘들어 했고 중간에 사진이 지워지는 아쉬운 과정을 겪으면서 처음의 열정이 많이 꺾인

듯하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 조사였다.

마을큐레이터 사업을 2년 동안 진행 했다. 추진 목적에 맞게 지속적인 지역소재 발굴 및 지역특색을 반영을 하며 진행을 하였고 조사자들의 역량강화로 활동가를 양성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지역의 의미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아쉬움이 남고 보람도 많이 남는 사업이다. 하남팀의 담당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결과물을 내기까지 세세한 피드백을 담아야 했다. 컴퓨터를 못하는 참여자는 한글파일을 만들어 드리고, 핸드폰의 사진을 결과물에 옮기고... 단순한 작업이지만 이러한 조그마한 도움은 조사자분들에게 큰 도움으로 다가가 다행이라 여겨진다. 조사과정을 함께 느끼고 조사과정 중 팀원 간의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해결은 못했지만 방향을 잡아 갈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쉽게, 쉽게 넘어가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다. 세세하게 들어가면 모든 팀의 목소리를 다 들어야 한다. 그 중간 어디쯤 외줄을 잘 타야 객관적 시각으로 직언할 수 있고 정확한 피드백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 마을큐레이터 사업은 사람 간 소통을 하는 것에 더 힘이 들었다. 소통은 항상 힘들지만 참가자 모두 개성 있는 성격과 열정, 연륜의 힘을 보여주어 올해 사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내년의 사업에서는 좀 더 심층적이고 전문화된 마을큐레이터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며 하남문화원에서 도 많은 준비를 해야겠다.

여 백

## 일상 속 호모 비아토르(Homo Viator)

오다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연구원

### 지역에 어떤 사람을 남길 것인가, 문화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지역에 주체가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소위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 많이 했던 말이기도, 지방문화원으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하다. 문화원의 성과를 모아 축제나 전시의 장을 만들고자 했던 경기도문화원연합회로서는 분명 문화원에서 하는 일도 많고, 결과물도 많은데 정작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문화원 직원이 전부인 것에 항상 아쉬워했다. 왜 지역 사람 중에는 관계를 맺고 함께 일할 사람이 부족할까?

문제에 대한 진단을 시작했다. 과연 지역에 함께할 사람이 없는 것이 맞는가. 분명 다른 문화기관에서는 주민 참여 사업이며, 마을 만들기며,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이며 주체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문화원은 사람이 부족하다고 할까. 그렇다면 문제는 지역이 아니라 문화원이 지역 사람들과 함께 일할 여력이 부족해서 일수도, 방법을 찾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고민을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는 지방문화원과 지역사람(활동가)이 어느 수준 까지 협력할 수 있을지, 협력한다면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일종의 실험으로써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다. 목표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문화원과 함께 일할 10명의 마을큐레이터를 양성하는 것이며 이들과 최종적으로 전시 또는 축제 등 문화원 관련 사업, 콘텐츠 등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목표와 참여자의 자발성과 창의력을 끌어내 자신이 사는 마을을 조사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되, 구체적인 진행 프로세스나 대상, 방식 등은 최대한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따라서 하남과 의왕의 실행 방법과 구체적인 목표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하남은 연계 가능한 지역 활동가나 동아리가 적었다. 새롭게 사람들이 발굴되어야 했다. 기존 문화원 회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참여자가 모였다. 2년차 역시 문화원과 연결고리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을 찾기 위해 신규모집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기존 참여자 일부 참여). 연령대는 5~60대가 대다수로, 방식은 이들이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나’의 이야기와 ‘지역’의 이야기가 중첩되는 ‘이야기 찾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의왕은 활동가들을 재교육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마

을큐레이터 사업 1년차에는 의왕시에서 활동하는 향토문화연구회와 청계동을 중심으로 한 주민 활동가들이 문화원과 처음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 하였으며 이들이 2년차에도 참여를 위해, 올해는 의왕시 마을활동가를 중심으로 ‘매핑으로 마을 읽기’ 심화과정을 진행하였다.

하남은 개별적인 활동가를 문화원에서 발굴해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방향으로, 의왕은 기존 활동가, 동호회, 마을 조직과 관계를 맺고 이들과 연계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2년차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 더듬거리며 보이기 시작한 것들

사실 2년차에는 시작부터 다를 줄 알았다. 좀 더 수월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조율하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명쾌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과정 중에 참여자간의 갈등으로 그만두는 사람이 생기고, 팀별 조율 과정에서 주도 하는 사람이 생기는 반면,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했다. 기본적인 원칙이나 생각했던 방향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듯한 생각이 들 때는 우리가 너무 어려운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민병은 선생님이나 경험 있는 선배들이 해준 ‘한 발짝 떨어져서 보자’는 조언이 불안해서 뭔가 더 얘기하거나 더 해보려고 했던 마음을 가라앉혔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몇 번의 과정을 겪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평가회를 했을 때 작년과 다른 올해의 성과들이 보였다. 하남의 한 참여자가 재개발 지역인 ‘흙새기 마을’에도 여전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을이 공동화되면서 이 사람들의 문화도 없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자 이 같은 문제제기에 공감하는 참여자들이 예술가 레지던시를 제안하기도 했고, 게릴라 전시에 대한 아이디어, 마을 사람들과 ‘만인의 식탁’을 차려 함께 식사하는 프로젝트 등을 제안하며 아카이빙 작업과 문화 재생에 대한 그림을 함께 그리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나는 포토샵을 잘하니 디자인 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사진을 찍겠다’, ‘기록을 하겠다’ 역할분담이 되었다. 다음에는 ‘흙새기 마을’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 같이 프로젝트를 해보자고 다음연도의 계획도 그들 스스로 세웠다. 개별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의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의왕은 올해 2년차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마을 활동가를 만났다. 기존의 향토문화연구회, 청계동 마을 활동가 외에 오전동 마을 활동가, 원터마을 활동가가 문화원과 관계를 맺었다. 1년차 참여자 피드백을 반영하여 팀을 구성할 때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구성하도록 했고, 참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현장을 반영하여

매핑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때문인지 참여도가 높아졌고, 100% 수료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의왕문화원은 향후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중이며 마을 활동가들의 요구와 제안을 문화원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문화원 사업이 플랫폼 형태로 전환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지자체에서 마을 활동가 육성 사업이나 지원이 활발하여 마을 단위 인적 자원이 많다는 의왕의 특성을 활용하여 활동가들을 네트워크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간다면 문화원 역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문화원이 잘 할 수 있는 생활문화 운동

문화원 사업은 지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는 일상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마을을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내 일상을 스스로 기획하는 주민문화기획자를 지역에 남기는 사업이다. 그러한 이유로 사업 제목을 ‘로컬큐레이터’라는 지역적 범위에서 ‘마을큐레이터’라는 구체적인 범위로 변경하기도 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마을을 잠만 자는 곳, 잠깐 살아가는 곳, 무의미한 곳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생기고, 더 알아보고 싶고, 이웃을 만나보고 싶고, 걸어보고 싶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싶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마을이 생동감 있고, 활력 넘치고, 살고 싶은 곳이 되는 것. 이것이 문화원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생활문화 운동이 아닐까.

호모 비아토르(Homo Viator),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인간을 ‘길을 가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인간은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길 위에서 방향할 때 성장해서 돌아온다고 보았다. 여행의 의미가 그러한 것처럼 익숙한 것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 길을 떠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인간을 성장하게 한다고 보았으리라. 마을큐레이터 참여자들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게 되었고, 과거의 나를 성찰하였고, 삶의 의미를 탐색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그들은 마을 안에서, 일상 속에서 호모 비아토르의 삶을 살았다. 이러한 기억과 경험이 그들에게 일상을 활력 있게 살아가는 근력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 답는 글

## 나와 마을을 연결하라

기획자 민병은

의왕은 ‘매핑으로 마을읽기’로 하남은 ‘일상생활로 마을읽기’로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진행했다. 의왕은 매핑으로 하남은 이야기로 접근 방법은 작년과 동일하다. 참여자들도 80%는 동일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의왕의 경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했다는 점과 좀 더 매핑이라는 조사방식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점일 것이다. 참여자들은 마을조사라는 커다란 틀로 이해하고 있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마을을 재구성하고 싶어 했다. 매핑 조사 방식의 초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는 하나 사실에 기초한 기록방식이 아주 건조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마을은 사람들의 관계로 만들어지고 환경변화에 따라 마을살이의 경로가 바뀐다.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해가는 것을 마을조사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건조하게 다가갔을 지도 모르겠다.

두 해 째 매핑으로 마을읽기를 진행함에도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것은 이미 떠돌고 있는 정보를 전제하지 않는, 지독히도 귀납적 방법을 요청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도 위에 사실을 찍어가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의미들을 기다린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는 내가 알고 있는 마을보다 생소한 마을을 조사대상으로 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으리라. 간혹 누구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소문들이 대상을 이해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 아니 의외로 많다. 특히 마을살이는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망들에 의해 그러한 경우가 더욱 많다.

시작은 그럴듯했으나 도저히 읽히지 않는 지도가 돼서 당황해하는가 하면, 이리저리 헤매다 무엇이 있었는지 단순한 사실만으로 삶의 내용이 드러나 신기해하는 경험도 있었다(오전명동). ‘그러할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추측이었다는 것도 드러나고(도룡마을), 길의 폭과 재질의 변화가 드러나면서 본격 개발이 곧 들이닥칠 것이란 사실도 알게 되었다(원터마을). 또 이정표로 읽어보는 안내지도의 불분명함과 편의시설이 편하지 않음도(삼남길) 드러났다.

하남은 작년에 이어 이야기로 마을읽기를 지속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마을이야기를 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마을이나 사람을 조사해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조사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 어찌보면 인터넷상에 올라온 수많은 정보로 충당할 수 있을지 모른다. 오히려 그보다 더 많고 나를 정확한 정보가 있겠는가? 그러나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면 기존의 정보는 대체된다. 무시되고 잊혀진다.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정보가 아니다. 나의 이야기이든 다른 이의 이야기이든 직간접 경험

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새로운 경험들이 얹혀 저서 전해진다. 이야기의 생명력은 관계에 의해 내용이 덧대어진다는데 있다. 어려서 듣고 자랐던 이야기 속 도깨비가 모두 똑같지 않다는 것처럼 마을의 특성이 녹아들었을 수도 있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심이 녹아들었을 수도 있다. 그 곳만의 이야기들은 시공간이 중첩되면서 깊이가 더해진다. 사라지거나 무시되지 않는 삶의 퇴적층이다. 오랜 기간 전해 내려온 이야기는 그 지역의 문화적 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한다. 더구나 나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마을 안에서 나를 연결 지어야만 가능하다.

처음 참여한 하남의 몇몇 참여자들로부터 ‘너무 어렵다’,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중요한건 ‘근데 재밌어요’ 하며 배시시 웃었다는데 있다. 그동안 차려진 밥상처럼 너무 잘 챙겨 서비스 한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적극적인 참여는 참여자들의 시간과 능력을 존중하고 이들이 활동을 통해 개인적 성취를 느낄 때라고 한다. ‘배시시 웃음’은 수줍어서 라기 보다 자신감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우리는 이 활동으로 마을지도를 얻거나 소멸해 갈 이야기 기록물을 얻는데 있지 않다. 참여한 사람들이 활동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일 것이다.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경우 논의를 통해 다른 방안을 찾아보기도하고, 삶의 연륜이 많은 분들과 연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고, 글을 써내는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전시 방안 논의 등 팀 안에서 배려를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서로의 약속이다. 참여와 발언 그리고 조정과 변화, 전환 등등의 것들이 이러한 신뢰에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작년처럼 올해도 프로젝트 시작과 끝을 만들어 준 것은 참여자들의 열정이다. 무엇이 이들의 열정을 돋우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 활동을 스스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성취감이 아닐까 한다. 지면을 통해 고마움과 기쁨을 전한다. 매주 믿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의왕과 하남문화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봐 준 공주임님과 김과장님에게 특별히....

2018 문화원과 함께하는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II  
의왕 · 하남

## 뒷집지고 숨숨하게\_마을읽기

발행일 | 2018년 12월 31일  
발행인 | 염상덕  
발행처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031-239-1020  
www.kccfgg.org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공동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의왕문화원, 하남문화원  
후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총괄 | 최영주  
기획·자문 | 민병은  
진행 | 오다예  
퍼실리테이터 | 김지연, 임재춘  
특강강의 | 은유(작가)

### 의왕문화원\_

총괄 | 김상범  
진행 | 공은실  
참여자 | 강혜숙, 고동윤, 김미라, 김신혜, 김영선, 김영화, 김정희, 박단경, 박찬덕,  
송은아, 원은경, 이용기, 이정진, 전영순, 전태훈, 정분아, 정연남, 조은희, 황혜정

### 하남문화원\_

총괄 | 이상범  
진행 | 김혜연  
참여자 | 강경숙, 강신숙, 김금복, 김태란, 노은정, 박순인, 안수경, 염광숙,  
오현주, 원지현, 이상숙, 이종식, 임경재, 임영이, 장순란, 전소민, 정인아, 정정자

편집 기획 | 민병은, 오다예  
촬영 | 곽인규, 윤재민  
편집디자인 | 리피(LEAFY)  
지도디자인 | 김영화  
인쇄 | 완산정판  
ISBN 979-11-89046-05-7

\* 본 결과보고서는 2018년도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비매품)

\* 게재된 내용은 허가 없이 무단 복제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의왕문화원

 하남문화원

비매품 / 무료

03090



9 791189 046057

ISBN 979-11-89046-05-7